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 vol.430 / February / 2005

0502

대한건축사협회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2동 1321-6 동아타워빌딩 2층 우편번호 : 137-857
전화 : 02-581-5711~4 팩스 : 02-586-8823 E-mail : korea@kira.or.kr
http://www.kira.or.kr

건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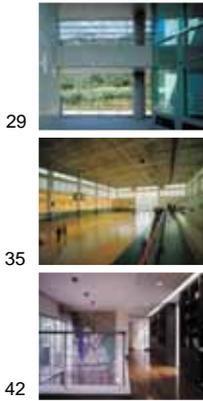
K o r e a n A r c h i t e c t

건축사 2005 / 02



표지사진 |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홍성초등학교

Contents



29

35

42

건축사

Korean Architect

차례 2005 02 430호

칼럼	국민안복(國民安福)을 위한 길	장양순	16
건축만평		유원재	19
사론	국민에게 다가서는 건축, 건축사협회	이중호	20
회원작품	창원대학교 국제교류센터	하정도 + 신삼호	22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이용선	30
	동천동 M씨택	김상길 · 김희욱	36
	삼성동 ISOD 빌딩	이세영	44
작품노트	섬진강토산어류생태관	조성호	50
건축기행	프라하에서 부다페스트로	오섬훈	54
기고	도시 주거환경의 고층화에 대하여	김선양	60
	친환경 타워형 고층아파트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김영하	62
	이야기가 생겨나는 소도읍 만들기-소도읍 종합육성 계획에 대하여	류재경	66
연재	네덜란드의 근대집합주택 - 08	최재석	70
건축마당	협회소식		79
	건축계소식		80
	해외잡지동향		83
	현상설계		86
통계			104

발행인 승수구
 편집기획 김선양, 장양순, 김종복, 박영순, 손기찬, 오섬훈,
 윤시덕, 이관직, 이재림, 이중호, 주수일
 발행처 대한건축사협회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2동 1321-6 동아타워빌딩 2층
 우편번호 137-857
 전화 대표 (02)681-5711-4
 팩시밀리 (02)586-8823
 인터넷 http://www.kira.or.kr
 E-mail korea@kira.or.kr
 인쇄인 김중식 / 제이아트 (02)2269-7619
 광고문의 흥보편찬팀



49



86



88

Korean Architect

Vol. 430
February 2005

Column

For the Good of the Country and Welfare of the People Chang Yang-Soon 16

Cartoon

Yoo Won-Jai 19

Focus

KIRA Brings Architecture Closer to the Public Lee Jong-Ho 20

Works

Change-won National University International Exchange Center Heo Jeong-Do & Sin Sam-Ho 22

Incheon Educational and Cultural for Students Lee Yong-sun 30

Dongcheon-dong M-House Kim Sang-Gil & Kim Hee-Ok 36

iSOD Building, Samsung-dong Lee Sae-Young 44

Design note

Sumjin River Fish Eco Museum Cho Sung-Ho 50

Architecture Travel

From Prague to Budapest Oh Seom-Hoon 54

Feature

On High-Rise Urban Residential Environment Kim Sun-Yang 60

Thoughts on Development Plans for Environment-Friendly Tower Apartments
Kim Young-Ha 62

Making a Small City Full of Stories - Thoughts on Small City Development Plan
Ryu Jae - Kyong 66

Serial

Dutch Modern Housings Choi Jae-Suk 70

Architects' Plaza

Kira news 79

Archi-Net 80

Overseas Journal 83

Competition 86

Statistics 104

Publisher Song Swoo-Koo
Assistant Editor Kim Sun-Yang, Chang Yang-Soon, Kim Jong-Bok,
Park Young-Soon, Son Ki-Chan, Oh Seom-Hoon,
Yoon Si-Deok, Lee Kwan-Jick, Lee Jae-Rim,
Lee Jong-Ho, Jugh Soo-Ille
Publishing Office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ddress 1321-6 Seocho-2dong, Seocho-gu, Seoul, Korea
Zip Code 137-857
Tel (02)581-5711-4
Fax (02)586-8823
Printer Kim Jung-Sik (J-art)

국리민복(國利民福)을 위한 길

For the Good of the Country and Welfare of the People

Column

되살아난 망령 - 시공업체의 설계겸업

새해 벽두부터 시공업체의 설계겸업이라는 망령이 되살아나서, 그렇지 않아도 생사기로운 허덕이는 우리 건축사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수년 전 이 문제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비했으며, 관계자들을 설득했는가? 이제 이 문제만큼은 더 이상 우리에게 짐이 되지 않으리라 생각하였는데 또 다시 규제개혁기획단에서 제도개선 방향의 하나로써 제기되었음에 경악을 금할 수가 없다.

시공회사의 논리를 그대로 규합한 이들의 논지를 보면 한마디로 시공업체의 건축설계업 참여 제한으로 턴키공사에서 불합리성을 유발시키고, 시공과정에서 개발된 기술과 공법이 설계에 원활히 반영되지 못함으로 건설 기술 발전에 저해가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방적이며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편협된 의견이 국리민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정부의 위원회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필자는 경악을 금할 수가 없다.

국가와 전문가의 권리와 의무

현대의 민주국가는 주권재민(主權在民)의 원칙에 의거, 통치자는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다. 그러나 왕정시대의 권력은 세습에 의한 왕권에서 나왔다. 왕은 왕권천수설을 주장하였기에 이 두 권력상태는 완전히 상반된 현상 같아 보이나, 실제로 왕권시대에도 민심은 천심이라든가, 백성이 하늘이라고 하여 민심을 사기에 게을리 하지 않았다. 국민 없는 국가는 없으며 민복을 게을리 하여 민심이 떠나고 망하지 않은 국가는 없었기 때문이다.

건축사는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과 더불어 대표적인 전문직이다. 이는 WTO 양허각서상의 분류에서도 건축설계 분야가 전문직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의과대학이 6년이며 수련의 과정을 거치듯이 건축사도 시공과 달리 5년의 수업과정과 인턴과정을 거치게 되어있다. 이렇게 전문직들은 장기간의 교육과 훈련에 의해 일반인이 도달할 수 없는 전문적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국가와 사회로부터 신뢰성을

인정받는 특별한 지위를 부여받고 있다. 사회가 전문직에 부여한 특권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위신과 존엄성, 확고한 업무범위와 자주적인 결정에 따른 권위, 높은 수준의 보수, 합리적 판단 능력의 인정이다. 또한 전문가들은 이에 상응하는 의무를 지게 되는 바, 실무 수행에 대한 기준의 확립과 공정성 유지, 공공의 건강, 안전, 복지의 옹호 그리고 개인의 이익에 앞선 공공의 복지와 이익 존중이 그것이다.

이렇게 볼 때 국가와 국가가 인정한 전문직으로서 건축사가 국민에게 지는 의무는 일정부분에서 동일한 것이다.

건축사와 시공자의 차이점과 육성방안

주지하는 바와 같이 건축사는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작품에 대하여 창의성과 작품성 그리고 공공성을 염두에 두고 설계와 감리를 행하는 자이며, 시공자는 경제성과 기술력 그리고 상업성(주변, 사회, 환경 등을 고려한 공공성에 반하는 의미로서 개별 건축물에 치중함을 의미)에 치중하는 근본적 특성이 있다. 한마디로 설계는 '무엇을 만들까'가 목적이며 시공은 '어떻게 만들까'를 추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육성방안 또한 건축사사무소는 창의성, 전문성 제고를 통한 건축문화의 창달과 설계능력 배양을 통한 설계의 질 향상 및 관련 전문기술 분야의 협력체제 개발에 두어야 할 것이며, 건설회사는 시공기술 개발을 통한 건설 수준의 향상, 관리능력 배양을 통한 생산성 및 품질향상 그리고 공종별 전문 시공업체와의 협력체제 개발에 두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진실로 시공회사와 건축사 그리고 국민을 위한 길이며, 중국적으로 국가를 위한 길임에도 규제개혁기획단의 제도개선 검토 방향은 앞서 기술한대로 민복을 도외시 한 시공사의 일방적 주장을 반영한 것이다. 이러한 주장들에 대하여 우리 협회를 비롯한 건축학회와 건축가협회는 한 목소리로 이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반박한 바 있다.

즉, 턴키공사에서 불합리성을 유발시킨다는 점에 대하여도 현상설계를 하는 외국의 일반적, 보편적 사실을 들고, 우리나라에서도 월드컵 상암경기장의 성공적 사례를 들었다. 미국의 대형 종합건설업체들의 설계겸업에 대한 것도 미국의 벡텔이나 파슨스가 건설회사가 아닌 CM회사임을 밝혔으며, 기타 사항에 대한 것도 구체적 사례를 들어 그의 모순성과 부당성을 통박하였다.

무엇이 국민복인가?

위와 같은 우리 협회의 주장은 진정으로 하늘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다. 그러함에도 협의나 토론 문화는 실종되고 흑백논리가 판치는 요즈음의 세태로 보면, 자칫 건축사만을 위한 집단이기주의나 소위 밥그릇싸움으로 비춰질 수 있다. 그러나 건설회사의 기술자와 설계 업무를 하는 건축사를 함께 길러내는 대학의 건축학과 교수들이 주축이 된 건축학회까지 동일한 선상에 서 있다면 우리의 주장이 그렇지 않음을 그들도 이해하리라 믿는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국민복의 차원에서 시공회사의 설계검업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근세조선이 500년 이상의 단일왕조를 유지한 것은 세계 역사상 드문 일이라고 한다. 이의 원인은 여러가지 있겠으나, 역사학자나 사회학자들은 대부분 언로(言路)의 확보를 통한 3사의 역할에 있다고 한다. 즉 사간원, 사헌부 등 관료사회를 썩지 않게 하는 감시 감독 기관이 세 개나 있고, 이들은 임금의 칼에 죽거나 귀양을 가도 할 말은 하는 언로의 자유를 누렸기 때문에 썩지 않았고, 그렇기에 500년 이상을 지속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설계와 감리 기능을 가진 건축사사무소가 시공회사에 속한다면 감시 감독 기능은 없어지고, 이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것은 개인이 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종국적으로 국가의 손해로 귀결될 것이다. 일당독재의 공산국가가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에 연유하며, 현존하는 국가형태 중 가장 이상적이라는 민주주의가 삼권이 분립하여 상호 견제하는 것도 같은 이치이다.

필자는 호주의 상징이 캔거루에서 시드니 오페라하우스로 바뀌었다든가, 캄보디아 국기에 앙코르와트 사원이 있다거나, 사양산업으로 죽어가던 도시하나가 건축물 하나로 유명해져 다시 활기를 찾는다든가 고차원의 말로 그들을 주눅 들게 하거나 예술론과 작품성을 따져 먹고살기 어려운 현실에서 따로 논다는 말을 듣고 싶지는 않다. 또한 장기적인 안목이나 혜안이 없다고 비난하고 싶지도 않다. 그러나 그들이 항상 국민복을 위해 주장하는 경제적 논리로 풀 때도, '검업이 가장 안 좋다'는 말만은 꼭 재언(再言)하고 싶다.

이것이 곧 '개인의 이익에 앞서 공공의 복지와 이익을 존중하여야한다'는 전문가로서 건축사인 우리가 반대하는 대의명분이며, 국가와 국민을 향한 우리의 충정임을 밝힌다. ■

국민에게 다가서는 건축, 건축사협회

KIRA Brings Architecture Closer to the Public

Focus

얼어붙었던 땅이 숨을 쉬고, 새 싹이 돋아나고, 겨울잠에서 깨어난 동물들이 기지개를 켜듯이 우리 건축사들도, 협회도 신임 회장을 중심으로 새롭게 다시 시작할 때이다. 우리는 그동안 쓸데없는 곳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해왔다. 이제 우리끼리 아웅다웅 할 때가 아니다. 반목과 질시의 낡은 옷을 벗어 던지고 미래를 향한 출발선에서 건축의 진정성과 함께 건축사와 협회의 존재의미에 대해 차분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누구를 위한 건축인가

우리는 건축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점점 더 왜곡돼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건축을 문화와 예술적 가치로 인정해 주지 않는 세대를 원망하기도 한다. 물론 건축이 인간의 삶을 담는 공간을 창조하는 행위인 만큼 그 자체가 문화이고 창작예술로 대접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건축만큼 사회의 속성을 두루 내포하고 있는 것도 없지 않은가. 이런 이유로 '건축은 시대의 거울' 이라고 말한다. 이는 건축물이 그 시대의 사회상이나 기술, 정신, 예술, 생활 관습 등을 총체적으로 반영할 뿐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그만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건축은 저 높은 곳에서 고고한 척 품을 재고 있을 수 있는 존재도 아니고 형이상학적이거나 관념적인 가치만을 추구할 수도 없다. 그저 그럴듯하게 내세우고 보여주기 위한 것은 더더욱 아니다. 건축물 안에서 실제 생활할 거주자들을 먼저 이해하고 배려해야 한다. 주변 사람들에게 불편부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이용자들이 접근하기 쉽고 친근감과 편안함을 주는 건축, 즉 사람을 위한 인간 중심의 건축이어야 한다. 지극히 당연한 사실이지만 우리는 상식이 통하고 기본에 충실한 건축을 해야 한다. 국민을 위해서.

대국적인 차원의 협회로 발돋움해야

나이를 먹을수록 가까운 것 보다는 멀리 있는 것이 잘 보이는 법이다. 우리 협회는 이제 40살 장년기에 접어들었다. 연륜에 걸맞게 근시안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멀리 내다볼 줄 아는 자세와 지혜가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우리끼리의 협회였다면 앞으로는 밖으로 시선을 돌려야 한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봐도 세계(밖)를 향해 나아갈 때 국운이 융성하고, 민족주의를 부르짖으며 내부적으로 갈등할 때 국운은 쇠퇴했다. 변화를 두려워말고 열린 마음으로 두 팔을 벌려 외연을 넓혀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 회장은 대내적인 일보다 대외적인 역할에 치중하고 우리 건축사의 영역, 업역을 넓혀나가야 한다.

- 협회는 국민적 관심사에 귀를 기울이고 시의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건축연구소 설립 및 전문위원회 도입 등)
- '사랑의 집짓기' 참여, 건축 상담, 분쟁조정, 건물 안전진단 및 예방, 재해복구 등 대국민 봉사활동을 강화한다.
- 건축사와 협회의 존재가 새롭게 인식될 수 있도록 대외 홍보를 강화한다.
- 산업계, 관계, 학계와의 원활한 협동과 국제 교류 협력이 더욱 확대되고 활성화 되어야 한다.
- 건축 관련 문화행사 즉, 건축 작품전, 건축 사진전, 건축 모형전시회 및 모형제작 체험교실 운영, 각종 공연 등을 주관하거나 후원하여 딱딱하고 어렵게만 느껴진다는 건축을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한다.
- 회원가입의 문호를 넓혀 사무소 등록건축사 위주에서 자격 면허를 가진 전체 건축사를 대상으로 정회원을 확충하고 예비건축사, 건축과 교수 및 학생 그리고 건축 관련 공무원과 기타 희망자에게 명예회원 또는 준회원 자격을 부여 대한민국 건축계의 전반을 아우르는 건축전문가단체로 광의적 협회를 구상해야 한다.
- 시대가 바뀌면 조직도 달라져야 한다. 건축사협회가 회원관리 및 권익보호 차원에서 벗어나 보편적인 건축문화의 전파자로, 사회적 공공성에 기여하는 공익 단체로 거듭나야 한다.

대국민 서비스 강화로 협회와 건축사의 위상을 다시 찾자

우리는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큼 남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건축사라는 자격하나로, 대한건축사협회라는 조직하나만으로 행세를 하던 시대는 지났다.

국민을 고객으로 받들고 최상의 건축 서비스와 AS까지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래야만 신뢰가 쌓이고 인정받는 건축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그런 회원이 구심점이 된 협회 또한 강한 협회, 미래가 보장되는 발전성 있는 협회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사회가 건축사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주지 않는다고 불평하기에 앞서 이 시대 건축의 사회적 역할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건축인으로서 자존을 지켜내며 건축사에 대한 사회의 인식을 올바르게 이끌어갈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무주택자 또는 달동네 영세민들의 주택문제, 가장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용도변경과 건축법의 무지로 발생하는 무단 증개축 행위, 각종 건축 관련 분쟁으로 인한 피해사례, 건축 관련 환경문제 등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기여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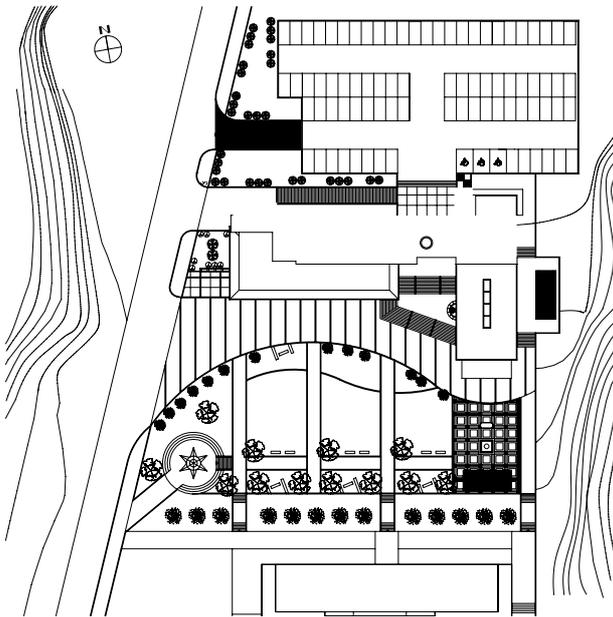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자신보다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자세를 가져야한다. 진정한 건축을 추구하고 국민을 위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길이 우리 건축사가 살고 협회가 사는 길이다. ■

창원대학교 국제교류센터

Change-won National University International Exchange Center

● 배치도

● 건축개요



대지위치	경남 창원시 사림동 9번지
지역지구	학교용지
용도	교육연구시설
대지면적	7,503.26㎡
건축면적	1,174.29㎡
연면적	3,006.10㎡
건폐율	0.15%
용적률	0.40%
규모	지상 3층, 지하 1층
구조	철근 콘크리트 라멘조 및 벽식구조
내부마감	세미나실 : 바닥-화강석물갈기, 벽-수성페인트, 천장-규산실계텍스
외부마감	노출콘크리트외 발수제, 4"스프리트블럭
설계담당	김송영
사진	건축사사무소 제공(촬영 : 이인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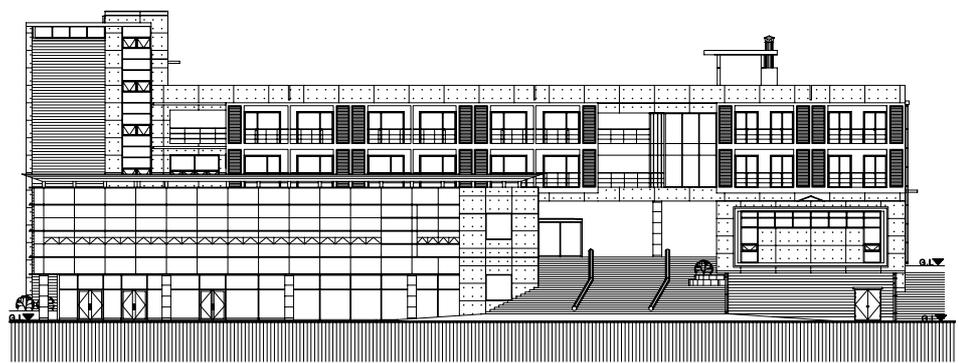


창원대학교 국제교류센터는 캠퍼스 부지 내 캠퍼스 전경을 조망할 수 있는 후방 북동측 경사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은 그린벨트 지역으로 봉림산의 자연 수림대에 면하고 있는 부지이다.

설계의 초기개념은 주변 환경과 건축물과 어떠한 관계를 설정하느냐는 것이었다.

오브제 형태의 건물중심에서 주변경관과 지형과의 관계 맺기가 키워드로 설정되었다.

건축공간은 자연공간을 담아내는 구축성을 지닌 공간체계를 형성함으로써 주변의 자연환경을 체험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역할이



정면도

라고 할 수 있다.

건물 배치는 주변경관을 수용하는 기능과 기존의 외부공간과 길의 흐름을 조정하는 역할로 기존 대지와 캠퍼스의 위계와 문맥을 유지하기 위한 배치계획을 전제로 하였다.

국제교류센터의 프로그램은 크게 세미나관, 교수회관, 연회장, 게스트하우스의 4개 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기능군은 사용빈도와 시간대를 고려할 경우 개개별 독립적 성격이 강하여, 이는 4개의 매스로 나뉘어져 수평, 수직의 채 나눔의 형태로 배치되었다.

4개의 매스는 경사진 지형에 나뉘어져 개

별적 접지성과 출입구를 가지며, 프라이버시가 요구되는 게스트하우스는 상층부로 적층되어 졌다.

진입부는 두 개의 매스와 상부에 적층된 게스트하우스에 의해 걸쳐진 피로티 부분을 통해 각 동별 진입이 가능토록 하며, 피로티는 진입시 배면의 풍경을 담아내는 후레임 역할을 하고, 상부 게스트하우스의 외부 라운지는 캠퍼스와 배면을 조망하는 누각으로서의 기능을 가지도록 하였다.

외부마감은 1차 가공품인 콘크리트면과 질감이 대비되는 스프릿블록 그리고 유리면을 대비시켜 주변환경에 돌출되지 않는 모

노톤의 질감을 유지토록 하였으며, 전체적인 매스는 저층부의 큰 매스인 세미나관과 연회장은 수평루버에 의한 커튼월의 분절로 수평성을 강조하고, 경사지형에 캔틸레버로 구성되는 튜브형태의 교수회관은 진입시 시각적 긴장감을 의도하였으며, 상층부에 얹혀진 게스트하우스는 수평, 수직벽면의 모듈화된 분절로 상층부의 중압감을 해소시켜 하였다.

중앙부의 외부계단은 공용홀인 피로티를 향한 누하진입을 위한 길의 개념으로 의도되었으나 준공후 보니 다소 위압감이 있어 아쉬운 점으로 생각되며, 외부조명매입과 시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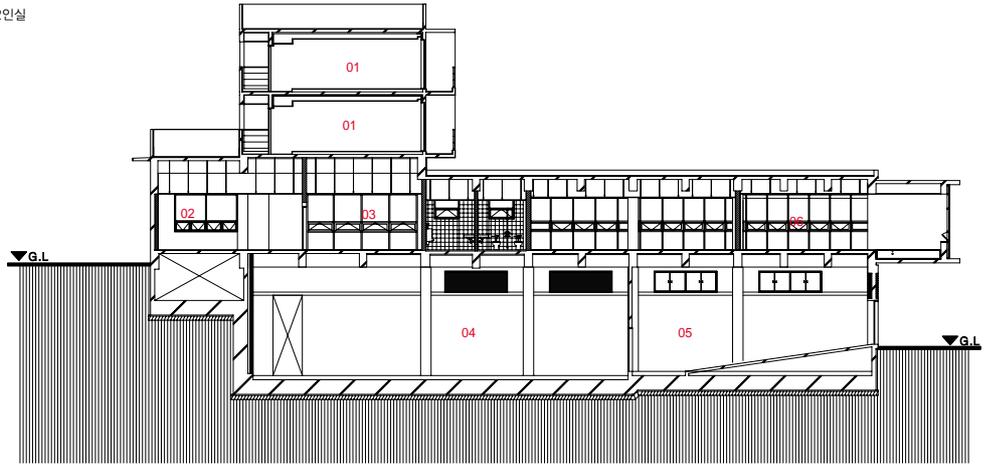
적 유도장치, 핸드레일 기능을 위해 설치한 D300백관은 원래 의도와는 달리 붉은색으로 도장이 되었으나, 오히려 오브제 요소로 인지되는 것 같다.

얼마전 이곳에서 수학경시대회가 개최되어 학생들의 미끄럼틀로 사용되었다고 하니 건축사의 의도보다는 사용자의 선택의 몫으로 남아 있는 듯 하다.

외부공간과의 관계 맺기로 시작한 국제교류센터가 봄이면 화창한 녹음을 배경으로 가을이면 낙엽과, 겨울이면 하얀 눈과 동화되어 주변환경과 교류되기를 기대해 본다. 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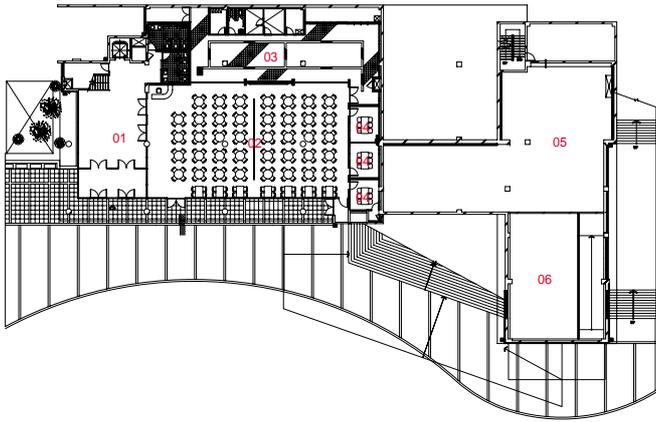
- 01. 게스트하우스 2인실
- 02. 세미나실
- 03. 휴게실
- 04. 기계실
- 05. 전기실
- 06. 학교홍보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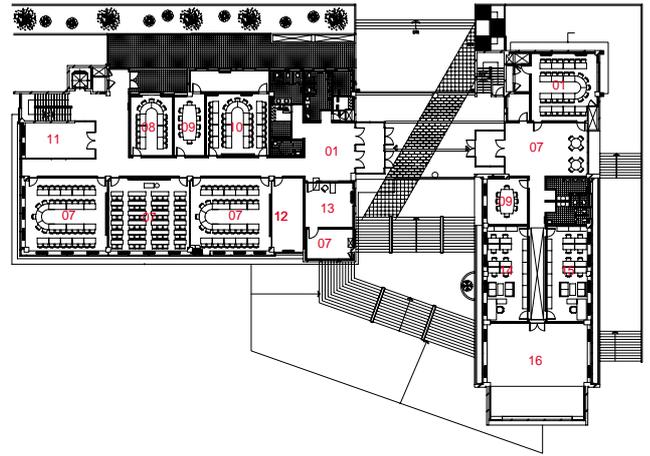
종단면도







지하 1층 평면도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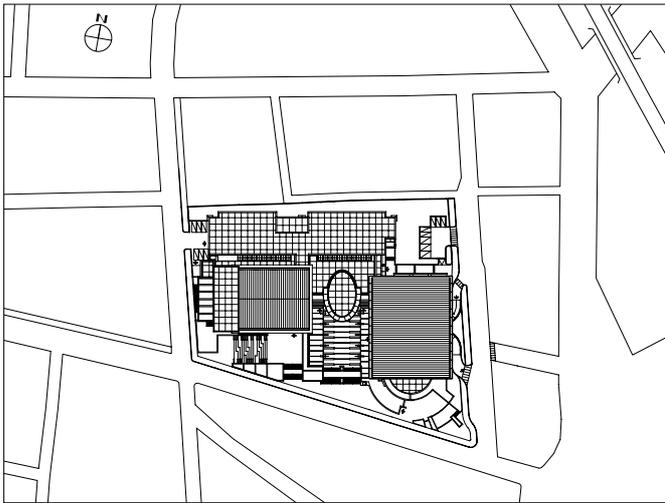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Incheon Educational and Cultural for Students

● 배치도

● 건축개요



0.26 14

대지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인현동 5번지
지역지구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대지면적	12,433.50㎡
건축면적	7,140.18㎡
연면적	22,993.72㎡
건폐율	57.43%
용적률	149.40%
규모	지상 4층, 지하 2층
주차대수	실내 100대, 실외 14대
구조	철근콘크리트 + 철골조
내부마감	로비 : 화강석물갈기, 수성페인트 공연장 : 유공MDF위 무늬목 / 방염락카 체육관 : 고무안전리브 + 흡음보드화강석, 무늬목, 흡음판, 페인트 등
외부마감	알미늄쉬트, 샌드스톤, S.P.G, 화강석 버너구이
설계담당	이용민, 정석범
사진	건축사사무소 제공

1999년 10월 29일 인천 인현동 화재참사로 많은 학생들이 희생되었다.

계획부지인 축현초등학교는 참사현장 근접지역으로 인근에 제물포고, 인성여고, 인천여상, 인일여고 등 상당수의 학교가 밀집되어 있다.

전면 10m 도로는 이들 학교들과 동인천역을 연결하는 학생들의 등·하교 이동동선의 주축으로서 계획부지는 이들 이동중심권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인근에는 각종 상권 및 유흥시설이 밀집되어 있어 청소년들은 접근에 용이한 이들 유해환경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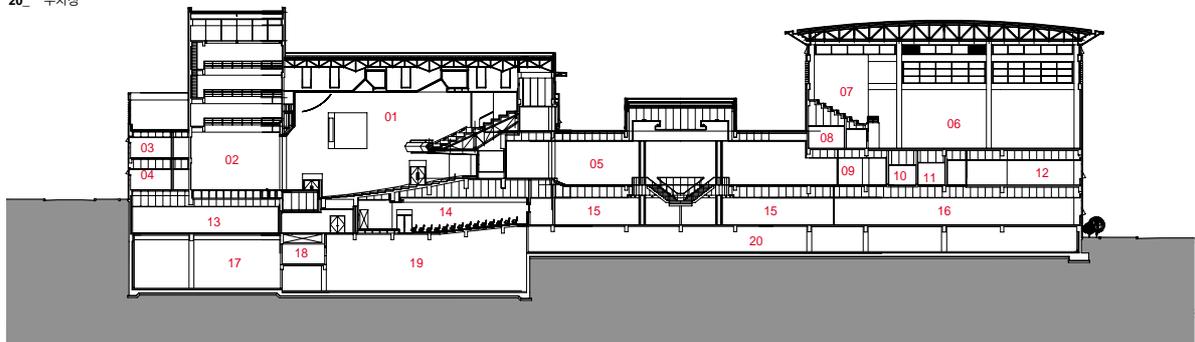
인현동 화재참사는 누적된 청소년 문화정책의 부재로 인한 사고로서, 유해환경에 노출된 청소년들을 위해 다양한 문화활동과 여가선용 등을 위한 복합적인 휴식 및 교육문화공간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주도심지의 공동화 현상에 의해 소규모로 운영되던 축현초등학교를 이전하고, 동부지에 학생들의 휴식 및 교육·문화시설의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을 건립하기에 이르렀다.

학생들의 주된 통학로인 동인천역과 자유공원을 잇는 남측도로변에 외부공간을 조성하여 협소한 부지에서의 개방감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였다.



- 01_ 공연장
- 02_ 무대
- 03_ 분장실(여)
- 04_ 대기실
- 05_ 로비
- 06_ 실내구기장
- 07_ 스탠드
- 08_ 선수대기실
- 09_ 체육관 로비
- 10_ 샤워실
- 11_ 강사실
- 12_ 탁구장
- 13_ 디스코장
- 14_ 소강당
- 15_ 만남의 광장
- 16_ 플러스케이트장
- 17_ 전기실
- 18_ 중앙강사실
- 19_ 기계실
- 20_ 주차장



0 2 6 14

횡단면도



주동축로와 연계된 야외공연장은 휴식 및 공연을 할 수 있는 다목적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고, 주출입구 전면의 진입광장은 개방된 PLAZA로서 만남의 장의 기능을 하도록 하였다.

시설 중심의 중앙로비(1층과 2층 중앙홀)는 공연장, 정보문화, 체육관 등의 모든시설로 직접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층의 자연채광 도입으로 1층 로비의 개방감 확보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공연장은 대공연장(800명 수용)과 소공연장으로 구성하여 청소년 영화·연극 및 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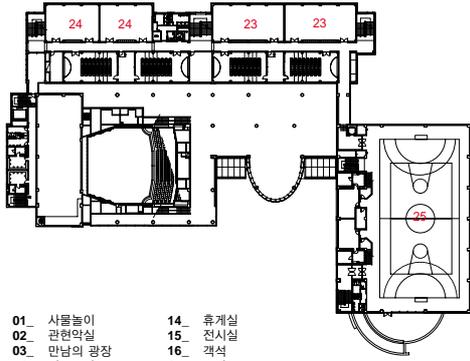
제, 음악회, 문학의밤 등 청소년들의 특별활동 공간으로 활용되도록 하였다.

정보문화동은 영화·음악감상실, 댄스연습실, 관현악실, 사물놀이실, 도예교실, 도서실등 올바른 가치관 형성 및 건전한 정서함양에 도움을 줄수 있는 시설로 구성하였으며, 체육관동에는 청소년 탁구·농구·당구·체육대회 등 다양한 여가선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로 구성하였다.

또한 지역 바자회, 생활목공교실, 인터넷교실, 전시실 등 다양한 교양프로그램의 운영으로 지역사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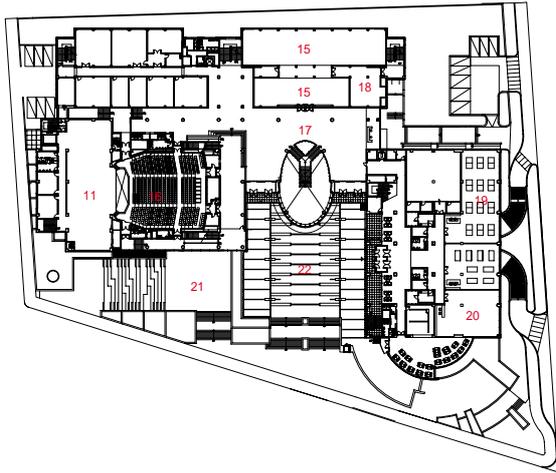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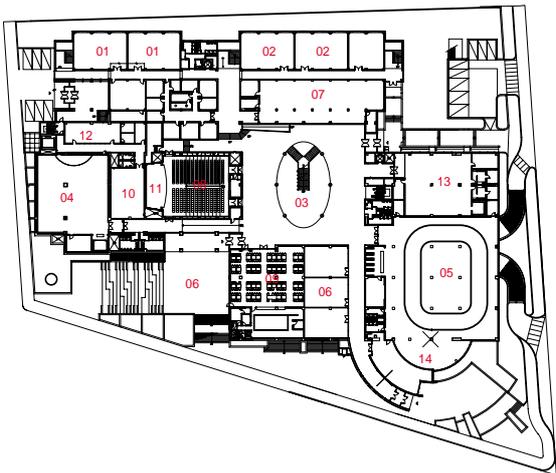


- | | |
|---------------|-----------|
| 01. 사물놀이 | 14. 휴게실 |
| 02. 관현악실 | 15. 전시실 |
| 03. 만남의 광장 | 16. 객석 |
| 04. 디스크오장 | 17. 로비 |
| 05. 플러스케이트장 | 18. 사무실 |
| 06. 매점 | 19. 탁구장 |
| 07. 인터넷카페 | 20. 체육단련실 |
| 08. 소강당 | 21. 야외무대 |
| 09. 식당 | 22. 진입광장 |
| 10. 오케스트라 대기실 | 23. 합창연습실 |
| 11. 무대 | 24. 도예교실 |
| 12. 연습실 | 25. 실내구기장 |
| 13. 유도장 | |

3층 평면도



2층 평면도



0 2 6 14

1층 평면도

동천동 M씨댁

Dongcheon-dong M-House

● 배치도

● 건축개요



대지위치	경기도 용인시 동천동 135-40
지역지구	도시지역, 보전녹지지역
용도	단독주택
대지면적	658㎡
건축면적	131.51㎡
연면적	310.50㎡
건폐율	19.99%
용적률	37.05%
주차대수	2대
규모	지상 2층, 지하 1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벽식구조+리멘조)
내부마감	바닥-온돌마루, 비닐계시트, 대리석, 자기질타일, 화강석/벽-고급벽지, 도기질타일, 수성페인트 /천장-고급천장지, 비닐페인트
외부마감	THK18 로이복층유리, 지정색볼소수지도장, 천연사암 혼드마감, 목재루버, 적삼목위 오일스테인
구조	하이구조
전기	(주)극동문화전기설비
설비	INNO Eng 기술사사무소
시공	주식회사 휴스텍
건축주	김정숙
설계담당	최우석, 최교식
사진	건축사사무소 제공(촬영: 이재성)

용인 수지지역의 고기리로 넘어가는 언덕 배기에 제법 큰 전원주택지가 조성되어 있고 그중 가장 높은 대지에 M씨 주택이 들어서 있다. 아래로 내려다보이는 전망이 탁 트여있고 햇볕이 잘 들고 바람이 시원한 집짓기 좋은 대지이다. 가족구성은 M씨 부부와 고교생 아들이 하나 있고, 모던한 그림과 조각을 많이 모아놓은 미술애호가 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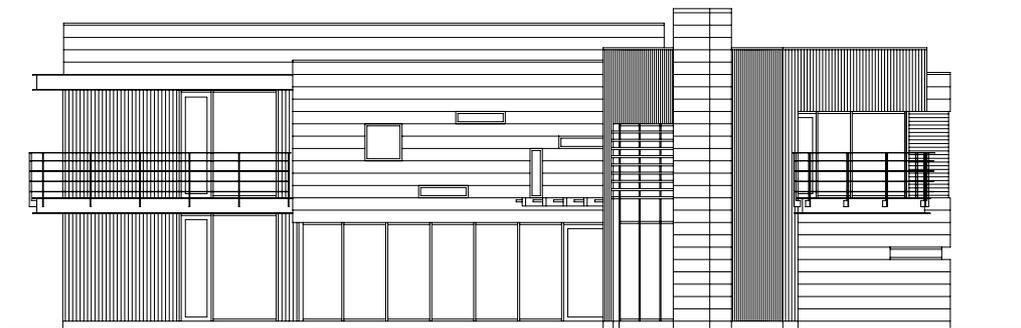
주택은 가족 간의 생활의 장소임과 동시

에 서로 소통하고, 공간을 공유함에 있어서 적절한 독립성을 유지하게 하는, 그렇지만 너무 심각하지 않는 집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 서로 동의하였다. 건축주 가족은 오랜 시간 동안 아파트에 살아서 방문만 열면 거실이고 거실에서 돌아서면 안방인 그러한 주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고, 그러한 주택에서는 가족 간에 프라이버시나 커뮤니티가 도대체 있을 수가 없다는 생각에

서로 동의하였다.

우리사무소에서 항상 주장하는 설계의 과정은 논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즉 건축의 전체적인 존재의 방식에서부터 구체적인 좌향과 공간의 구성의 틀과 재료, 접합 디테일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은 논리적이든 직관적이든 항상 건축주를 포함한 작업팀이 공감할만한 한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 주택설계에서 가장 많은 논의의





정면도

대상이 된 것은 거실에서의 조망과 접지성의 선택 문제였다. 즉, 계획 대지가 교외에 위치해 있지만 높은 곳에 있어서 조망이 상당히 좋은 대지라는 장점이 있으며, 또한 대지 면적이 비교적 넓은 전원주택지로서 실외활동(outdoor life)하기에 적합한 대지라는 특성이 있다.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의 측면을 어떻게 주거로 끌어들이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구체적인 설계가 진행되면서 이 논점은 거실과 마스터 존을 2층에 둘 것인가 혹은 1층에 두어 접지성에 더 많은 가치를 둘 것인가를 고민한 것이다. 결국 주로 아파트에서 살았던 클라이언트 가족을 위해 접지성을 선택하였다. 1층 바닥의 레벨을 최대한 마당의 레벨에 맞춰서 거실과 복도의 바닥이 외부의 데크와 잔디로 계속 이어지도록 하고, 옥외 공간이 단순히 시각적인 보여지는 정원이 아닌 구체적인 옥외생활이 잘 될 수 있도록 외부공간과 내부를 나누고 연결하였다. 서울 근교의 전원주택지로 집을 옮겨 생활하는 가장 큰 장점은 역시 옥외 가정생활

이 가능하다는 측면일 것이다. 2층에서 옥외로의 전망을 위한 시선은 거실 상부에 위치한 서재공간을 제외한 다른 실과 복도에서는 최대한 절제하여 좋은 전망을 위한 장소는 한 곳으로 정하였다.

단독 주택으로 그리 넓은 면적은 아니지만 1층의 거실은 전체 매스에 대해서 별도로 분리된 매스에 위치시켜 다른 공간과 최대한 이격되도록 함으로써 집안에서의 공격공간과 사적공간의 영역을 보다 적극적으로 구분하고, 2층에 메자닌 공간을 걸어서 거실로의 확장된, 독서하기에 알맞은 장소를 확보하였다. 이때 분리된 매스를 본 매스의 직각이나 평행이 아닌 45도 정도로 틀어놓은 것은 서재에서의 전망을 고려한 것이며, 내부에서 풍부한 공간감을 얻을 수 있었다. 외부로의 시선은 가급적 모아서 집중시켰고, 벽면을 최대한 많이 남겨서 그림을 전시할 수 있는 벽면을 확보하였다.

내외장 마감재로는 집의 성격을 고려해서 정하였는데, 특히 외장재로 라임스톤은 천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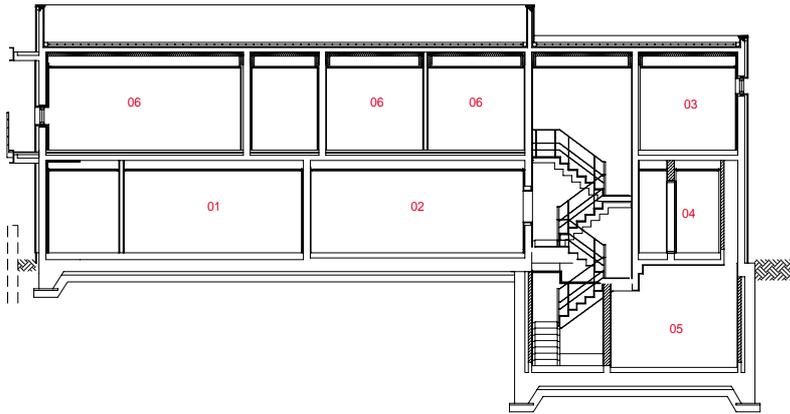




재료로서 따뜻함과 미니멀한 단정함을 갖고 있고 오일스테인을 칠한 적삼목은 전원주택의 편안함을 보여준다. 즉, 외장재를 통해서 현대적인 단정함과 전원의 푸근함을 담고자 했다. 1층의 거실과 복도가 만나는 지점의 데크 상부는 유리 캐노피를 달아서 맑은 하늘이 내부에서도 쉽게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많은 시간과 오랜 대화를 통해서 이 집과 이 집 가족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이해하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이번 작업을 통해서 서로에 대해 깊은 신뢰가 생긴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한다. 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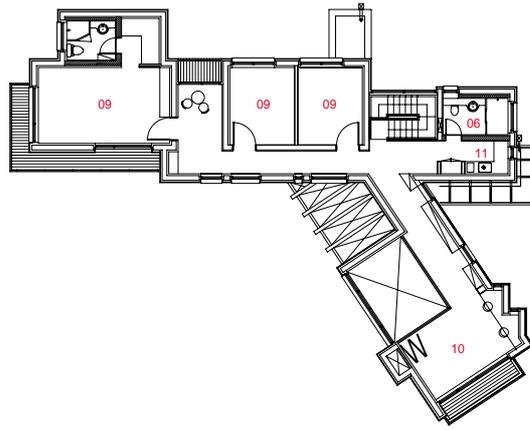


- 01. 부부침실
- 02. 주방 및 식당
- 03. 욕실
- 04. 손님화장실
- 05. 보일러실
- 06. 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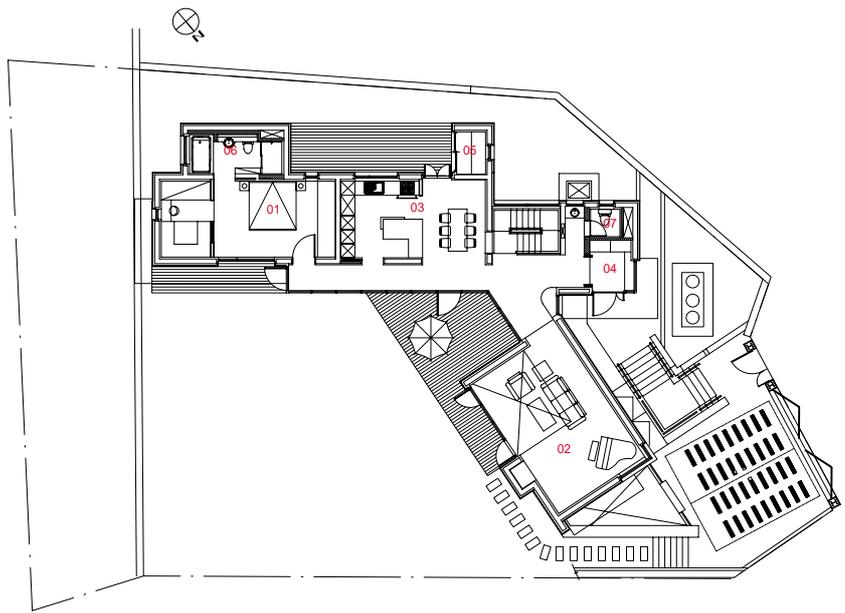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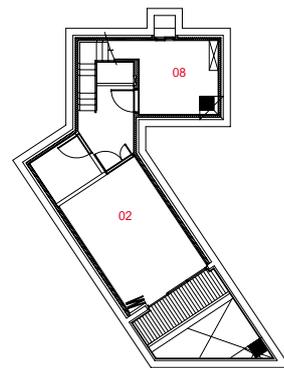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지하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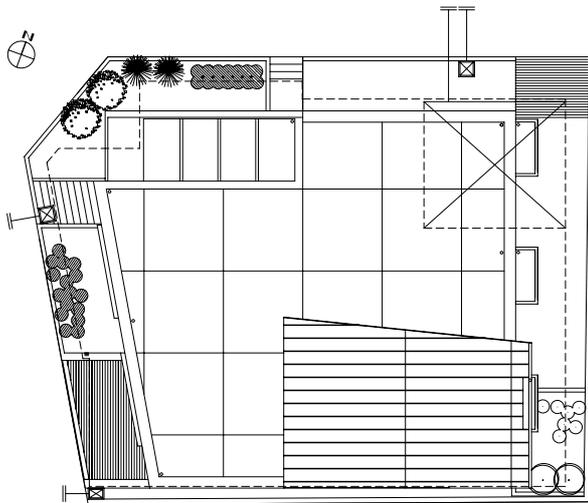
- 01. 부부침실
- 02. 거실
- 03. 주방 및 식당
- 04. 현관
- 05. 다용도실
- 06. 욕실
- 07. 손님화장실
- 08. 보일러실
- 09. 방
- 10. 서재
- 11. 간이주방

삼성동 iSOD 빌딩

iSOD Building, Samsung-dong

● 배치도

● 건축개요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38번지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용도	근린생활시설, 다세대주택
대지면적	340,60㎡
건축면적	200,60㎡
연면적	1,225,49㎡
건폐율	58,90%
용적률	289,74%
규모	지상 6층, 지하 1층
구조	철근콘크리트
내부마감	화강석물갈기, 스테인레스스틸
외부마감	베이스패널, 외단열시스템, 적삼목, 복층유리
설계담당	차성민, 이창률, 배준성, 안경란
사진	건축사사무소 제공

수년전부터 지속되어 온 일반주거지역내의 다가구, 다세대 주택의 정점에 있는 곳 중 하나가 바로 이 대지가 위치한 삼성동 일대이다. 대부분의 경우 최대한의 용적률과 최소의 비용으로 오로지 높은 수익률만을 목표로 계획되었던 동네에 하나의 색다른 분위기를 연출하고자 하는 것이 첫 번째의 목표였다.

땅

강남의 주요도로 중 하나인 봉은사로의 이면도로에 위치하고 있으며 8M 도로가 북

서쪽으로 교차하는 코너 부지이다. 대지의 서쪽이 사선으로 이루어져 건물의 형상도 이를 따라 직육면체가 아닌 볼륨을 가지게 된다. 남쪽과 동쪽은 이 지역의 대부분의 경우처럼 도로 경계선에 맞닿아 있는 벽돌마감의 다세대 주택이 자리 잡고 있으며, 이 계획과 어울릴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기 힘든 자기만족적인 형태와 프로그램을 가진다.

배치와 프로그램

봉은사로에서 사선으로 진행된 서쪽의 도로에서 약 3M정도를 후퇴시켜 길을 지나

는 사람들에게 조금은 편히 쉬 쉴 수 있는 그리고 건물의 입면을 좀 더 높은 곳까지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또한 1층에는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계획하고 그 바닥을 도로에서 약 1M정도까지 들어올려 외부 테라스를 계획하여 건물과 길의 상호 관계를 밀접하게 하였다.

2층에는 사무공간을 두고 그 상층부에는 다세대주택을 고려하였는데, 이 지역의 다른 다세대주택과는 다른 오피스텔 형식의 평면을 제공하여 수요자의 요구에 좀 더 능



indigo
ECHO-FC-010

indigo

544-1228

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2층부터의 진입은 북쪽도로로부터 이루어지며, 입구를 도로에 바로 노출시키지 않고 도로와 평행하게 그 진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중간영역을 통한 프라이버시의 확보를 꾀하였다.

기능과 입면

평면을 단순하게 보면 중앙의 복도에 동쪽과 서쪽의 개실이 붙어 있는 형상이고, 복도의 끝에 계단실이 위치하는데 이 계단실은 전체 볼륨의 중심적 요소로 작용한다. 각 층의 복도 끝은 북쪽의 하늘로 열려 있으며 각 층을 모두 아우르는 좁은 수직 공간으로 모두 연결되어 있어 입구에서 내부 공간의 수직성과 팽창의 느낌을 받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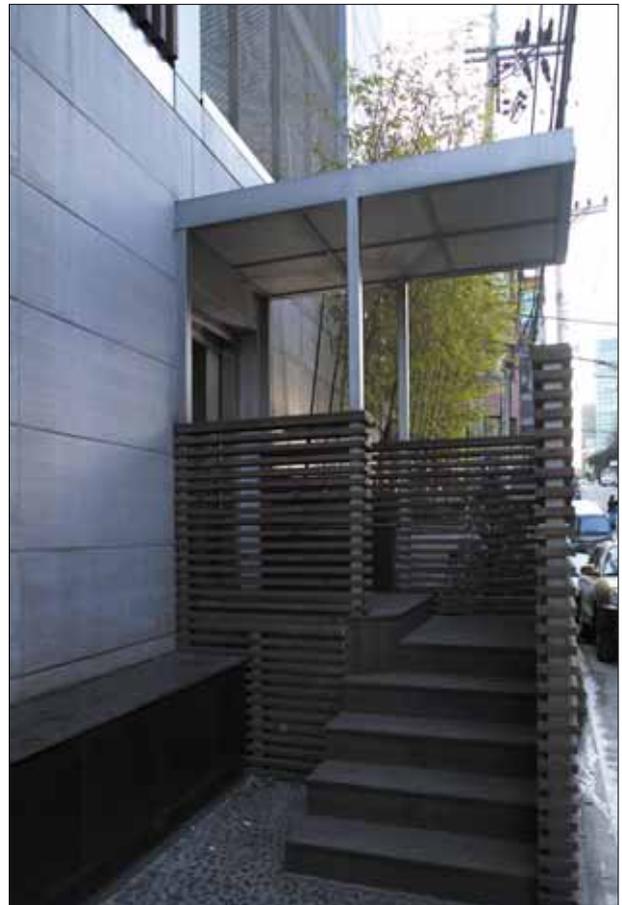
계단실의 외부는 큰 투명유리로 마감되어 자칫 어둡고 폐쇄된 계단실의 이미지에서 벗어나려 하였고, 유리의 외부에 그물망을 덧대어 내부와 외부의 직접적인 연결이 아닌 좀 더 부드러운 연결을 이룩하였다.

정면이라 할 수 있는 서쪽 입면에서는 일반적인 근린생활시설이 가지는 볼륨과 높이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수직의 요소를 고려하였는데, 각 실의 실외기실을 수직적으로 연결하는 요소로서 적삼목을 약간의 각도를 주어 반복하여 세워 놓았다. 각층이 따로 표현되는 것이 아닌 하나의 면으로 생각하고 그 면을 기능과 구조에 따라 조작하는 방식을 가장 큰 입면구성의 방식으로 결정하고, 콘크리트 구조체 위에는 특수 마감된 금속재를 적용해 오후 햇빛의 각도에 따라 다양한 색감을 느낄 수 있다.

기존 건물과 인접해 있는 남쪽과 동쪽은 상대적으로 단순한 이미지를 강조하여 주변 건물에 순응하고자 하였고, 대신 각 실의 발코니를 마치 하나의 큰 면에서부터 잘려나간 부분이 단순하게 돌출된 형태로 계획하고 그 마감도 본래의 면과 동일한 것으로 하여 단순함 속의 변화를 표현하였다.

대나무와 입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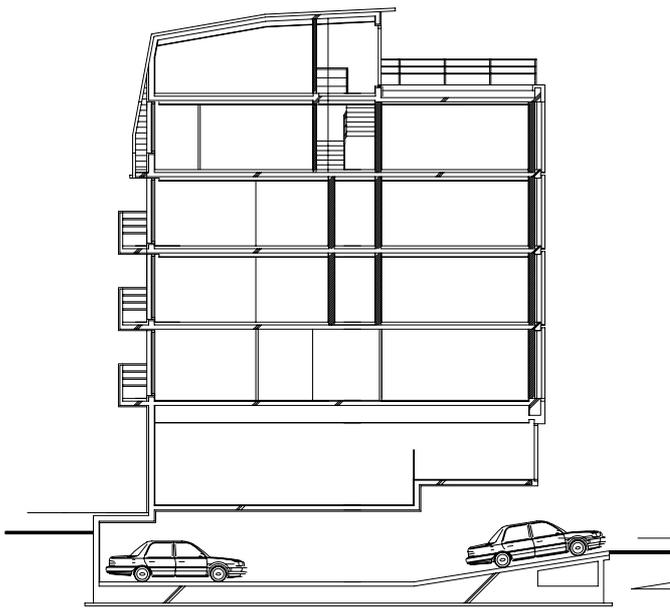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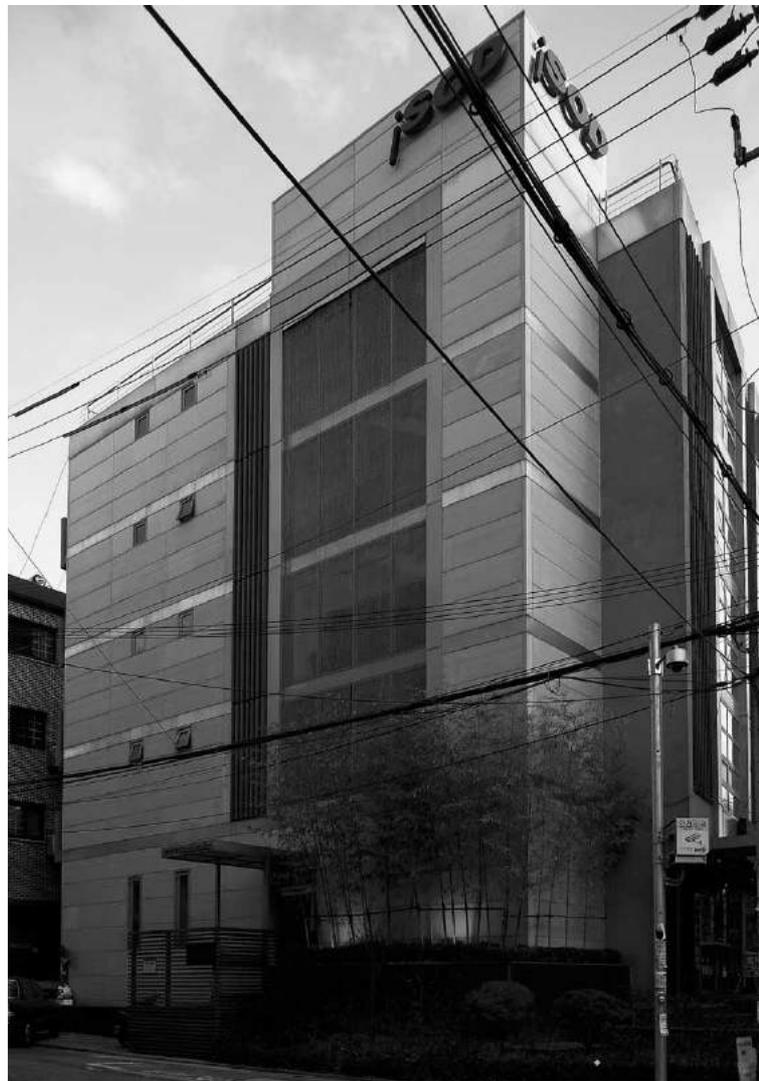
조경에는 크게 두 가지의 목표가 있는데 하나는 사용자와 거리의 사람을 위한 고유의 기능이고 다른 하나는 입면의 요소로 적용하려는 것이다. 남쪽은 각 층의 기능에 따라 상대적으로 단순한 하나의 큰 면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에 그 스케일과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심리적인 높이를 감소할 수 있는 디자인 요소가 필요하여 약 7~8M정



도의 대나무를 선택하였다. 북쪽의 그늘막 앞에도 그 망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반투명 스크린의 역할로서 대나무가 적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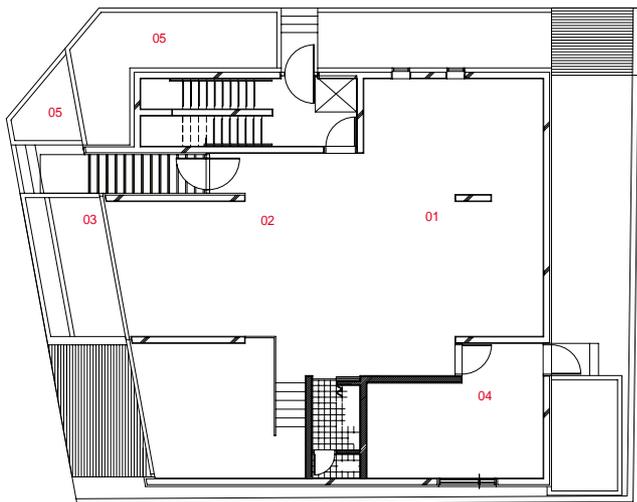
뒷글

작은 땅 위에 세워지는 집이지만 주거라는 일과 그 주거가 여럿 모여 있다는 점이 설계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아이디어를 제공하였다. 개인 공간, 공공 공간 그리고 그 가운데 공간의 제공과 이 공간들의 외피를 만들어 나가는 작업 중에 자연스럽게 결정된 형태와 마감재의 사용으로 아주 단순한 형태와 작은 규모가 가지는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실험이 성공적으로 완성되었다는 생각이다. 계속해서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거주자와 사용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그 평가를 기초로 더 나은 설계 작업이 이루어지길 고대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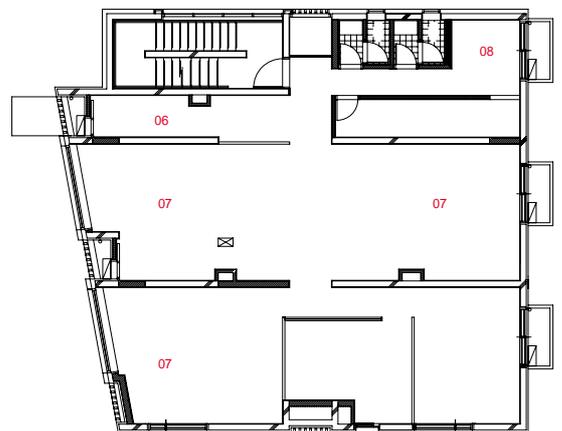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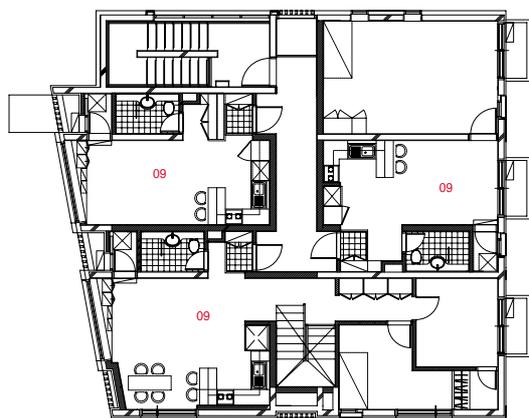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 01. 일반음식점
- 02. Bar
- 03. Deck
- 04. 주방
- 05. 화단
- 06. 자료실
- 07. 설계실
- 08. 창고
- 09. 다세대주택

5층 평면도

섬진강토산어류생태관

Sumjin River Fish Eco Museum

Design Note





섬진강을 따라 가면 보라
 퍼가도 퍼가도 전라도 싹뺏줄 같은
 개울물들이 끊이지 않고 모여 흐르며
 해저물면 저무는 강변에

 흐르다 흐르다 목메이면
 영산강으로 가는 물줄기를 불러
 뺄 으스스하게 그리워 얼싸 안고
 지리산 몽툰한 허리를 감고 돌아가는
 섬진강을 따라가 보라.

김용택의 「섬진강」에서

남도 풍경

전라도 하면 잘 보존된 자연 환경과 넉넉한 인심, 맛있는 음식, 풍류가락으로 대표되는 토속적 문화예술이 떠오른다. 많은 전시관들이 지자체의 경제 활성화, 관광자원 확보차원에서 세워지고 있지만 남도만의 독창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드문 것이 현실이다.

섬진강 토산어류 전시관은 신안군의 수산시험연구소 소속 수산연구관의 노력으로 섬진강의 산하를 뒤덮고 있는 많은 종류의 외산 어류, 식물, 동물들에 대응하여 우리 것을 알고 보존하고, 교육하는 지킴이의 역할과 섬진강에서만 볼 수 있는 남도의 산하를 담은 축소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 건물은 바가지를 얹어 놓아도 예쁘게 보일 아름다운 섬진강의 중심에 서 있다. 건물자체가 자연을 가리지 않게 하고 자연의 일부로 동화되도록 단순하고 투명하게 처리하며, 섬진강의 자연을 대지에 축소하는 것이 디자인의 출발점이었다.

대지보기

바람이 너무 거칠게 불어 현장을 한치 앞

도 보기 힘든 날에 구례군청에서 현상설명이 있었다. 구례에서 화개장터로 가는 길목에 위치한 현장은 태풍에 밀려온 자연석 덩어리로 메워져 있었다. '이 땅에 어떻게 건물을', '자연석을 팔면 돈 좀 될 텐데' 하는 생각이 지나칠 즈음 강가에 인접한 대지는 너무나 아름다운 지리산과 섬진강을 휘돌아 가고 있었다. 이 땅에 내 작품을 세우고자 하는 욕심이 저절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발담그기

현상설계만 한다면 오래 겁부터 먹는 것이 직원들이다. 언젠가부터 텀키제도라는 것이 생겨 건설사에, 외주처에, 상대팀에 치이다 보면 뒷사람이 가장 피곤해지는 데 비하면, 소장 입장에서야 건축사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일년에 두 세 번하는 현상설계는 할만하지만 직원들은 날카로운 말투로 끝날 때까지 계속 바꾸는 소장, 계속되는 철야로 피곤한 심신을 생각하자면 전라도 말로 '아따 징압네' 소리가 절로 나오기 마련이다. 이번에도 뭔가 당근이 필요 했다. '이 프로젝트를 사무실의 교육 차원에서 각자 계획을 만들어서 좋은 안을 현상 설계안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하는 약속으로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



건물에 남기고자 한 것

답음

입체적 랜드스케이프, 섬진강의 자연의 대지에 축소하여 상류, 중류, 하류의 생태를 보여 주었으며, 주변의 섬진강 강가에 언제든 연결될 수 있도록 워터 프론트와 연결을 제안하였다.

보임

전망대로서의 전시관, 주변의 도로에서 잘 인지되도록 하며, 전시관 자체가 전망대로서의 역할을 하여 전시순로에서 언제나 섬진강이 느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오름

자유로운 생명체, 투명하고 깨끗한 생명체와 물속에서 솟아오르는 치어의 모습을 담고자 했다.

에필로그

'적더라도 똑똑한 놈을'

설계가 시작 될 때부터 걱정이다. 전시관 공사비로 평당 500만원이라니, 설계비는 둘째 치고, 납품할 때 마다 걱정이다. 지방은 왜 땅 값이 싸고, 왜 이리 땅은 넓은지, 붙어 있는 시설은 왜 이리 많은지, 공사비는 항상 턱 없이 부족하다. '설계를 잘 못 배운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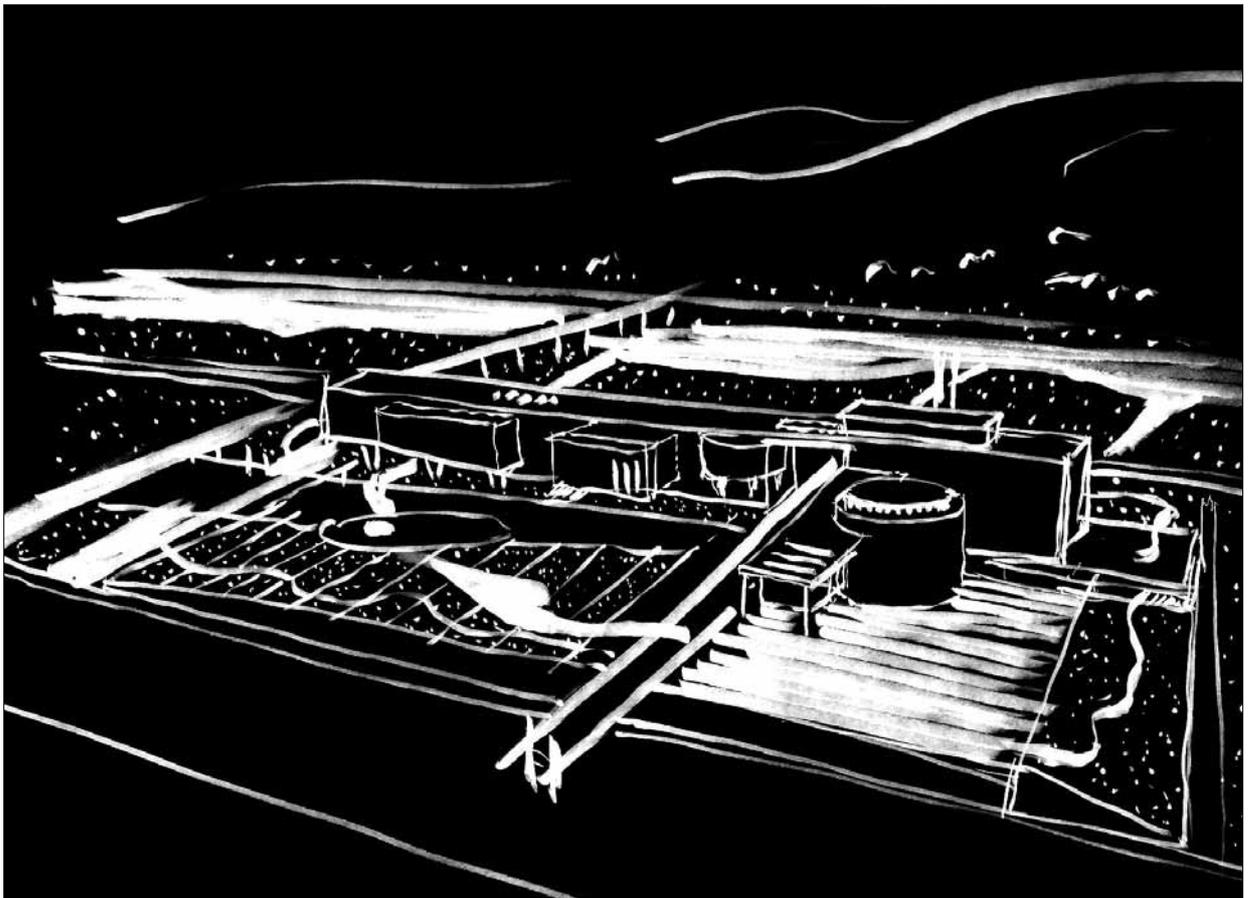
가' 고민 고민 하다가 건축사가 공사비를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적더라도 지을 때 제대로 지어야 한다는 명목의 수차례 브리핑 투쟁으로 겨우 쟁취하게 됐다.

'닭이 먼저'

전시관 설계에 가장 맹점은 전시팀과의 협력관계이다. 물론 전시하기 위해서 전시관을 짓지만 전시관 자체가 전시물이란 관점은 지방에서 기대하기 힘들다. 우리의 현실상 전시업체는 공사를 주로 하기에 설계의 전문화가 약한 것이 사실이다. 이로 인해 건축사는 발주처와 자문위원, 전시업체까지 모시는 MA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 닭도 달걀도 다 쓸모 있지만...

'쟁이 구하기'

지방에 내려 온 이후 가장 고민하는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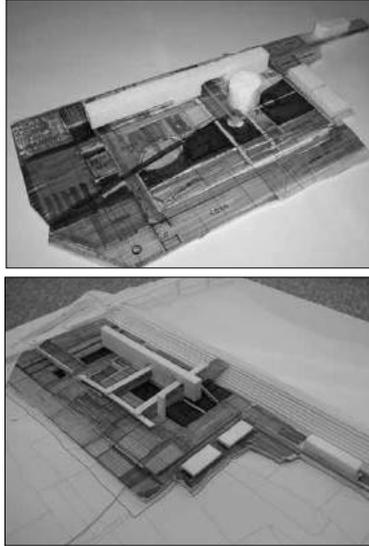


가 건축사의 위상이다. 왜 다들 건축을 하지 않으려 하는지 도통 쟁이를 구하기가 힘들다. 선배 건축사들이 잘 되서 사회의 지도자로서 부와 명예를 누리고 계신다면 이렇지 않을 텐데. 강의를 나가면서도 후배들을 설득하기에 여념이 없다. 그러나 매번 높은 산을 등반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프로젝트를 “어떻게 무사히 끝내나”하는 생각으로 “어떻게 작품을 만드나”하는 생각은 뒷전으로 밀려 난다.

‘어디 훌륭한 현장소장 없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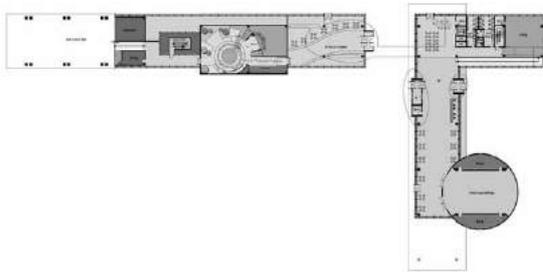
이제 곧 공사가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에 비하면 지방현장은 민원이 적고 공사현장은 널찍해서 좋은 편이다. 하지만 좋은 기술자와 협력을 구하기가 어렵고, 그 지역민들과 거의 동화되어 생활하지 않으면 공사가 매우 힘든 것이 현실이다. 어렵게 한 설계를

온갖 병을 다 치료해주시며 작품을 만들어갈 현장소장님을 기대하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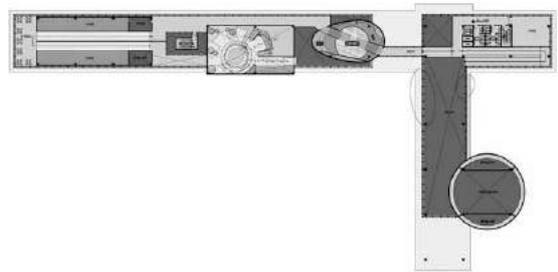


건축개요

대지위치	전남 구례군 간전면 양천리 815-12번지 일원
지역지구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
용도	문화 및 집회시설, 연구시설
대지면적	35,645㎡
건축면적	2,725.77㎡ (전사면 3833.5㎡)
연면적	3,855.34㎡
건폐율	7.65%
용적률	9.33%
규모	지하 1층, 지상 2층
구조	철골조+철근콘크리트조
내부마감	THK30 화강석, 카펫타일, 비닐계타일, AL 천장재
외부마감	THK24 투명복층유리, THK3 AL. 복합패널, 노출콘크리트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배치도

오 섬 훈
 (주)공간 종합건축사사무소
 by Oh Seom-Hoon

프라하에서 부다페스트로

From Prague to Budapest

※ 이 글은 2004한국건축문화대상 본상이상 수상자를 중심으로 구성된 해외건축탐방으로 2004년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체코 프라하, 오스트리아 빈, 헝가리 부다페스트를 여행하고 느낀 점을 쓴 것이다.

2004. 11. 25.(Local time)

암스텔담 공항에서 프라하공항(KL 3123)...

"D26에서 D24로 바꿨어" 누군가가 고함친다. 현지시간으로 boarding time이 6:55(pm)이었는데 시간이 연장이 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26gate에서 기다렸는데 암스텔담 공항답게 Transit손님이 많아서 변동이 많은게 아닌가 했는데, 역시 불행하게도 예측이 들어 맞았다. 부랴부랴 24gate로 옮겨서 또 한시간 기다려서 타고... 프라하공항행 비행기 속이다.

암스텔담 공항의 도착이 환상적 분위기였다. 자욱한 안개 속에 희미한 불빛 point들이 여기저기... 예로틱한 분위기를 물씬 나게 만들었다. 12시간 비행후 4시간 대기 후 1시간 30분 비행 후 도착 예정... 길긴 길다.

비행기를 갈아타기 위해(Transit) 도착한 암스텔담 공항 면세점에서 본 꽃신 같은 홀랜드 전통신, 타일로 만들어진 각종 공예품 등이 10여 년 전 온가족이 함께 왔던 기억을 갑자기 떠오르게 한다. 같이 왔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든다. 내년 말이나 그 언저리에는 꼭 같이 가리라.

2004. 11. 26. (Local time) / 프라하(Praha)의 첫 밤

식수온천지대로 유명하다는 카를로비 바리(Karlovy Vary)에서 2시간 남짓 들어와 프라하 시내 한가운데 있는 맥주창고였던 U KRAKAVCU에서 저녁 겸 일행들의 간단한 소개와 와인을 했다. 13세기부터 있었다는 볼트(vault)로 된 내부 천정이 아름다웠다. 조적 볼트로 인한 자연스런 내부

인테리어 분위기가 조명과 잼즈 연주로 분위기가 한껏 고조되었다. 잼즈 공연 중 선구자 멜로디가 나오자 일행 중 김종국(건원건축) 사장께서 즉석 가곡열창을 하여 마치 와인 레스토랑 전체를 전세 낸 것 같은 분위기가 되었다. 일행들의 각자 소개와 명함 교환이 있을 후 서로서로 애기꽃을 피웠다. 더구나 바이올리니스트가 우리를 자리로 와서 연주를 해서 더욱 더 그런 것 같았다. '베르...'라는 악수 같은 독주를 한잔 하고, 체코 맥주, 체코산 와인 등으로 몸들이 많이 풀려서 맘들도 자연히 편해진 것 같았다.(사진 1)

식사 후 본 프라하의 야경, 특히 보름달이 인상적이었다. 누군가가 "보름달은 동서양의 차이가 없구나"하였다. 'Full moon'이라는 영화가 생각나는데, 그 보름달은 사람들을 에로틱하게 만드는 힘이 있는 것 같았다. 다들 한마디씩 중얼거렸다. 그 영향 탓인지 곧장 숙소로 들어가는데 망설여졌다. 일부는 술집으로 가고, 옆에서 김선양단장이 프라하 성의 야경을 보고 싶다고 하여 가까이 동참하기로 하였다. 일행과 분리되어 블타바강에

걸려있던, 아까 카를로비 바리에서 시내를 들어오면서 지났던 다리도 다시 가서 강가의 야경을 보면서 프라하 성의 야경을 보기로 했다. 약 5~10분 정도 가니 야경들이 들어왔다.

체코 정부에서 중요 공공건물만 조명한다고 했다. 야간 경관을 계획했다는 말이다. 야경의 강 풍경이 아름답기는 했지만 좀 멀어서 가는 건 포기하고 사진만 찍고 다시 저녁 식사한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냥 들어가긴 아깝고 아는 데는 잘 없고... 그래서 일단 시내 야경을 좀 즐기면서 적당한 맥주바에서 맥주 한잔 하자고 했다. 그럴 듯해 보이는 뒷골목을 들어가서 돌아 나오기로 했다. 행운이었던지 결론적으로는 생각보다 좋은 코스를 잡았다(지금 생각해보니 그 장소는 구시가 중심지였고, 틴(Tyn)교회 근처였다).

흔히 영화에서 보던 유럽의 뒷골목 같은 데를 들어갔다. 차량들도 한 대 정도 지나갈 수 있는 폭의 골목이었다. 1층에서는 곳곳에 Bar들이 있었다. 한 곳에 들어갔더니 젊

은이들만 잔뜩 있는 곳이 있었는데, 우리의 형색이 그 분위기를 도저히 따라 갈 수 없어 다시 나와서 걸었다. 좀 지나 막다른 길의 왼쪽으로 돌아가니 바로 호텔 같은 블록의 피로티를 통과하니 전혀 다른 분위기의 장소가 나타났다. 이형으로 생긴 넓은 광장 같은 곳이었다. 분위기들이 차분하고 길거리의 바에는 젊은 애들이 많았다면 이곳은 나이가 좀 있는 어른들도 있었다. 그래서 맘도 좀 안심되면서 근처에서 한잔할 수 있겠다 싶었는데, 갑자기 약간의 기괴한 빛깔의 조명을 받은 성당이 나타났다. 두개의 장식적이고 고딕적인 첨탑이 하늘을 찔렀다(이게 틴성당이었다).

근처 두 집을 놓고 이쪽 저쪽 망설이다 한 군데를 들어갔다. 처음 들어가고 싶은데는 밖에서 보니 자리가 없어 보여 다른 곳으로 들어갔는데, 주인이 자리를 권했다. 그런데 분위기는 영 아니었다. 그런 차에 드링크만 팔지 않는다 하여 곧바로 나와서 원래 끌었던 집을 다시 들어가서 물었다. 맥주창고와는 달랐지만 그에 못지않은 내부 공간과 분



〈사진 1〉 맥주창고였던 레스토랑 내부 - 프라하



〈사진 2〉 Karlovy vary가는 길 - 맥주호프 재배농장



〈사진 3〉 Karlovy vary - 거리 곳곳에 있는 식수온천지다운 수도꼭지

위기를 가지고 있었다. 꼬불꼬불한 통로와 낮은 높이... 메인 홀 역시 조적볼트 구조였지만 치장처럼 보이기도 했다. 그네들이 추천하는 Chimay맥주를 마셨다. Trappist수도원에서 만들었다는 맥주인데, 마시지 말고 음미하라고 쓰여 있었다. 손님들도 많지 않아서 나름대로 차분한 분위기가 좋았다. 낮에 갔던 카를로비 바리(Karlovy Vary)는 벌써 다 잊은 듯 했다. 그곳은 약수온천지역이라 독특한 머그잔-빨대가 달린-이 인상적이었다. 치료목적인 온천이라 했다. 한국식 내지는 일본식 야외온천을 기대했던 우리들은 영 실망했지만, 그곳의 풍경은 나름대로 인상적이었다. 강 지류를 중심으로 전통적 양식들(16~17C)의 건물들로 쪽 들어서 있었다. 그래도 사우나는 해야 한다고 다들(일부 빼고) 수영장과 사우나를 갔다. 필자는 수영복이 없는 관계로 사우나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제일 잘 보냈다고들 했다. 그래도 야외수영장도 좋아보였으나 온도가 낮아서 추웠던 것 같았다.

이곳(Karlovy Vary)도 좋았으나 오히려 프라하에서 이곳까지의 길과 그 풍경들이 훨

씬 좋았다. 넓은 경작지들은 구획이 없어 인상적이었는데, 사회주의 시절의 공동경작의 영향이 남아서 여전히 그렇게 하고 공동분배한다는 것이다. 물론 소유는 개인으로 되었다는 것이다. 체코의 유명하다는 맥주의 호프(?) 제작 풍경이 인상적이었다.(사진 2, 3)

2004. 11.27. / 프라하 시내를 돌면서

오늘은 하루 종일 시내에서 보내는 코스를 잡았다. 먼저 프라하 성에서 황금소거리, 카렐교, 구시가지 광장, 바블라프 광장, 마지막으로 공식일정에는 없었던 게리의 댄싱하우스(?)를 봤다.

전체적인 인상이 뭐라고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 블타바(VLTAVA)강을 중심으로 한 야경과 다리들, 길과 광장으로 곳곳에서 사람들이 있는 길의 문화, 어떤 종류의 건물이든 거의 가지고 있는 붉은 지붕(사진 4). 이 3가지가 프라하 시내의 전체적인 인상을 지배하는 것 같다. 특히 길의 문화가 독특한 것 같다. 지도를 보면 아마도 도로율이 굉장히 높으리라 생각된다. 중세(中世) 도시의 특징일 수 있는지 몰라도 구시가지의 대부분 도

로의 폭이 5~6m는 되는 것 같다. 우리나라의 마을(북촌, 안동 등)의 골목길 개념은 없는 것 같다. 유일하다면 황금소거리-연금술사들이 만들었다는, 그리고 카프카가 집필했다는 곳이 있는-의 도로폭 정도가 연상될 정도다.(사진 5) 도시 형성의 배경이 중세여서 그러한가? 즉 마차 등의 교통수단 때문에 폼페이도의 도로폭이 정해졌다는 얘기가 떠오른다. 아마도 그와 비슷한 뭔가 있었을 것 같다. 도로문화의 또 다른 특징은 도로를 향해서 가려면 내지는 벽면을 형성해서 도로의 공간감을 한층 더 긴장되게 한다는 것이다. 황금소거리(Zlata Ulicka)에서 카렐교(Karlův Most)로 오는 길목들과 교회나 상업건물의 도로쪽 입면-그 뒤의 박공지붕이 정면에 투영되지 않고 가벽을 처리해서 정면을 만든다-등에서 느껴진다.

또 프라하 성의 정문에서 시작하여 일련의 장소들을 거쳐서 블타바강이 내려다 보이는 길(아마도 Stove. zam schody인 것 같다)을 거쳐 큰길에 이르는 과정은 가히 한편의 드라마 같은 느낌을 준다. 궁의 정문이 옛날처럼 주변에 물이나 계곡으로 분리되어 있



(사진 4) 프라하 시내 전경



(사진 5) 황금소거리 - 프라하 성 인근



(사진 6) 프라하 성에서 블타바강으로 가는 길목 - 이쁜 노점들과 관광객들로 붐빈다.

있으면 더욱 그랬을 것이다.(사진 6)

카프카가 이 프라하 성을 배경으로 '성(城)'이라는 소설을 썼는데 읽어 보고 싶다. 특히 황금소거리에 머물면서 썼다니 더욱 궁금하다. 정면에서 처음 만나는 작은 중정을 지나 가운데 비교적 큰 정방형의 중정을 만난다. 이곳에서 좀 왼쪽으로 가면 다음 영역으로 넘어간다. 그래서 비타 성당의 정문과 만난다. 찰스부르크가의 지배 흔적을 보는 왕궁을 거쳐서 황금소거리에 이르면 그 공간적 경험은 절정에 이른다. 골목길들과 2층의 군사 박물관 거리는 묘한 대조를 이루면서 또 하나의 폐쇄된 길을 내부에서 경험하게 해준다.

이를 거쳐 나와서 계단을 내려오면 달리 보르탑-감옥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거쳐 정원을 지나서 궁담을 나오면 그 영역의 마지막 길인 듯한 곳을 지나서 관문 하나를 통과해 나온다. 순간 온갖 미로를 벗어나서 탁 트인 블타바강을 내려다보면서 경사 길을 내려오게 된다. 모든 사람들이 그 길을 통해서 한꺼번에 빠져 나오게 되므로 그 길의 밀도는 이루 말할 수 없다. 더구나 길옆

으로 직경 1.5m 가량의 노점상각 단위들이 보기 나쁘지 않다)들이 진을 치고 있어 더욱 더 그렇다.

오전의 마지막 투어였던 카렐교 역시 대단했다. 어차피 동서로 건너야 하는데, 이 다리가 제일 먼저 세워졌다. 성네포목의 조각상을 비롯해서 여러 전설 때문에 그리고 강을 건너야 하는 이유 때문에 굉장히 불똥다. 한강 스케일 보다는 작지만 세느강 보다는 넓어서 강 이쪽 저쪽의 긴밀한 맛은 떨어진다.

또 다른 고밀도 지역은 역시 구시청사가 있는 구시가지이다. 특히 구시청사 건물에 있는 천문시계는 정각 5분에 창문에서 모습을 나타내는 예수의 12제자와 베드로의 닭과 조각상들의 움직임 때문에 주변에 사람이 엄청나게 모여든다.

가이드 말로는 연말 자정 때 천문시계 앞의 커피숍의 커피 한잔 값이 70만원 정도한다고 한다. 주변에 밀집해 있는 상가들과 틴성당 등의 명소가 더욱 더 사람들을 모이게 한다.(사진 7) 다른 곳을 못 봐서 아쉽다. 미루어 짐작컨데, 중세적 풍경의 아름다움 뿐

아니라 공간적 다양함의 보고임에도 틀림없으리라

마지막으로 본 계리의 건물-진저와 프레드라는 댄서 이름을 딴 건물-은 아간에는 너무 죽어 있다. 국가시책-옛날 중요 건물만 조명함-때문에 그런것 같고 기둥들이 인도 위에 있는 것은 참 이상했다. 그런 것을 허용한 프라하시도 이해가 안 됐다. 밤이어서 그런지 책에서 본 것을 확인한 이상의 느낌을 주지 못했다.

2004. 11. 28. / 빈(Wien)에서 첫날을 - 실내악의 밤

프라하에서 4시간 남짓 E59도로를 타고 빈(Wien)에 12시경에 도착했다. 가이드와의 연결이 매끄럽지 못하여 약간의 시간을 지체하였다. 이 행사의 주관은 사협회에서 하면서 여행의 기획을 서울경제 신문과 솔빛 여행사가 했다는데, 세세한 여행 답사지 등이 그에 못 미치는 듯해서 좀 아쉬웠다.

Stephan platz의 성 슈테판 성당과 Plague column이 있는 그라벤(Graben)광



(사진 7) 프라하의 또다른 중심지인 구시청사광장



(사진 8) 도나우강과 링 로드를 경계로 성스토펜성당을 중심으로 8개 정도의 철탑이 서 있는 빈구시가지의 모습



(사진 9) 비엔나 스테판 광장에서 왕궁가는 길의 해프닝들

장 같은 길을 지나 왕궁과 영웅광장 등을 구경했다. 도시구조나 길의 열개는 프라하에 비해 좀 단조로운 느낌이었다.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모노톤(monoton)이었고, 평면적이어서 그런지, 프라하의 구시가지 광장에 해당되는 곳만 보아서 그런지... 아마 후자일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관광지도-엑소노메트릭으로 건물들이 상세하게 그려져 있었다-를 보니 Ring Road와 도나우강을 경계로 가운데 성 스테판 성당의 종탑을 중심으로 8개 정도의 침탑이 그 경계를 따라 서 있는 것이 인상적이다. 진짜 그런 의도가 있었나?(사진 8, 9, 10)

다음날 오전의 비엔나에서 여정은 중앙 묘지의 음악가 묘지와 쇤부룬(Schonbrun) 궁전 관람으로 마무리 했다. 비엔나는 어젯밤 실내악(관현악단과 가수, 댄서)의 밤-시트라우스 공연관-에서 느껴지듯 철저한 관광 산업화가 되어 있었다. 전혀 시설 투자 없는 공연장의 성황이나 전국 곳곳에 흩어져 있는 음악가들 내지는 유명인들을 한 군데 집합시킨 납골묘나(빠없는 납골묘와 가

족들 뼈가 있는 묘는 약간 다르다) 심지어 초대 대통령부터 마지막 대통령까지 한 군데 모아 놓고 이들을 관광 산업화 시키고 있었다.(사진 11, 12)

2004. 11. 29. / 부다페스트의 밤

다들 실망을 해서 다시 체코로 가야한다는 것이다. 밤늦게 도착해서 내일 하루가 마지막이므로 아쉬움이 많은 것 같다. 그것이 저녁 후에도 적당한 프로그램을 찾게 만드는 이유였던 것 같고, 또 하나 여기는 어떨까 하는 궁금증도 있었으리라.

부다페스트의 첫날밤은 나름대로 실망감을 안은 채 변죽만 울리고, 체코 프라하의 야경과 별반 다를 것 없는 부다페스트의 야경을 보는 것으로 족해야 했다.

가이드 말이 부다페스트의 야경은 유네스코에 등록되어 있다는데, 이런 정도의 야경은 프라하나 빈 등에서도 충분했는데...(그러나 다음날밤 다뉴브강 선상 투어는 이 느낌을 완전히 바꿔주었다)

빈의 거리 풍경이 풍성하고 화사한 이미지를 주었다면 부다페스트는 많이 떨어진다.

소득차이도 많이 난다는데, 그 차이가 밤에도 느껴진다.

2004. 11. 30. / 부다와 페스트가 부다페스트 만든다

어젯밤의 기억-빈에서 밤늦게 도착해서 부다페스트 첫인상이 좋은 편은 아니었다-과는 달리 부다페스트의 지형과 건물들이 Duna강(다뉴브강)변 주변의 경관들과 언두라스 거리 주변들의 풍경은 전체 느낌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특히 선상에서 다뉴브강을 따라 투어한 강변 코스(왕복 1시간 남짓)는 화려한 야경 탓 인지 어디 또 다른 세계로 빨려 들어간 것 같은 착각을 들게 해주었다.

가이드의 해박한 지식(박사완료) 덕택에 헝가리의 역사와 마저르 민족이란 것과 마저르족들이 들어와서 살기 전에 원주민으로써 로마(Roma)인들과 (그때 지명이 아킨콰이였음 '물'의 의미) 흥노(훈족, Ungers 등으로 불리기도 했음)들이 살고 있었으나 우랄산맥 서쪽에 살던 마저르족이 이리로 와서 정복 후 정착했다고 한다. 1230여년 경에 몽고족



〈사진 10〉 근대건축을 연 세제션 빌딩



〈사진 11〉 관광상품화 된 빈의 요한시트라우스 공연



〈사진 12〉 묘지조차 관광상품화시킴-역대 대통령들만 모아 별도의 묘역을 만들 정도

의 침입을 받은 후에 수도를 현 부다 언덕으로 옮겨서 새로 만들었다고 한다. 이곳의 부다(물의 의미-헝가리어)는 구시가지이고 강 동쪽의 페스트(벽돌공장의 의미)는 신시가지라고 한다. 이곳 지명도 이 두 군데의 합성 결과이다.(사진 13) 이 두 곳을 잇는 다리가 처음에는 150여년 전(?) 체인브리지(세체니브리지?)였고, 현재는 주로 마리아브리지(체인브리지는 오래됐으므로 차량무게에 제한이 있고 그 오른쪽은 metro line)을 주로 이용한다.

마지막으로 간 곳이 겔라언덕이다. 자유여신상과 과거에 감옥이었던 곳을 박 물관, 레스토랑 등으로 삼고 있었다.

그리고 이 다뉴브 강변에 중심한 부다페스트의 야경은 유네스코의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야경으로 등록되어 전기료의 70% 정도는 지원받고 있다고 한다.(사진 14, 15) 선상에서 광주시청에서 오신분과 도심지 간판 규제와 아파트의 피로티 등 공공성 제공 시 보전 방안 등을 얘기하면서 잠시 비판적이 되었다. 왜 우리는 이지경이 되었을까. 한쪽 분야에서만 너무 급히 빨리 가버렸나? 우

리에게 남겨지고 내려온 유산은 뭘까? 또 뭘 자랑스레 넘겨줄 수 있을까?

개인이나 국가나 다 마찬가지로 아닌가 싶다. 가족 생각이 많이 났다. 같이 보면서 느낄 수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사는 게 중요한 지 좀 더 생각해 봐야 할 일이다.

지금 생각하니 아득한 기분이 들 정도로 언제 갔다 왔나 싶다. 여행 당시 그날 그날 조금씩 적은 글이라 좀 거칠고 분위기 어색한 곳도 된다. 현장감 있는 느낌이 그곳에서의 기억을 불러내는 것 같아 그냥 적는다. 일주일 남짓 본 동구는 지형 차이로 인해서 주는 모습이 프라하나 빈, 부다페스트의 차별을 짓게 해주는데 큰 요소가 된 것 같다. 그 도시의 정체성은 비단 지형적 차이 뿐 아니라 '문화'-삶에서 비롯된 여러 양상들-적차이나 인프라의 차이가 중요한 형성 요인이 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점에서 시간이 쌓이고 쌓여서 형성되었을 이 지역의 '문화' 유산은 가이드가 아무리 열심히 설명해 줘도 교과서 수준 이상의 것은 들어오질 않는다. 그래서 가끔 여행에서 느끼는 이방인

같은 느낌들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는 생각과 그냥 참고사항일 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그네들의 살아가는 틈바구니 속에 끼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의 시간은 스트레스 해소, 휴식만으로 치부하기엔 벅찬 느낌이 쌓인 것은 부인할 수 없었다. ▣



(사진 13) 다뉴브강을 중심으로 왼쪽의 부다지역과 오른쪽의 페스트지역이 나뉘



(사진 14) 다뉴브강가의 야경은 세계에서 제일 아름답다함



(사진 15) 페스트의 영웅광장 근처에 있는 현대건물

김 선 양
(주)한중종합건축사사무소
by Kim Sun-Yang

도시 주거환경의 고층화에 대하여

On High-Rise Urban Residential
Environment

도시는 그 곳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상을 반영하는 시대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그 공동체가 가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환경 등의 여러 가지 요소가 도시의 모습을 결정하고 발전시켜 가는 것이다. 1960년대 이후 경제발전과 산업화가 지속되면서 농촌 중심의 사회에서 도시 중심의 사회로 급격하게 변모해 왔고, 그 결과 우리나라의 도시화율은 약 90%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전국의 아파트는 1980년 말 전체 주택의 5%에 불과하던 것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대도시의 인구 집중과 이에 따른 토지의 고도이용이라는 기치하에 고층아파트의 건립이 지속되어 오고 있다.

기성 도시의 성능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재건축의 필요성 대두

1990년대 주택공급 200만호를 배경으로 아파트의 양적 공급이 확대되었고, 앞으로도 재개발 재건축에 의해 아파트 건설의 지속적인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전체주택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은 35%를 상회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며, 이러한 아파트의 대량공급 추

진은 인간적 척도, 접지성 부족으로 인한 소외경향의 증대, 근린성 약화, 과밀감 발생, 외부 공간의 비활성화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런 정부의 근시안적 정책은 주택공급의 양적 확보와 공급 달성에는 성공을 거두게 되었지만 폐쇄적, 배타적으로 이루어지는 공동주택단지 개발로 획일적인 생활공간과 단지내 옥외공간의 절대 부족 등 도시 활력이 저하되고 주변도시 조직과 연계성이 미흡하여 도시 및 지역경관을 훼손시키고 있다.

고층 주거 재건축의 필요성 대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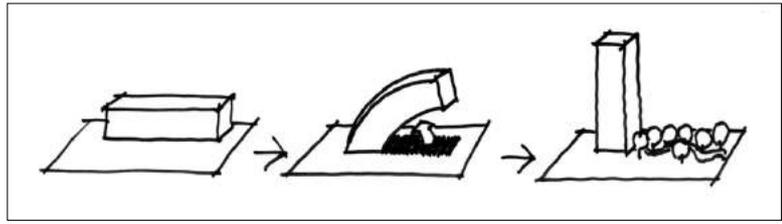
1990년대 후반부터는 우리나라 대도시를 중심으로 고층 주거 건축물의 건설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제는 주거건축의 독립적인 영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관심과 사업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고층 주거 건축의 역사가 짧은 이유로 법적·제도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고층 주거건축의 개발은 과밀한 도시의 주거



부산 비산 아스타 (야경)



부산 비산 아스타 (전경)



문제 해결방안 뿐만 아니라 토지이용의 효율화, 도시경관의 재구성 등으로 세계 여러 국가에서 평가받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고층 주거 건축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대규모 단지의 개발도 점점 많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지역균형발전과 더불어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재건축과 재개발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기존 도심의 도시경관적, 주거환경적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대도시에서는 재건축에 있어서 과거 공급자 중심의 양적개발이나 판상형 남향위주의 단지 개발계획은 개선되어야 한다.

앞으로의 아파트 재건축의 방향은 지역주민과 소비자 중심의 질적 개발이 필요하며 주변지역과의 조화, 개방적, 환경 중심적 발전방향이 필요하다. 이에 도시이미지 제고를 위한 고층형 아파트 건설과 개방된 도시경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기존 도시의 성능과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초고층 건축을 언급할 수 있으며,

보다 넓은 녹지공간과 공개공지의 확보, 도시의 스카이라인 재구성, 자연적·시각적 경관 확보를 위한 고층 아파트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적 수단으로서의 제도 개선 방안 또한 필요하다.

따라서 재건축 억제정책에 따른 도시발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재건축의 활성화를 위한 저 건폐율, 고층화 재건축에 대한 제도 및 사례 조사를 통해 개발밀도제한이 미치는 영향 및 특성을 분석하여 도시건축적 차원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바람직한 고층형 아파트 건축의 활성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시행착오 대비를 위한 선진국 사례연구 필요성 대두

타워형 초고층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필자의 견해로는

확실한 방재계획의 수립, 천재지변을 대비한 내진설계와 시공기술력 개발, 자연환경 시스템개발, 적절한 실내온도 유지를 위한 커튼월 방식의 개선, 이웃간의 시선차단을 위한 합리적인 배치계획, 공유면적 증가에 따른 분양가 상승대책, 각 세대별 불공평한 일조량 개선, Zone별 풍압차에 의한 소음처리, 녹지공간의 이용방안 등을 조사연구하여 시행착오에 철저히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

김 영 하
 단국대학교 건축대학 교수
 by Kim Young-Ha

친환경 타워형 고층아파트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Thoughts on Development Plans for
 Environment -
 Friendly Tower Apartments

우리나라의 아파트 건설은 60~70년대 이후 경제발전과 산업화가 지속되면서 농촌 중심의 사회에서 도시중심의 사회로 급격하게 변화되는 과정에서, 도시인구 집중에 따른 주택공급을 해결하고 도시내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다. 1975년 도시계획법에 아파트지구가 도입되면서 많은 아파트지구가 지정되었으며, 1976년 서울시에 의해 수립된 '영동아파트지구 종합개발계획'에 의해 아파트건설이 촉진되는 계기가 되었다. 1987년 주택건설촉진법이 제정되면서 더욱 활성화가 되었고, 90년대 주택공급 200만호를 배경으로 아파트의 양적 공급이 확대되었다.

90년대 후반부터 일고 있는 자연환경과 어울리는 자연 친화적인 아파트 건립과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중시한 도시경관, 수변경관을 반영하는 배치계획을 요구하는 사회적인 여건이 조성되면서 우리나라 대도시를 중심으로 69층의 도곡동 타워펠리스, 목동 현대하이페리온, 삼성동 I' Park 건설 등 점차적으로 타워형 고층아파트 건설이 시작되고 있다. 타워형 고층 아파트 개발은 과밀한 도시의 주거문제 해결방안으로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여러 국가에서 평가 받고 있는 실정이다.

친환경 타워형 고층아파트 활성화의 당위성

타워형 고층아파트는 하나의 개별 건축물이 아닌 도시와 지역적 범주의 도시건축물이다.

도시주택의 고층화는 1980년대 이후 택지의 부족에 따른 주택공급량 증대를 목적으로 시작된다. 수평적 주택공급방식에서 수직적 공급방식으로 전환되면서 공동주택의 층수는 점차 높아지기 시작하였으며, 현재 도시의 중, 고층 아파트의 향후 방향은 친환경 타워형 고층아파트를 통한 재건축으로 유도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개발방식은 주거환경의 향상 뿐만아니라 도시적인 측면에서 경관의 향상과 녹지공간확충, 자연친화적인 요소를 도입한 주거환경개선, 그리

고 미기후의 조절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도시개발의 유도가 가능하다.

21세기의 도시개발의 방향은 환경을 고려한 개발방식이다. 독일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미기후에 따른 도시열섬, 통풍로 차단, 에너지 과다 소비, 대기오염 증가, 통풍율의 감소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시 및 건축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이것은 단지내의 거주자 뿐만 아니라 도시민을 위한 환경 친화적인 개발 방식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다.

아파트 단지의 동 배치와 규모, 형태는 주변 대지의 환경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도시 미기후에 대한 고려 없이 분양을 고려한 판상형 아파트중심의 획일적인 개발이 이루어져왔다. 타워형의 고층아파트 단지의 개발은 토지이용의 효율성증가뿐만 아니라 도시 미기후의 조절과 도시 경관의 향상 그리고 주변 대지의 일조 및 채광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수변공간과 녹지공간에 있어서의 현재와 같은 경관의 차폐와 비합리적인 배치방식을 탈피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타워형의 고층아파트 단지의 개발을 위해서는 현재의 평면적 도시 관리에서 입체적 도시관리로의 법, 제도적인 측면에서 개선 방안과 건축계획적인 측면에서의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

법, 제도의 개선 방안

친환경 타워형 고층아파트 건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내의 법 제도의 개정이 선행 되어야한다. 현재 중, 고층 아파트를 규제하기 위한 법 제도는 타워형 고층아파트의 건축이 불가능할 뿐만아니라 바람직한 친환경 타워형 아파트 단지를 유도 할 수 없다.

친환경 타워형 아파트를 통한 일조와 경관의 향상. 그리고 바람길과 같은 도시 미기후의 조절이라는 측면에서 현재의 법제는 전환이 필요한 것이다.

전반적인 건축물의 흐름이 초고층화, 복합화, 대형화 되어가는 시대적 흐름에 부합되지 못하고, 지역의 특성 및 주변여건을 도외시한 과도한 규제로 중층 아파트 중심의 개발로 인해 도시녹지 공간의 부족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도시의 성능과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보다 넓은 녹지 공간과 공개 공지의 확보, 도시의 스카이라인 재구성 자연적,



삼성동 IPark 지상46층



삼성동 IPark 배치도

시각적 경관 확보를 위해서는 지역특성에 맞는 도시계획을 수립 적용해야 한다.

친환경 타워형 아파트에 대한 방재, 형태, 외관 공개공지 등의 요소들은 친환경 타워형 아파트에 대한 법제 개선 후 세부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며, 지구단위 계획에서의 층수기준 완화, 입면 및 입면차폐도 규제에 따른 층수 제한완화, 사선제한에 의한 높이 기준 완화 등 각 지역별, 단지별 특성을 고려하여 타워형 개발이 가능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계획적 측면에서의 개선방안

친환경 타워형 고층아파트는 건축계획적인 측면에서 일반건축물과는 차별화 된다. 구조적인 측면에서의 안전성 뿐만아니라 방재적인 측면에서의 안전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주거환경적인 측면에서의 향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입면의 계획

저층부 : 형태와 용도

타워형 아파트에 있어서 다양성은 크게 저층부, 기준층, 상부층에서의 차별성으로 드러날 수 있다. 특히 저층부는 보행자의 시각적 범의 내에서 중요하게 인지되는 부분임을 고려하여 단지 전체의 통일성 속에서 다양한 입면이 구성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이 필요하다.

저층부의 용도는 접지층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주거의 용도보다는 보행공간이나 커뮤니티 형성의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다.

중층부 : 색채, 재료, 건물의 폭

중층부는 주거공간으로 이용되며 획일적인 형태를 나타내게 된다. 중층부는 건물에서 차지하는 입면 비율이 높기 때문에 색채와 재료의 선정에 있어서 주변 건축물과 조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고층부 : 헬리포트와 형태, 야간조명

타워형 건축물의 최상부는 도시의 스카이라인과 랜드마크적인 이미지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타워형의 최상층은 도시의 어느 곳에서나 인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에서 건축된 친환경 타워형 아파트 및 주상복합 건축물의 고층부는 많이 변화하고 있으나 평지붕의 일률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건축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헬리포트 기준이 초고층에도 적용되기 때문이다. 해외의 초고층 건축물의 최상층에서의 헬리포트 규정을 살펴보면, 비교적 다양한 고층부 입면을 나타내는 미국은(National Fire Code) 강제 조항이 아닌 선택적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일본은(운수성 항공법) 1986년 12월 헬리포트 설치기준을 완화 시행하였으며 의무는 없다.

따라서 초고층의 헬리포트는 다른 방재적인 요소를 통하여 최상층의 입면의 개선을 통한 도시의 이미지 개선을 위한 법적 개선이 필요하다.

초고층의 경우 야간 조명을 통한 야간 도시 경관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따라서



싱가폴 Suntec City (45층)



홍콩 Olstar + Olymp (47층)

현재와 같은 평지붕의 제약 속에서 주간과 야간의 도시경관의 다양성을 추구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종합적인 관점에서 고층부 입면의 다양성을 추구하고 실제적인 방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동선의 계획

엘리베이터 수송 능력

타워형에 있어서 엘리베이터는 이동 동선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그 수송능력이 거주 환경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성능 기준이 아닌 양적 기준에 의존하는 현재의 법제는 개정되어야 한다.

커뮤니티 공간 계획

폐쇄적 주거방식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중저층부에 커뮤니티 공간을 설치하여 거주성을 높여주고 거주민들 간의 공동체 활동 공간을 확보하고 이를 통하여 폐쇄적인 주거환경을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거주성의 평가

실내공기

주거 공간에 있어서 실내 공기는 거주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타워형 아파트에 있어서 실내 환경에 대한 질 지표를 마련하고 이것을 통하여 거주성에 대한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것은 설비 시스템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절대적인 지표가 될 것이다.

최고층의 거주성과 구조계획

초고층 건축물에 있어서 구조계획은 주거 안정감을 확보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초고층 건축물의 안정성은 횡력에 대한 구조적 안정성이다. 거주자의 연령대를 고려한 거주환경의 특성들은 구조계획에서 사전에 반영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특성들은 사전에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

안전성의 계획

방재 계획

초고층 건축물의 경우 각종 영화나 사고를 통하여 화재와 같은 재난이 커다란 재앙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방재 계획은 사후 평가 방식으로는 이전의 건축물에 있어서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초고층 주거의 경험이 없는 우리의 경우에 있어서 사후 평가 방식보다는 사전에 시뮬레이션기법을 이용하여 방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내진설계

초고층 건축물의 경우 구조적인 중요성과 함께 기계 및 전기 설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이것은 층수에 비례하는 것으로 재난의 정도와도 비례하는 것이다. 현재 지진에 대한 각종 기준들이 강화되고 있으나 이것은 구조적인 측면에 치중하고 있다. 이것은 초고층 건축물과 같은 경우 기계와 설비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해 볼 때 구조체에 대한 내진 설계 이상으로 기계 및 전기부분에 대한 내진설계가 이루어짐으로써 재난의 범위를 축소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친환경 타워형 고층 아파트 활성화를 위하여는 지역특성에 맞는 도시계획을 수립, 적용해야 하며, 법제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고 방재, 형태, 외관, 공개공지 등의 요소들은 법제 개선 후 세부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일본 록본기(六本木) 46~48층(근경)



일본 록본기(원경)

류 재 경
비전건축사사무소 (인천)
by Ryu Jae - Kyong

이야기가 생겨나는 소도읍 만들기 - 소도읍 종합육성 계획에 대하여

Making a SmallCity Full of Stories -
Thoughts on SmallCity Development
Plan

이야기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이 공간뿐만 아니라 시간까지도 함께 나누면서 가슴벅찬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소도읍 만들기는 도로나 광장 등을 만들어 내는 것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사람과 사람을 새롭게 결합시키는 일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야기가 그곳에 살아 숨쉬어야 한다. 이러한 이야기가 생겨나는 소도읍 만들기를 최근 행정자치부에서 시행중인 '소도읍 육성 사업'에서 찾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 여겨 그간 관여했던 인천광역시 강화읍의 예를 들어 이야기가 생겨나도록 하고 싶다.

행정자치부의 소도읍 육성사업

2001년 1월 8일 제정된 「지방 소도읍 육성 지원법」에 의거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 오는 2012년까지 앞으로 10년간 행정자치부에서 지정한 전국 194개 소도읍이 순차적으로 테마가 있는 지역 중추 소도시로 집중 육성된다.

소도읍 육성사업은 지방소도읍을 주변 농어촌의 중심거점지역으로 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생활복지 향상을 기하고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소도읍의 종합적·체계적 개발을 통해 자체 생산능력을 갖춘 지역사회의 경제적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고, 생활편익과 문화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지역 정주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한 시간적, 공간적 범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시간적 범위

- 계획기간은 10년으로 하되, 1단계 사업 계획 기간은 3년으로 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토록 한다.

○ 공간적 범위

- 계획구역은 원칙적으로 지방소도읍육성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소도읍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 소도읍은 주변 농어촌지역과 다양하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종합계획 수립시 주변농어촌지역과의 관련성을 충실히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사회복지·교육·문화시설 등 배후 농어촌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시설 및 공간에 배후 농어촌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시설 및 공간에 대한 계획은 배후농어촌의 이용수요를 필수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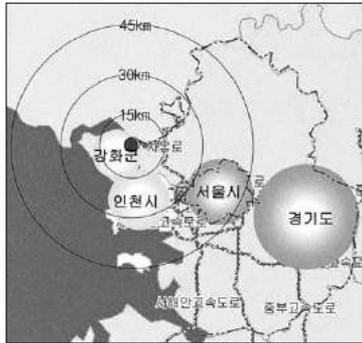
전국에 산재해 있는 각 소도읍 중 상향식 공모제를 통해 육성협약을 체결한 2003년 5월에 14개읍, 2004년 6월에 22개읍, 2005년에 7개읍을 사업대상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소도읍 사업 대상지역과 중요 육성사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무순으로 육성방향 요약 정리함)

▷ 2003년 대상지역(14개읍)

1. 인천광역시 / 강화읍
역사·문화체험형 박물관 도시
2. 강원도 / 평창읍
관광·실버산업 활성화를 통한 휴양도시
3. 충청북도 / 영동읍
과일테마 관광·휴양공간 조성 및 연계 벨트
4. 충청남도 / 금산읍
인삼, 약초산업의 메카 및 건강도시
5. 충청남도 / 홍성읍
전통문화와 청정환경 문화·환경도시
6. 전라북도 / 진안읍
천혜의 자연환경속의 청정 환경도시

7. 전라남도 / 화순읍
살기좋은 문화 관광 전원도시
8. 전라남도 / 장흥읍
전남 중남부 생활권 중심지
9. 전라남도 / 해남읍
전남 서남부지역의 행정·문화 관광지
10. 전라남도 / 함평읍
생태체험관광·서남해안 거점지역
11. 경상북도 / 영덕읍
생태휴양 관광마케팅을 통한 중심지
12. 경상북도 / 봉화읍
청정자연환경과 관광자원화 도시
13. 경상남도 / 가야읍
기존산업활성화, 신산업환경 구축
14. 경상남도 / 합천읍
산물,자연,문화를 활용한 지역산업 활성화



수도권 제1의 자연생태·역사문화관광도시 강화

▷ 2004년 대상지역(22개읍)

1. 울산광역시 / 온양읍
자족적 도·농 중심도시
2. 경기도 / 팽성읍
국제 커뮤니티의 국제공동체 마을
3. 경기도 / 양평읍
생태여가, 친환경관광업 전원도시
4. 강원도 / 주문진읍
자족적 생산능력 해안어업형 도시
5. 강원도 / 거진읍
금강산 나들목·통일 전진기지
6. 충청북도 / 매향읍
청정석회 첨단산업 도시
7. 충청북도 / 괴산읍
고추, '잠자리 고을' 육성도시
8. 충청남도 / 유구읍
전통산업 활성화, 유구자카드 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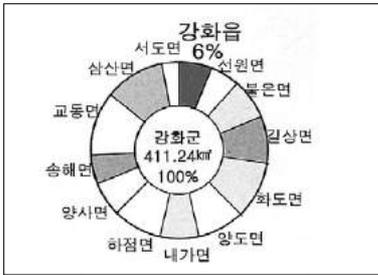
9. 충청남도 / 강경읍
첫갈산업의 메카, 근대역사 관광도시
10. 충청남도 / 태안읍
해양과 내륙 허니 포트형 거점도시
11. 전라북도 / 신태인읍
농촌산업 제고 통한 풍요의 고장
12. 전라북도 / 운봉읍
국악과 자연이 고원속의 레포츠 도시
13. 전라남도 / 남평읍
전남 중심부의 신행정 수변 전원도시
14. 전라남도 / 구례읍
관광, 스포츠, 문화도시
15. 전라남도 / 무안읍
양파한우와 갯벌낙지, 청정지역
16. 전라남도 / 완도읍
살고싶고, 다시 찾고 싶은 도시
17. 경상북도 / 화양읍
세계적인 소싸움 축제의 메카
18. 경상북도 / 고령읍
전원 문화 관광도시
19. 경상북도 / 울진읍
천혜의 자연자원 활용 지역 관광
20. 경상남도 / 하동읍
물길과 꽃길 속의 관광 전원도시
21. 경상남도 / 산청읍
모험레포츠와 한방 휴양 건강도시
22. 제주도 / 애월읍
생태관광을 실현하는 관광도시

▷ 2005년 대상지역(7개읍)

1. 부산광역시 / 장안읍
청구, 청산, 청해가 어우러진 소도읍
2. 대구광역시 / 다사읍
환경친화적 안전, 편리한 소도시
3. 경기도 / 전곡읍
선사문화 자원을 연계한 북부 중심도시
4. 강원도 / 홍천읍
가족 중심의 녹색체험 소도읍
5. 경상북도 / 청송읍
건강한 청정 휴양도시
6. 경상북도 / 예천읍
전통스포츠와 바이오 도시
7. 경상남도 / 남해읍
꽃과 바다, 사람이 함께하는 보물섬



강화읍 위치



강화읍 면적비율



강화읍 인구비율

소도읍(강화읍)의 문제점 인식과 가능성

국토의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효과적인 대안의 모색중 한계에 달한 소도읍의 모습이 발견되었다. 소도읍의 인구는 최근 20년 동안 35% 이상 감소하고 주요 도시기반시설 정비 수준은 도시지역의 50%수준이다. 교육, 문화, 사회복지 여건이 더욱 열악함은 말할것도 없다.

기존의 강화읍은 정주인구의 감소, 상점가의 정체, 방재상 위험 노출, 고려 문화 요충지의 훼손 등 적극적인 개선노력이 필요

하다. 도로, 공원, 녹지 등 도시 인프라의 시급한 정비 노력은 기존 시가지 곳곳의 문제를 포괄적으로 거론해야 하는바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의 생활, 활동의 장을 어떻게 개선하는가의 문제에 도달하게 된다. 언급한 문제들이 하나씩 매듭 지어질때면 이와 더불어 쾌적한 환경의 도시 매력과 시민 생활의 질과 지역 발전이 현실 되어 나타날 것이다.

개성있고 활기찬 강화읍의 다양한 이야기 꺼리들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1) 거리환경 정비사업

- 무표정한 건물에 표정 입히기... 포인트 창문의 다변화 및 무질서한 간판정비
- 건물 벽면 녹화 및 옥상 녹화, 강화군청 담장 철거 후 휴게 공간화.

2) 친근한 가로 가꾸기 지원사업

- 건물과 건물사이의 가동식 미관 담장 및 주차장 설치, 조경식수
- 각종 정류장을 간선도로에 간섭 없도록 재 정비 및 문화 권역별 컬러 노면화

3) 문화마을 가꾸기 사업

- 용흥궁 주변의 주민의 협조로 전통기 와집과 담장으로 보수
- 학생 사생대회를 통해 '희망의 강화읍' 아이디어 수집과 계몽

4) 상징거리 정비사업

- 강화 및 초지대교에 문화·역사의 고장 상징물과 인포메이션 센터 건립
- 고려궁지 입구도로의 칼라블럭 문양화 처리 및 상징 게이트 건립

5) 상징가 활성화 사업

- 고려전통거리 재현을 통해 토산품점 개설을 중앙시장 상가 중앙부분 개축으로 설치
- 통일된 브랜드 전문화거리 조성을 위한 전문 상담원 파견(민관공동테마사업화)

6) 주택 개량 사업

- 공공기능의 조건 충족 시 특별행정 지원

- 도로의 각진 부분의 도로화 협조시 지원

7) 친수 공간(시설)의 조성

- 국화리 저수지의 물을 이용한 문예회관 주위 자연녹지에 생태 수변공원조성
- 광장과 공원에 분수시설 설치

8) 역사·문화 유산의 상품화

- 일일 도심탐방 코스 개발 및 문화유산 이벤트화
- 남산 관광타워 설치 및 사계절 썰매장 설치

강화는 우리나라 민족사의 축소판이라 할 만큼 다양한 문화유산이 전역에 산재되어 있고, 훼손되지 않은 수려한 자연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는 지역임을 잘 알고 있기에 극대화 노력을 뒷받침 할수 있는 행정체계가 더욱 요구 된다.

강화읍 종합 육성 계획 사례분석

행정자치부의 소도읍육성사업계획의 지침을 시달받은 강화군은 도시허가과를 주무부서로 하여 주민단체장들과 간담회를 시작으로 기획단을 설치하였다. 이후 인천발전연구원에 연구용역을 구성하는 등의 노력이 이루어 졌다. 주민의식 전환 방안 및 지역경제 진흥 활성화 방안 등을 주민 스스로 참여하여 지속적으로 자생할 수 있도록 강화읍사무소에 종합발전 추진 위원회를 설치 하였다. 기획단 회의 3회, 추진위원회 회의 3회, 주민 설문조사 및 주민 공청회 주회를 거쳐 본계획서가 마련되고 강화군 의회와 인천광역시 의회를 거쳐 최종안의 보고서가 행정자치부로 제출되었고 강화읍은 2003년도 대상지역으로 결정되었다. 주민들은 기뻐하며 곧 이루어질 환상의 도시를 그렸다. 그러나 이시간 현재 주무부서인 도시개발과만의 일로 주민들의 관심은 잊혀진 사실이 됐다. 강화읍 일원에는 현재 건축제한

고시(2003. 12. 10)가 발효되었고, 그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안은 2003년부터 3년간인 2005년 말까지 이다. 완료예정기간이 불과 1년여 남아있다.

문제는 행자부의 기준이 당초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을 경우 해당 자치단체 귀책사유로 인한 추진 부진시, 문제 해결 시 까지 잔여 육성사업비를 중단한다는 조항이 큰 걸림돌이 될것이다. 계획은 그럴싸하게 만들어 지고 일처리는 호지부지하는 행정이 되지 않도록 큰 관심을 가지고 독려해야 할것이다.

강화읍 가꾸기는 경제성 투자효과, 실천가능성들을 고려하여 단기(2003~2005년), 중기(2006년~2008년), 장기(2009~2012년)로 구분하여 공공이 주도하여 단계별 사업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다.

단기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강화민속장 명소화 사업
 - 강화민속 5일장을 테마로 직거래장 조성
 - 도·농교류의 중심지로 육성
- 둘째, 용흥궁 주변 공원화 사업
 - 문화재 밀집지역 환경정비
 - 도심주변 정비 및 공원녹지 확보
- 셋째, 강화역사 4개 탐방로 조성 사업
 - 시대별 문화재 네트워크 형성
 - 문화유적을 연계하여 역사·문화·관광
 - 도시로 강화를 브랜드화
- 넷째, 주민참여형 지역가꾸기의 실천
 - 꽃길가꾸기, 담장 허물기
 - 깨끗한 상가 만들기 등

단기 실천 사업은 강화군이 육성의지를 가지고 중앙정부와 인천광역시가 예산을 적극 지원하여 공공이 선도적으로 실천하는 추진 형태로 결정되었다. 모두가 소망하는 주민이 참여하는 커뮤니티 활성화 방법론의 실천의

지가 또 한번 좌절을 맛보게 되는 순간이다. 타 지역 소도읍 가꾸기에서나 적극적인 주민참여형 개발계획 실천의 소식을 듣고 싶다.



고려궁지 진입로 시물레이션

이야기가 생겨나는 그날까지

외국의 소도읍 개발 정책 사례나 관련 책자들을 통해 나타난 이야기가 생겨나는 소도읍 만들기는 주민과 전문가,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힘을 합하여 환경을 아름다움과 부드러움, 그리고 즐거움으로 가득 채우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생활의 질'을 획득해 내는 것이 특징이다. 도시계획이나 주택 환경정비는 공공단체가 맡아 하는 것이라는 관념을 버리고 주민의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행위 및 공공 단체와의 적절한 파트너십에 기초한 마을 만들기 중요한 것은 소도읍의 '건강함'을 회복하는 것이다.

소도읍 만들기는 초기에 하드웨어적 환경정비에 앞서 주민 공동 생활상의 과제를 풀어나가는데 지혜와 힘을 쏟아야 하며, 연차

적으로 소프트웨어적 소도읍 만들기 활동은 점점 더 다채로워져야 할것이다.

강화는 섬 전체가 우리 민족정기의 뿌리가 되는 단군의 성지이며, 호국의 성전이다. 또한 곳곳에 존재하는 선사시대로부터 근세에 이르는 소중한 문화유산을 볼 때 강화는 단순한 관광지가 아닌 우리민족 문화의 수도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동안 강화군의 일부로 보여져 왔던 단순시각에서 벗어나 강화읍이 내재한 잠재력을 이제 우리 민족정신문화의 수도로 재조명 시켜야 할 때가 도래한 것으로 말하여도 지나치지 않으리라는 생각이 지배적인 흐름임을 명확히 밝히려 한다. 소도읍이 제 모습을 가지고 있으므로 대도시의 실질적 분산을 가져오는 국토전체의 효율적 이용과 적정한 균형 발전을 실현할 수 있다고 본다. ■



강화민속장 조성 조감도



용흥궁 주변 정비 및 공원화 사업 조감도



강화 역사문화자원 현황

네덜란드의 근대집합주택-08

Dutch Modern Housings

원제 : Housing in The Netherlands 1900-1940

어느 나라보다 공동체 인식의 바탕에 형성된 네덜란드 집합주택은 엄격한 가톨릭 정신과 자연을 극복해야만 하는 절박한 운명이 네덜란드인을 하나로 묶으면서 동시에 집합주택이 도시미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네덜란드인의 기본정신 위에 발전된 집합주택은 이념을 달리 하는 다양한 건축운동, 건축가의 의지와 실험정신 그리고 예술가와 건축가의 협력 등이 모태가 되어 생성되었다. 역자가 몇 번에 걸쳐 연재할 호린베르흐(Donald I. Grinberg)의 저서, 'Housing in The Netherlands 1900~1940' (Delft University Press/1982)을 통하여, 네덜란드 근대집합주택을 '근대'라는 기능적이고 합리적인 시점만이 아닌 도시미와 커뮤니티 그리고 선단적인 집합주거 공간을 파악하는 주요한 단서로서 기대하고자 한다. <역자 주>

목	차
01_	역자서문/첫머리에/산업혁명 이전의 주거상황/산업화와 도시화
02_	1900년 이전의 주택공급과 주거환경
03_	1902년에 제정된 주택법/카미로 지테의 영향
04_	건축사의 새로운 역할
05_	전원도시의 전통
06_	집합성과 공유공간
07_	표준화
08_	이데오르기(목적과 수단)/공간의 새로운 개념
09_	공간의 개방성:고층화/결론

※ 저자 호린베르흐(Donald I. Grinberg)는 미국인으로 하버드대학 대학원을 마치고, 네덜란드로 건너가 델프트 공과대학 건축학부에서 연구하였다. 부인이 네덜란드인으로 자료를 모으거나 분석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받았다. 호린베르흐 자신도 능숙하게 네덜란드어를 구사하게 되어, 네덜란드 체재 5년간의 연구 결과로 출판된 것이 'Housing in The Netherlands 1900-1940'이다.

※ 역자 최재석은 1982년 홍익대학교 건축학과 졸업, 요코하미국립대학 대학원 건축학과를 졸업한 후 경원대, 목원대, 청주대 건축학과 강사를 거쳐 현재 한라대학교 건축학과 부교수로 재직 중. 전공은 '건축 설계·의장'으로, 특히 네덜란드 근대건축운동 중 '더 스테일(De Stijl)' 운동과 관련한 조형사상 및 색채실험에 꾸준한 관심을 갖고, 대한건축학회·한국건축역사학회·일본건축학회 등에 다수의 논문을 발표함. 건축사(1997)자격을 가지고 있으며, 주요저서로 『네덜란드 근대건축』, 『원주 근대건축』, 『더 스테일의 역사와 이념』 등이 있다.

이상 : 목적과 수단

1927년부터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까지 주택건축의 이념에 관한 전개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의 주거 이념에 대한 평가보다는 분석을 먼저 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주택 자체보다는 이를 둘러싼 개인과 그룹의 활동을 통하여 좀더 일반적인 상황을 관찰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주택의 발전문맥을 밝히기 위해 1927년을 기점으로 새롭게 등장한 건축운동과 제2차 세계대전까지 주택의 발전과정을 고찰하고자 한다.

더 아흐드

1927년은 1900년부터 1940년에 이르는 기간 중 하나의 분수령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당시에 주택에 관한 새로운 이념이 발표되었기 때문이다. 1927년 슈투트가르트에서 개최된 바이젠호프 집합주택 전시회에서 새로운 이념이 명확히 표명되었고, 미스 반 데르 로에, 르 꼬르뷔제, 아우드, 스타뎀 등의 건축가들이 참가하여 집합주택을 설계하였다.

이 전시회에서 새로운 이념들이 도입되었는데, 한 가지 예로 자유로운 평면(open plan), 흰 벽면(clean white surface), 큰 창(large window), 그리고 기술적으로 잘 갖추어진 부엌(technically equipped kitchen) 등을 들 수 있다. 한편으로는 당시 독일에서 일어난 나치스와 좌익 건축가 사이의 대립과정도 특이할만하다. 네덜란드에서는 독일에서 발생한 정치적 대립을 거의 볼 수 없었다. 이와 같은 정치적 대립은 1950년까지 이어진다.

1920년대 초, 할렘공예학교에서 암스테르담파 건축가였던 보르크킹(Vorkink)와 블라우(Blaauw)의 가르침을 받은¹⁾ 메르 겔바하(1901~61)는 1927년 이후 주택의 발전과정에 관하여 비평적 역할을 하였다.

메르 겔바하는 1926년, 소련 방문을 계획하고 있던 로흐렘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었다. 당시 메르겔바하 자신에게는 건축과 사회에 대한 이념을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였다. 메르겔바하는 베를라헤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았지만 로흐렘은 베를라헤와 정치적, 사회적 관점에서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있었다. 이 두 사람은 '혁명·사회 지식인 협회'의 멤버이기도 했다.²⁾

메르 겔바하는 로흐렘이 소련으로 떠난 이후에도 얼마간 로흐렘의 사무실에 머물렀다. 그리고 나서 메르겔바하는 프랑크후르트로 가서 거기서 활동하고 있던 스타뎀(M. Stam)과 함께 9개월 동안 작업한 바 있다. 메르겔바하는 스타뎀이 더 스테일³⁾에 기고한 바와 같이 프랑크후르트의 진보적인 경향으로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네덜란드로 귀국한 이후에도 지반 침하가 되지 않는 독일의 집합주택에 흥미를 갖게 되었다.

메르겔바하가 암스테르담파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네덜란드 건축가 조직을 설립하려는 의지가 생긴 것은 프랑크후르트에서였다. 1929년 그는 학교 동료였던 가르스뎀과 공동으로 사무실을 설립한다. 가르스뎀은 네덜란드가 주거에 대한 새로운 이념의 적용에 있어 독일에 뒤떨어지기 시작한 이유를 암스테르담의 탓으로 돌렸다.⁴⁾

메르 겔바하가 1927년 프랑크후르트로부터 귀국하여 흐루네베언(Groenewegen), 가르스뎀, 파우베르트(van de Pauwert) 등

의 출신학교 동료 몇 명과 교류를 갖고, 얼마 후 더 아흐드(De 8)라는 새로운 그룹의 선언문을 잡지 『i10』에 발표하였다. 이 새로운 잡지는 모든 예술의 통합을 목표로 창간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태였다.⁵⁾

건축가는 미학적 과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를 고려해야만 한다는 그의 신념에 바탕을 둔 이 선언은 polemic(polemical tone)을 불러일으키지 못하였다.

* 더 아흐드는 반미학적(non-aesthetic)이다.

* 더 아흐드는 선언한다. 더 아흐드가 새로운 건축물의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지만, 얼마간의 열악한 평면계획을 은폐하기 위한 전시용 파사드(show-piece facade)를 설계하는 것보다 모양이 보기 흉하더라도 기능적인 건물을 짓는 편이 훨씬 낫다.

이런 언설은 더 아흐드와 더 스테일 사이의 대립성과 유사성을 명확히 구분 짓고 있다. 한편, 이 선언의 내용은 암스테르담파에 대한 아우드의 비평과도 흡사하다. 1918년 아우드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건축의 양식적 발전에서 보면 순수하며 기술적이고 실천적인 의미에서 좋은 건축이란 단지 아름다운 주택이상의 중요성을 갖는다."⁶⁾

암스테르담파에 대한 메르겔바하 비평은 때로는 건축가가 주택건설에 관여할 수 있는 범위를 넘는 것이었다. 그의 비평은 베를라헤의 계획원리를 고발하는 동시에 건축 그 자체에 있었다. 실제 베를라헤는 1932년 잡지 『더 아흐드와 오빠바우』에 발표한 암스테르담파 주택에 대한 언급에서 다양한 polemic(polemic)을 남득할만하게 표현하지는 못하였다.

1) B. Rebel, Ben Merkelbach, Propagandist in Woord en Daad van de Nieuwe Ideeën omtrent de Volfswoningbouw, (Utrecht, 1973), p.6. 미간행 논문

2) J. van de Beek and G. Smienk, Ir. J. B. van Loghem, p.32.

3) ABC, No.19(1926), p.1. 스타뎀은 스톡홀름시 시청사와 슈투트가르트, 그리고 1922년에 계획된 두스부르흐와 에이스데렘의 공동작품인 로센베르크 저택 사이에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미학적 관심에는 부정적이었다. 이 세 계획은 도판에 X로 표기되어 출판되었다.

4) Rebel, p.7.

5) i 10, 1, No. 3(1927), p.126.

6) J.J.P. Oud, 'Bouwkunst en normalisatie bij den massabouw', p.78.

암스테르담파에 대한 공격은 단지 부정적인 측면에서만 출발한 것은 아니었다. 주택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접근을 발전시키기 위한 기준이었다. 또한 “아흐드는 반미학적이다”라는 주장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선언은 더 스테일에 대해서도 비평적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 “더 아흐드는 진실된 의미에서 합리적인 것을 함유하고 있다. 달리 표현하면, 모든 것은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더 아흐드는 비입체파적이다.”

더 아흐드에 대한 공격은 포괄적인 건축 형태의 시스템보다도 오히려 배타적인 시스템에 있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미학적 운동이며 1921년 아우드의 더 스테일 탈퇴는 더 스테일과 1927년 더 아흐드 선언과의 과도기적인 상태에서 이루어졌다.

몽드리안과 아우드, 모두 더 스테일의 활동에서 큐비즘 이론을 실천하였다. 이와 같은 큐비즘 성격은 더 스테일 초기의 건축에서 볼 수 있는데, 특히 아우드가 계획한 스케베닝언 해안 집합주택 계획안에 잘 나타나 있다. 그러나 이 선언은 당시의 건축적 상황에 대항하기 위한 ‘비평적 대응’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이런 견해에도 불구하고 더 아흐드는 즉시 더 스테일을 비난하지는 못하였다. 하지만 메르겔바하 리트벨트 사이에 심각한 개인적 대립은 명백하게 존재하고 있었다.⁷⁾

돌이켜 보면 1927년의 기점에서 미학에 대한 의도적 거부는 절충주의(eclecticism)를 멀리한 상태에서 베를라헤적 접근의 계속성을 유지하는 결과를 낳았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더 아흐드 자체가 실제적이고 직접적인 결과가 도출되기를 희망하고

있었고, 또한 이런 희망이 특히 집합주택에 있었다는 점이다.

1926년, 부건, 듀이커, 그리고 비벤하가 더 아흐드에 동참하면서 새로운 이념에 대한 의식이 더욱 높아지게 되었다.

오쁘바우와의 연합

더 아흐드는 주택건축에 관한 새로운 이념에 대하여 강한 주장을 대변하는 유일한 건축가 그룹이 되지 못하였다.

또 다른 그룹인 오쁘바우는 1920년대 초기에 로테르담에서 만들어졌다. 그러나 이 그룹의 설립 당시 목표를 나중과 비교하여 볼 때 이념적 성격이 결여되어 있었고 목표 또한 확고하게 정해져있지 않았다. 고클롬아우트(W.Kromhout)는 로테르담에서 ‘건축과 우정’이라는 협회의 개혁을 추진하였지만 이는 무익한 것이었다. 그는 로테르담에서 1908년 결성된 ‘네덜란드 건축가협회’를 모델로 하여 별도의 조직을 설립하려고 하였다. 네덜란드 건축가협회는 이미 전문적인 조직으로서 순수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래 전부터 건축자재 업자와 건설업자는 이 그룹에 가입하지 못하였다.

오쁘바우 그룹의 멤버들은 다양한데, 이 중에는 고클롬아우트에게 배운 프루흐트(Van der Vlugt), 모리에(Granpre Moliere) 등이 있으며, 나중에 아우드, 스타(Stam), 에이스테런(Van Eesteren), 떼인(Van Tijn) 등이 가입하였다.

그러나 1926년 스타가 프랑크후르트로부터 일시 귀국하고 1927년 로흐헴(Van Loghem)이 오쁘바우와 협력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오쁘바우는 더 아흐드와 동등한 그룹으로서 바뀌어 있었다.

1928년, 네덜란드 건축가인 베를라헤, 리트벨트, 스타가 참가하여 라사라(La Sarraz)에서 결성된 CIAM은 모리에의 전통적인 관점에 대한 폭넓은 영향과 병행하여 두 그룹(여기서는 더 아흐드와 오쁘바우를 말함-역자 주)의 관심이 동시에 확대되어 가는데 일익을 담당하였다.

1930년 브뤼셀에서 개최된 CIAM 제3회 회의를 계기로 두 그룹은 보다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되었다. 떼인과 메르겔바하는 암스테르담 인도인 거리의 배치계획에 관한 공동작업과 태양위원회의 활동으로 자주 접촉하게 되었다. 유기적 주거지구에서의 개방적 배치계획을 제안하기 위한 준비작업에서의 협력은 두 그룹을 하나로 묶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



그림 1. 리트벨트, 슈이더 주택의 2층 평면도 (유프레흐트, 프란스 헨드리크판), 1924



그림 2. 리트벨트, 슈이더 주택의 2층 평면도 (가동식 칸막이가 접힌 상태) 가동식 칸막이의 설치로 공간을 구분하고 있는 형태와 가동식 칸막이를 한 쪽으로 밀쳐놓은 상태(4구획으로 구분되어있던 공간이 하나로 통합된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 주택은 더 스테일의 논쟁대상으로 특징지를 정도로 새로운 공간개념을 구체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노동자용 주택의 계획에 새로운 접근성도 보여주고 있다. 2층에는 가동식 칸막이(movable partitions)가 개인의 프라이버시의 정도와 공간의 개방성을 간단하게 변화시키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다.

7) J. B. Bakema가 필자에게 보내준 지적에 근거함. J. B. Bakema, Rotterdam.

이런 결과로 1932년 1월, 격월간 잡지 「더 아흐드 엔 오프바우(De 8 en Opbouw)」가 출간되었다. 1927년 더 아흐드의 선언으로부터 1932년 「더 아흐드 엔 오프바우」는 잡지가 발행되기까지 5년간은 신건축에 대한 논쟁은 격렬하였지만 보다 구체적인 형태로 다양한 이념이 실현되었다. 특히 이것은 스위스와 독일의 건축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따라서 잡지 「더 아흐드 엔 오프바우」는 스위스와 독일의 주택에 관한 정보를 소개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당시 가장 커다란 영향력을 보여준 스위스 뉴불(Neuhuhl) 집합주택에 관한 소개는 새로운 이념을 실현시킨 사례로 프랑크푸르트의 주택상황에 대한 논쟁과 더불어 「더 아흐드 엔 오프바우」지의 선구적 역할을 보여주었다.⁸⁾

공간의 새로운 개념

제대로 된 위생설비를 갖춘 주택을 생산하기 위한 네덜란드의 목표는 다른 어떠한 요소보다도 주택을 건설하도록 접근을 유도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새로운 미학적 측면만이 아닌 새로운 공간개념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신즉물주의 건축가들이 주택의 방위(方位)에 대한 고려는 새로운 것이 아니고 오히려 위생적인 측면과 같은 실제 생활 환경에 관심을 보여온 과정을 대변하는 것이었다.

이런 것 이상으로 주택에 있어 창조적인 공헌은 공간의 가변성(flexibility)에 관한 것이었다.

방위와 빛

19세기 주거환경의 개선을 위한 개혁적인 노력의 하나는 건강이 물리적 환경에 크게 좌우된다는 것을 보여준 데에 있다. 이것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앞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보다 과학적인 의견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한 높은 사망률의 관계를 연관 지은 초보적인 통계학의 적용에 바탕을 두고 있다.

가장 중요한 점은 빛과 맑은 공기가 폐결핵 치료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1890년대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빛과 공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1900년 초기 가르니에(T.Garnier)의 공업도시 제안에서 1902년 네덜란드 주택법의 시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법이 유도되었다.

네덜란드에서 위생적인 관심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개혁은 주택법 시행이후에도 단절

된 적이 없었지만 이것은 1930년대를 통하여 계획의 수법과 미학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건강과 관련하여 -깨끗함, 빛, 공기에 대한 관심은 주택 개선이라는 관점에서 개혁파, 보수파를 불문하고 높아지고 있었다.

주택에 있어 빛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주택법에는 영향을 주었지만 적절한 방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데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어윈(R.Unwin)의 저서 『코테이지 계획과 공동감각』(1907)은 네덜란드에서 추진하고 있던 것과 유사한 관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기본적인 것은 모든 주택의 얼굴이 태양을 향해서 있어야 한다. 이것은 빛, 달굴함, 건강을 가져온다. 도로의 방향과 가로에 접한 정면성은 빛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계획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는 이런 방향성을 도입하는 수법이다.”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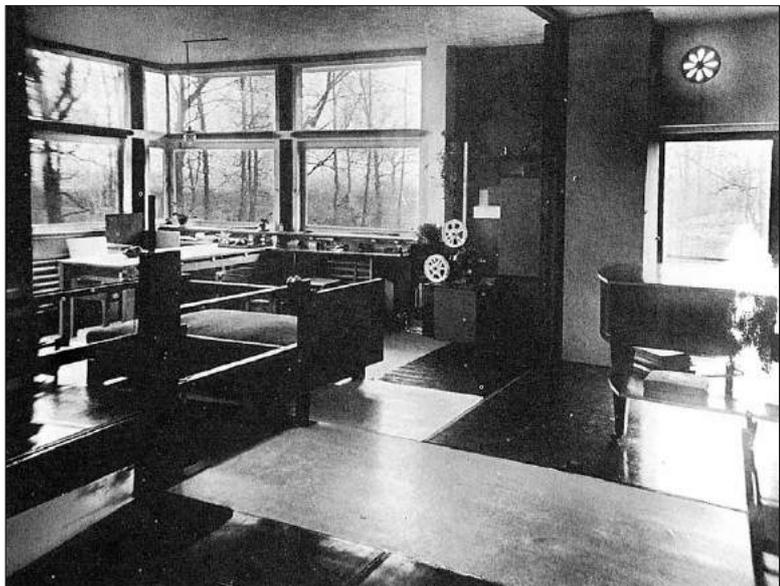


그림 3. 가동식 칸막이가 있는 2층 실내 전경

8) De 8 en Opbouw, 3, No.1 (1932), pp.23-30. Catherine Bauer, in Modern Housing, p.149. '츄리히 근교의 뉴벨(Zurich Neuhuhl)은 유럽에서 가장 매력적이고 성공적인 커뮤니티' 로 기록되고 있다.

9) Raymond Unwin, Cottage Plans and Common Sense, Fabian Tract, No.109(Buxton, 1902), p.3.

어원의 저서가 언제 네덜란드에 알려졌는
 가는 알 수 없지만 주동을 남북 축의 방위로
 배치한다고 하는 이념은 1909년까지 암스
 테르담 시의 공식적인 기구에서 고려되고
 있던 사항이었다. 같은 해, 암스테르담 주택
 심의회는 암스테르담시 신시가지의 주택조
 사를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이 위원회
 에서 작성한 보고서의 대부분은 알코브 공
 간으로 구성된 주택내부에 대한 것으로 "신
 선한 공기로 충만 되어 있는 사람과 태양의
 유익한 효과를 받고 있는 사람은 통풍이 잘
 안되고 조명시설이 잘 안되는 방에서 지내
 는 사람보다 질병에 대해 면역성이 강한 것
 으로 나타나 있다"고 한다.¹⁰⁾

위원회는 문제의 근본적인 요인이 알코브
 형 침침공간에 있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
 었다. 이 보고서는 건물 폭이 좁은 쪽에는
 건축하지 않는 대신 공유정원을 두는 배치
 이념을 제안하여 이미 시행하고 있었다. 이
 런 제안은 보다 구체화되었다.

"가로 배치계획에서 우리는 완전히 실패
 하였다. 전체적으로 도시확장계획의 주요 방
 위는 동서 축으로 형성되었다. (생략) 일반적
 으로 남북 축으로 형성된 방위가 바람직하
 다고 여겨진다. 영국과 같이 대지의 남쪽과
 북쪽에는 건설하지 않았다. 이것은 통풍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였다."¹¹⁾

이것은 일자형 주동배치(strokenbouw)
 의 선구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위원회는 암
 스테르담과 같은 도시에서는 이런 방식을
 취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었
 다. 하지만 전원도시 지역에서는 간단히 실
 행 가능하리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이는 다음 사례에 잘 나타나 있다. 1911년
 헨헤로(Hengelo)에 건설된 전원마을 어뜨

란싱크(Het Lansink)집합주택은 의도적으로
 건물 군을 남북축의 방향으로 놓은 네덜란
 드 최초의 사례였다.¹²⁾ 이후 어뜨 란싱크 집
 합주택은 도로를 향한 남북축의 방향으로
 배치하는 것은 일반적인 경향이 되었다.
 1902년 시행된 주택법의 요구조건에 따라
 진행된 주요한 확장계획은 1909년 연구위
 원회의 비판을 받아 암스테르담 근린지구와
 같은 동서방향의 도로 배치를 피하기 위한
 시도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1913년 베를라헤의 프레이베익
 (Vreewijk) 전원마을 계획은 남북 축 도로
 배치로 진행되었지만 이는 헤이그나 암스테
 르담의 확장계획에 거의 영향을 주지 못했
 다. 모리예가 계획한 후반기의 프레이베익
 전원마을 건설은 엄격하게 남북 축 도로 배
 치가 적용되었다. 이는 나중에 더 야흐드와

오쁘바우 건축가들에 의해서 높이 평가를
 받는 계기가 되었다. 방위에 바탕을 둔 배치
 계획 이념이 점진적으로 발전하게 된 계기
 는 지테에서 베를라헤로 이어지는 전통적
 방식에 의해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주동의 폐쇄적 배치방법을 특히
 강조하고 있었다. 그러나 몇 가지의 사례를
 제외하고 폐쇄적 배치는 미학적인 측면만이
 아니고 1920년대 건축가 사이에 폐쇄적 공
 간이 인간 공동체와 사회적 상호작용의 기
 본적인 형태로 보았던 시점에서 사회적 의
 미를 갖고 있었다. 프레이베익 전원마을을
 별개로 보더라도, 오스트싼(Oostzaan :
 1922~24), 니벤담(Nieuwendam :
 1923~28), 바테르흐라프스메이어
 (Watergraafsmeer : 1923~28)와 같은 전
 원도시지구에서는 계획방식이 오히려 중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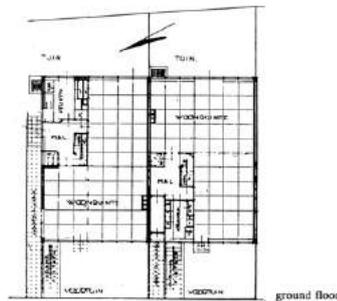


그림 4. 리트벨트, 민영 집합주택의 1층 평면도
 (유틀레흐트, 에라스무스란), 1930~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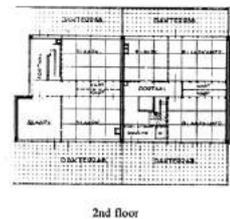


그림 6. 3층 평면도



그림 5.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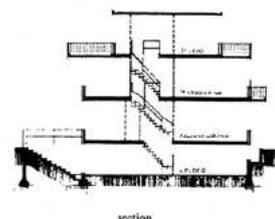


그림 7. 단면도

10) Amsterdamsche Woningraad, Rapport over de Volkshuisvesting in de Nieuwe Stad te Amsterdam, pp.11-12.

11) Amsterdamsche Woningraad, p. 16.

12) Hengelo'sche Bouwvereniging, Tuindorp Het Lansink, p. 13.

화된 마을형 공간(village-type space)의 형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이런 중심적 공간에 해당하는 접근에 방위가 계획 방식으로 적용되지는 못하였다.

1923년, 몇 가지 측면에서 네덜란드 최초의 기능주의자라 할 수 있는 쓰비르스(Zwiers)의 저서 『작은 주택』이 출판되었다. 그는 “거실은 가능한 햇빛이 많이 비추는 곳에 배치하고 부엌이라든가 그 밖의 서비스 공간은 햇빛이 많이 들지 않는 곳에 배치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라고 추천하고 있다.¹³⁾

가로 배치계획에 관한 접근은 북동 방위와 남북 방위 사이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남북 축으로 연속되어 있는 거리를 따



그림 8. 외부전경
이 집합주택은 노동자를 위해서 지어진 것은 아니지만, 메르켈바히는 1932년 더 아흐드 엔 오 쾰바우의 장간호에 몇 개의 암스테르담파 관련 집합주택과 나란히 개재하였다. 예를 들면, 기프호흐 집합주택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은 간결성과 계획의 순수성이 결여되었지만, 여기서는 내부와 외부의 연속성, 내부공간의 유연성, 신기술의 도입, 그리고 독립적 공간성격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다. 이 집합주택의 청문에 설치된 유리는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 건설된 네덜란드 집합주택 중에서 가장 큰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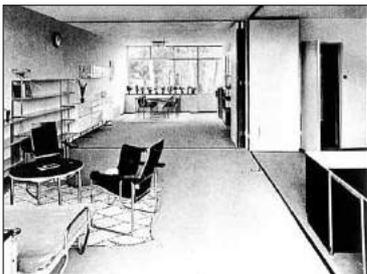


그림 9. 실내전경

라 지은 나열식 주택의 이론과 실천 사이에서 부조화를 낳았다. 1921년 이후, 집합주택을 공급하는 지자체와 주택조합의 이런 역할이 주택건설 시장에서 퇴보되었다는 사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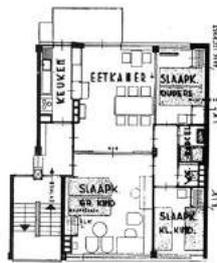
이와 같은 배치계획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대부분 실험적 문맥에 의한 것으로 지자체사회주의가 강력하게 진행되고 있던 독일의 대부분 도시에서는 방위에 따른 주택



daytime plan, open

그림 10. 부록, 엔드라흐트 주택조합이 지은 집합주택의 주간의 개방형 평면구성(로테르담, 브레이도르프, 1931~34 남쪽으로 공유정원의 개방성을 갖는 U자형 계획에서는 지하에 창고, 유리로 뒤덮은 계단실, 그리고 세대내의 미닫이 칸막이 등, 몇 가지의 중요한 이념이 적용된 것을 보여주고 있다. 가로에 면해서 암스테르담파 건축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벽면(wall)'을 구성하고 있지만, 이 집합주택에서의 이런 성격은 주동 내부 공유정원에 대한 주택 방위의 논리적 귀결로서 형성된 것이다. 1층에서 반 층 내려간 부분에 창고를 설치하여 결과적으로 건물 전체는 반 층 올라간 형태가 되고, 1층 세대와 2층 이상의 세대와는 어느 정도 평등한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전용정원과 1층 세대용의 햇간이 없기 때문에 공유정원은 좀더 넓찍하다. 그리고 이 집합주택은 로테르담에서 건설된 초기의 아우드 설계의 완전한 폐쇄형 집합주택보다 관리하기가 편리하게 되어 있다. 소규모 학교를 포함하여 공유정원은 클라이언트, 주택조합, 그리고 건축가의 이념을 잘 반영하고 있다.

그림 11. 야간의 폐쇄형 평면구성



nighttime plan, closed

그림 11. 야간의 폐쇄형 평면구성

의 다양한 배치계획이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네덜란드에 있어서 일자형 주동배치 이념에 대한 관심은 네덜란드 건축가의 CIAM 참가로 높아지게 된다. 이것은 이미 네덜란드 국내에서도 일자형 배치 집합주택이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되었을 뿐 아니라, 독일과 스위스에서 진행되고 있던 배치계획의 변화에 대한 인식이기도 했다.

1930년, 메르 겔바하 몇몇 더 아흐드 건축가들이 암스테르담에서 태양위원회의 설립을 추진하였다. 이 위원회의 설립목적은 햇빛에 대한 중요성과 주택 및 도시계획에서 이에 대한 어떠한 대응이 고려되어야만 한다는 사실이다.¹⁴⁾

메르 겔바하 때인은 당시까지 일자형 배치 집합주택의 주창자였다. 그러나 이들 건축가는 햇빛의 위생적인 측면에서의 중요성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못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1946년까지 산발적으로 진행된 태양위원회의 작업에 대한 결과는 일반적인 성격을 도출하는데 머물렀다. “햇빛은 건축에 좋다”라는 기본적인 결론으로, 보다 과학적인 방법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1932년 메르겔바하 암스테르담파 건축가들이 설계한 집합주택이 동서남북 방위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¹⁵⁾

당시 네덜란드는 CIAM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일자형 배치이념을 세련화시키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이런 배치작업에 대한 국제화는 그들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는 결과를 낳았다.

1932년, 더 아흐드 엔 오 쾰바우는 공동으로 전시회를 준비하고 '개방형 배치계획을

13) Zwiers, Kleine Woningen, pp.89-97.

14) Merkelbach Archive No.48, 16-7-1930, Documentatie Centrum voor de Bouwkunst, Amsterdam, Rebel, Ben Merkelbach, p.30에 언급되어 있다.

15) B. Merkelbach, Wonen, De 8 en Opbouw, 3, No.1(1932), p.1.

적용한 유기적 주거지구'를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기본적으로 1930년 브뤼셀에서 개최된 제3회 CIAM 회의의 결과로 도출되었고, 1년 후인 1931년 출판된 「합리적 건설방법」의 내용을 요약 발표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 제안은 '네덜란드 국민주택·도시건축협회'로 보내졌다. 이 보고서에는 집합주택의 방위에 대한 공정하고 상세한 분석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서는 주동을 동서 축으로 하고 거실을 남쪽에 배치하는 세대와 주동을 남북 축으로 배치하는 세대와 비교하여 볼 때 남북 축 배치가 더 적절한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었다.¹⁶⁾

1934년 개최된 '저렴한 노동자용 주택설계경기'는 몇 년 후 네덜란드 최초의 일자형 배치 집합주택이 건설되기 이전, 집합주택의 방향성을 확인하는 중대한 사건이었다.

모든 수상작품의 계획안은 4층 구조에 남북 축 배치의 나열형을 채용하고 있었다. 이런 문제해결의 통일성은 수상자가 설계경기 이전, 계획안의 기본적인 성격을 결정짓는데 있어 상호협력의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방위문제가 배치계획의 접근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었다.¹⁷⁾

1937년, 네덜란드 최초의 일자형 배치 집합주택인 란드루스트(Landlust)가 암스테르담의 서부지역에 건설되었다. 이 계획은 집합주택에서 주동의 남북 축 배치에 대한 유효성을 보다 더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되었다. 메르 겔바하 가르스편의 제안으로 전통적 폐쇄형 주동을 유지하고 있었던 이 지역에 대한 최초의 계획안은 북동, 혹은 남서로 뻗은 거리를 따라 지은 나열식 주택의 배치로 수정되었다.

폐쇄형 주동과 태양에 대한 부적절한 방위를 극복하려는 것은 집합주택에 대한 새로운 발전 국면으로 인식되었다. 란드루스트 집합주택은 네덜란드에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집합주택의 많은 부분을 대변하는 모델이 되었다. 이런 평가로 인하여 메르 겔바하 선택은 정확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때인에 의해서 수용된 역사적 관점은 란드루스트 집합주택이 이미 지나버린 이념의 시대를 대변하고 있다는 입장이었다.¹⁸⁾

보편적 공간

란드루스트 집합주택의 사례는 새로운 건축적 개념의 형성과 그 실현 사이의 시간적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보편적 공간(universal space)이나 연속적 공간(continuous space) 등이 실제 유럽에서 실현되기 이전에, 이미 네덜란드에서는 더 스타일 운동의 형성으로 인해 가장 탁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설명해온 것 이외에도 근대적 공간이념의 형성과정의 영향을 살펴볼 수 있다. 집합주택과 관련한 이런 이념은 연속성(continuity), 개방성(openness), 보편성(universality)을 배경으로 독립적 형태의 주동이 탄생하는 결과를 낳았다.

집합주택의 배면에 정면과 같은 품위를 주기 위한 다양한 노력은 공간의 보편성을 실현하기 위해서 배려된 것으로 보인다. 암스테르담에 건설된 낭만적이면서 기묘한 작품인 끌르크(De Klerk)의 에이엔하르트 집합주택은 주동 배면의 시각적 특징의 탐구라는 관심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이상적인 접근에도 불구하고 메르겔바하 암스테르담파 건축가가 이를 잘못 디자인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의 공유정원은 주동 내부의 공간적 기능을 보다 명확하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

집합주택의 평등성을 내포한 베를라헤의 사회 민주주의와의 제휴는 보편성으로서의 공간을 인식하기 위한 기초 작업을 촉진시켰다. 남북 축 주동 배치계획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도로 한쪽에 집합주택을 배치할 경우, 방위를 의식하여 배치한다고 하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집합주택의 방위에 대한 비평등성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같은 주거단위를 같은 방위로 반복, 배치하는 방식이다.

이와 같은 경우, 주동의 평행한 배치로 인하여 생기는 사이 공간의 대부분이 동일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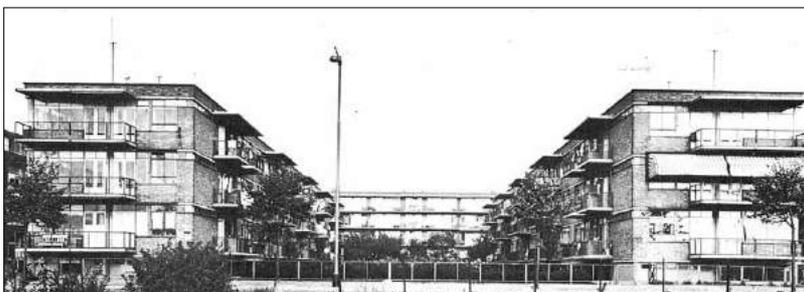


그림 12. 공유정원을 향하여 본 전경
반 층 올라간 1층 세대의 허부공간은 르 고르뷔제의 필로티 접근과 같이 완전히 개방된 공간은 아니다. 오히려 용도를 창출하고 문제점을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거주자가 아닌 사람은 싸인 보드와 울타리로 진입이 금지되어 있다. 대지의 대부분은 주동과 그 안에 있는 공유정원과과의 접속에 대한 문제해결로서 배려되고 있다.

16) 한 예로 Duiker의 Rationelle Bebouwingsweisen (Frankfurt, 1931)에 대한 제안(No.53)을 참조할 것.

17) B. Merkelbach, CIAM그룹의 네덜란드 멤버들에게 보낸 편지인 Archive No.61, 17-2-1933, Documentatie Centrum voor de Bouwkunst, Amsterdam, Rebel, Ben Merkelbach, p.54에 언급되어 있다.

18) W. van Tijen, Vereenigingsbouw Landlust, De 8 en Opbouw, No.17(1937), pp.156~161.

조건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한 동의 배면은 다른 한 동의 앞면에 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주동의 앞과 뒤를 미학적으로 구분 짓기 위한 노력은 아우드가 까프 혹은 집합주택에서 이미 시도하였다(비록 여기서는 배치계획과 공간구성 모두가 평등성을 약화시키고 있지만). 이런 배치는 특성이 없고 단조로우며 다양성이 결여된 외부환경을 보여주고 있었다.

공간적 개방성과 보편성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강인함은 네덜란드에서 가장 혁신적인 사상으로부터 출발하여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주택건설에서도 동일한 영향을 주었다.

유연성

연속적이고 개방적인 공간이 단지 독립적 주동 내지는 일자형 배치 주동으로 대변되는 것은 아니었다. 건축적 차원에서 시간의 개념화와 더불어 유연한 공간(flexible space)은 기능적 요구에 좀더 접근하기 위한 새로운 미학적 이론을 도입하게 되었다.

작지만 전통적인 네덜란드 집합주택에서는 다기능 공간(multi-functional space)이 요구되고 있었다. 방 한 개로 구성되는 농가(農家)나 아니면 도시에 있는 등을 맞댄 주택이건 간에 최소한의 주거는 하나의 공간



그림 13. 도로 측에서 본 건물 파사드



그림 14. 공유정원내의 전경

에서 만들고, 먹고, 잠자는 사회적 활동이 가능하도록 요구되고 있었다.

주택법의 시행으로 전형적인 주택규모(typical dwelling size)가 점차 증가되어도 계속되는 경제적 제한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요구받고 있었다. 경제적인 제한과 가정에서의 다양한 공간적 요구에 대한 인식은 유연한 공간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나아가 이것이 네덜란드의 공헌으로 평가받게 되었다.

특히, 19세기에 건설된 헤이그 소재의 집합주택은 보통의 방(sitting room)과 소위 아름다운 방(mooie kamer)과의 사이에 미서기 문을 설치하였다. 이런 집합주택은 20세기 초 네덜란드의 진보적인 건축가에 의해서 브루주아로 간주되었으나 1930년대에 접어들면서 노동자를 위한 대부분의 주거계획에서 가동식 칸막이(movable partition)는 기본 요소로 정착되었다.

유연성의 원리는 집합주택뿐만 아니라 개인주택에서도 도입하게 되었다. 1924년, 최초이자 명확한 형태로 자리 잡은 유프레흐트에 위치한 슈뢰더 주택은 신조형 원리를 적용한 건축적 실현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런 실험적 시도에도 불구하고 건축적 품위를 떨어뜨리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슈뢰더 주택의 2층에 설치되어 있는 가동식 칸막이의 다목적 사용은 무한한 공간적 변화에 대한 잠재성을 창출하였다(그림 1~3). 한 연구자는 다양성의 측면에서 슈뢰더 주택을 '최초의 사이버 주택계획' 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¹⁹⁾

1924년 두스부르흐가 유연성의 원리를 보다 설득력 있게 피력함으로써 그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새로운 건축은 개방적이다. 전체는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되고, 이 공간은 기능상의 요구에 따라 분할되어진다. 이런 분할은 내부에서는 구획면으로 외부에서

19) Geoffrey Broadbent, Meaning into Architecture, Charles Jencks and George Baird, eds., Meaning into Architecture, p. 72.에 수록. 브로드벤트(Broadbent)는 얼마나 많은 비평가가 이 주택의 정확한 성격에 대한 시점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강조하고 있다.

는 보호면으로서의 기능적 효율성을 가지고 있다. 구획면은 가동성을 갖는 요소로 인하여 상호 다양한 기능적 공간으로 분할된다. 바꾸어 말하면, 구획면은 가동 스크린(screen), 혹은 슬래브(slab)로 교체 가능하다(문은 이런 범주에 속할 것이다).²⁰⁾

슈뢰더 주택과 두스부르흐의 사고에서 보여지는 유연성의 이념이 노동자용 주택에 적용되기까지 거의 1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 리트벨트가 설계한 중산층을 위한 집합주택(그림 4~9)은 1931년 유트레흐트의 에라스무스란(Erasmuslaan)에 건축되었는데, 여기에서도 가동식 칸막이를 볼 수 있다.

1932년, 브록(J. H. van Broek)이 설계한 브루세란 집합주택(그림 10~16)에서의 유연성 도입은 노동자용 집합주택에서 효율적인 유틸리티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시켜 주었다. 주거 부분은 다양한 요구로 섬세하게 구역(zone)이 나누어져 있다. 부모의 침실공간은 가동식 칸막이를 개방함으로써 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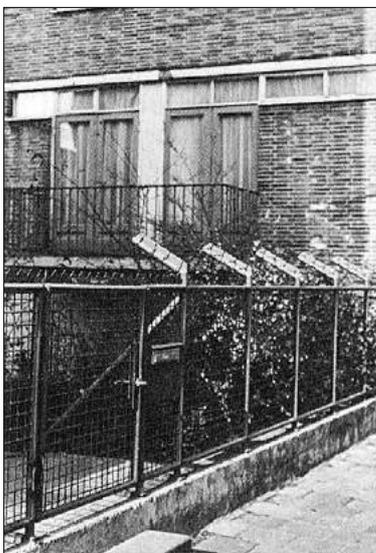


그림 15. 도로와 공유정원과의 경계



그림 16. 공유정원 내의 보도와 1층의 하부공간

린이를 위한 놀이공간으로 바꾸고, 어린이 침실 중 하나는 가동식 칸막이를 밀쳐 세움으로써 낮 동안에 거실과 작업실로써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칸막이를 설치함으로써 4개의 주실(主室)은 욕실과 화장실로 통하는 복도와 직접 연결되어 있다.

유연성은 가동 칸막이의 설치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이는 1934년에 브린크만, 프루흐트, 떼인이 함께 설계한 베르흐폴더 집합주택에 채용되었다. 각 세대의 주거공간은 두 짝의 미닫이문이 리빙-다이닝 공간(living-dining area)을 침실과 분리시키는 작용을 하고 있다. 이는 낮 시간에 거실의 공간을 기능적이고 시각적으로 확대시키는데 공헌하였다. 그 결과, 발코니 쪽의 창문과 평행하는 긴 폭을 갖는 공간은 지극히 기분 좋은 공간으로 바뀌었다.

1934년, 공간적 유연성의 원리는 신즉물주의 건축가들 가운데 폭넓게 일반화되었다.

1934년에 시행된 '저렴한 노동자를 위한 주택설계경기' 제출안의 대부분은 평면계획에 가동식 칸막이를 채용하고 있었다.

이런 원리는 다양한 가족 구성원의 하루 활동을 통하여 가정에서 일어나는 용도의 다양성에 대한 기술을 합리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정당화되었다. 유연한 성격을 갖는 주거공간의 대부분은 신즉물주의 정신을 실현시켰을 뿐만 아니라 공간적 지속성에 대한 미학적 관심도 표출시키고 있었다. ㉮

20) Theo van Doesburg, Tot een beeldende architectuur, De Stijl, VI, No.6/7(1924), p.81.

협회소식_kira news

제1회 이사회

2005년도 제1회 이사회가 지난 1월 11일 개최됐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정관개정(안)심의위원회 구성의 건, 임원선거관리규정중 개정규정(안) 승인의 건, 회관신축공사 도급계약 체결 승인의 건, 2005년도 업무실적관리회계 일시차입 승인의 건, 2005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에 관한 건, 2005년도 건축연구원 운영계획(안)에 관한 건, 서울건축사회의 회관지분 조정 신청에 관한 건 등이 논의되었다.

주요 의결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부의안건

- 제1호의안 : 정관개정(안)심의위원회 구성의 건
- 위원장은 이상돈 이사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위촉하기로 함.
- 제2호의안 : 임원선거관리규정중 개정규정(안) 승인의 건
- 임원선거관리규정개정(안) 중 제9조의 단서조항은 삭제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승인함.
- 제3호의안 : 회관신축공사 도급계약 체결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계약금액 : 일금 7,980,000,000원(부가세별도)
계약자 : 남흥건설(주)
- 제4호의안 : 2005년도 업무실적관리회계 일시차입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차입금액 : 4,000,000원

▲ 협의사항

- 제1호 : 2005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에 관한 건
- 차기 이사회에 부의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함.
- 제2호 : 2005년도 건축연구원 운영계획(안)에 관한 건
- 원안대로 추진하되 중요한 결정사항은 이사회

의 의결을 받도록 함.

- 제3호 : 서울건축사회의 회관지분 조정 신청에 관한 건
- 조정신청에는 변호사 없이 대응기로 하고, 정식으로 소가 제기되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대응하기로 함.

시공업체 설계검업 반대

우리협회 의견 최대한 반영기로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기획단에서 추진한 건설산업규제 합리화 방안 중 「건설업체의 건축설계업 참여허용방안」에 대해 우리 협회는 반대의견을 강력히 피력하여 규제개혁기획단은 우리 협회의 견해를 최대한 반영, 검토하기로 했다.

우리 협회는 건설산업규제 합리화방안 중 「건설업체의 건축설계업 참여허용방안」은 건축사자격의 본질을 훼손하는 중차대한 문제이며, 나아가 건축설계분야의 질서를 일시에 붕괴시킬 수 있는 크나큰 오류임을 지적, 즉시 이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국건축단체연합(FKA) 건축3단체장의 서명 하에 공동건의문을 건설교통부장관과 규제개혁기획단장에게 전달했다.

우리 협회는 지난 1월 14일 규제개혁기획단장 주재로 개최된 건설관련단체 간담회에서 “시공업체의 건축설계업 참여를 강력히 반대한다는 의견 제시와 함께 이에 대한 이유와 근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1월 20일에는 같은 자료를 건설교통부장관과 규제개혁기획단장에게 정식공문과 함께 제출했다.

또한 우리협회는 1월 18일 한국건축단체연합(FKA) 회의를 개최하고 이를 정식안건으로 상정, 건축3단체가 공동으로 대처하기로 합의하여 1월 21일 건축3단체장이 서명한 공동건의문(첫째, 정부의 기술분야 '전문화 육성정책'에 역행되며, 국가간 건축사자격 상호인정 시에도 커다란 걸림돌이 될 것이다. 둘째, 설계와 시공의 상호견제(Check & balance) 기능상실로 불법·부실 건축물이 은폐되고, 이해의 충돌(conflict of interest)이 예상

됨. 셋째, 건축설계를 시공편의 위주로 이용하여 설계의 독창성과 건축사업의 독립성이 상실되고,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짐. 넷째, 건설회사가 건축설계 수주를 독점하게 되어 건축설계분야의 수주질서가 일시에 붕괴됨.)을 건설교통부장관과 규제개혁기획단장에게 전달하기로 협의결정했다.

이러한 강력한 반대 움직임에 따라 1월 27일에는 규제개혁기획단장 주재로 다시 건설관련단체 간담회가 개최되었고, 우리 협회는 일관되게 반대입장을 강력히 주장하며 1월 28일 열린 차관 회의에서도 강력히 이러한 의견을 거듭 표명했다. 아울러 1월 31일 건설교통부 건축과장 기획단을 방문하여 재차 반대입장을 강력히 밝혔다.

이와 같은 적극적인 대처와 함께 우리협회 이사회 협의를 거쳐 회장 및 이사가 직접 규제개혁기획단을 향의 방문하여 면담을 가진 결과, 지난 2월 2일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건설업체의 건축설계업 참여허용방안」을 추후 Task Force 팀을 구성하여 검토'기로 하는 성과를 거뒀다.

우리 협회는 앞으로도 이와 같은 「건설업체의 건축설계업 참여허용방안」과 같은 건축사의 권익을 제한하고 축소시키는 제반 사항에 대하여 강력히 대처하기로 하고, 건축사의 권익 성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기로 했다.

참고 : 우리협회 홈페이지(www.kira.or.kr)

건축사시험 421명 최종 합격



2004년도 건축사자격시험에 총 5천192명의 응시자중 421명이 최종 합격했다. 이는 응시자중 8.1%가 합격한 것으로 이중 여성합격자는 전체의

13.3%인 56명으로 집계됐다. 한편, 우리 협회는 지난 1월 21일 서울 역삼동 소재 한국과학기술관에서 합격자들에 대한 소양교육을 실시했으며, 건축사자격증 및 자격수첩을 교부했다.(최종합격자명단 103쪽 참조)

‘국제화시대에 맞는 건축사업무와 대가의 제도화방안’ 토론회 개최

오는 3월 15일(화) 오후 2시 프레스센터에서

우리 협회는 오는 3월 15일(화) 오후 2시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기자회건실)에서 「국제화시대에 맞는 건축사업무와 대가의 제도화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에서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용역의범위와대가기준」이 가격협정에 해당된다 하여 폐지방침을 국무회의(2004. 10. 12)에 보고한 바, 이것이 현 건축설계업계의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나아가 부실설계 및 공사감리 업무의 질을 낮춰 건축물의 안전을 위협, 건축물의 공공성을 유지 확보하는 데 커다란 장애가 될 것을 우려하여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이러한 혼란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건축물의 공정성 및 안전성 확보와 건축분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자 개최된다. 이날 이에 대한 주제발표 및 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 1부 주제발표

- 제1과제 : 건축사업무대가기준과 건축계의 현실
[주제발표자 : 이관영, FKA 실무위원]
- 제2과제 : 건축계의 현실인식과 건축사의 사회적 역할제고
[주제발표자 : 전영철, 대한건축사협회 협회발전위원]
- 제3과제 : 국제화시대에 미래지향적인 전략
[주제발표자 : 김광현, 대한건축학회 이사, 서울대학교 교수]

▲ 2부 토론

종합토론 [공정거래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건설교통부, 시민단체, 주제발표자]

2005 김중업 장학건축사 선발

김중업은 1900년대 식민지와 6.25전쟁의 소용돌이로 인해 세계 건축의 흐름에서 소외되었던 우리나라의 건축적 상황에서 서구의 모더니즘을 한국 건축으로 승화시킨 최초의 건축가이며, 자기만의 독특한 건축적 경지인 서양건축의 한국화 혹은 한국건축의 현대화를 이룬 건축가로 평가된다.

그의 열정과 정신을 기리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프랑스 건축동문회에서 ‘김중업장학건축사’를 선발한다. 선발된 건축가는 프랑스 현지에서 건축작업과 여행을 위한 특전이 주어진다.

- 후원 : 주한프랑스대사관

- 수혜자 혜택 및 의무

· 장학금 : 약 5,400유로(1,800유로 x 3개월)를 프랑스 현지에서 지급, 단 항공료는 개인부담

· 설계사무소 및 현지숙소 : 주한프랑스대사관에서 추천하기도 하지만 수혜자 본인이 선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공동작업 : 수혜자가 선택한 사무소에서 3개월간 공동작업

· 보고서 : 공동작업 내용의 간략한 결과 보고서를 대사관 및 본 동문회에 제출

- 응모대상

· 국내외의 전문대이상에서 건축관련학과를 졸업하고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 현장실무에 있어서 프랑스어 혹은 영어로 의사소통 가능한자

- 선발방식

· 매년 1사람에게 지급

· 프랑스건축동문회에서 3명의 후보를 1,2,3순위로 선정한 후, 프랑스대사관에서 여학 인터뷰 거쳐 수혜자 결정

- 응모방식

· 소정양식의 응모신청서와 포트폴리오 (A3용지)

- 포트폴리오 속지 첫 페이지는 흰색이며 반 (왼쪽)은 공란, 나머지 반(오른쪽)은 이력서
- 응모자의 작품(기성작, 계획안, 참여작)중 2 혹은 3작품 -작품당 5쪽이내
- 포트폴리오 표현방식 - 자유
- 질의응답
- 2005년 1월 10일~2월 10일
- 프랑건축동문회 홈페이지 (www.frarchi.com)
- 기타 문의사항은 02-3462-0381 한도시건축사무소 혹은 mail: athan@kornet.net
- 접수
- 접수일: 2005년 2월 18, 21, 22일(3일간)
- 접수자: 한만원/프랑건축동문회
- 접수처: "한도시건축사무소"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876-14 정자빌딩 2층(우:135-825)
- 접수방식: 방문 및 우편접수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2004년 심사 및 진행 일정
- 동문회 심사: 2월23~25일
- 대사관 심사: 3월 중
- 결과발표: 3월 28일
- 대사관 행정서류 준비: 4월~8월
- 수혜자 출국: 8월 말
- 수혜자 현지 실무: 9~11월
- 보고서 제출: 12월20일
- 발표
- 프랑건축동문회 홈페이지 (www.frarchi.com)
- 주한프랑스대사관 홈페이지 (www.ambafrance-kr.org) 및 개별 통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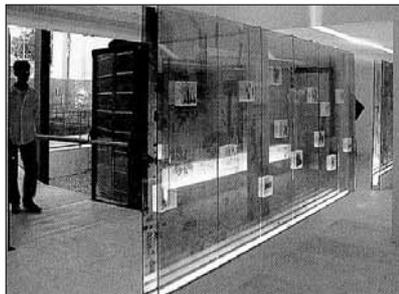
2004 베니스 비엔날레 건축전 한국관 귀국전시회 및 국제포럼

지난 2004년도 베니스 비엔날레에 참여해 좋은 결과를 얻었던 한국관이 귀국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는 국제포럼을 겸하여 이루어진다. 한국예술종합학교 김봉렬 교수의 진행으로 「안에서 본 방의 도시」와 서울시립대 김성홍 교수의 진행으로 「밖에서 본 방의 도시」에 대한 내용이 다루어질 예정이다. 또한 2월 18일부터 3월 5일까지 마로니에 제전시실에서 열리는 「작은 소리 열린공간 2005」 전시회 작업도 병행한다.

- 전시기간: 2005. 2. 23~ 3. 6
- 포럼일시: 2005. 3.5 오후 2시~5시
- 장소: 마로니에 미술관 제2전시실
- 후원: 한국문화예술진흥원
- 문의: hna건축연구소 박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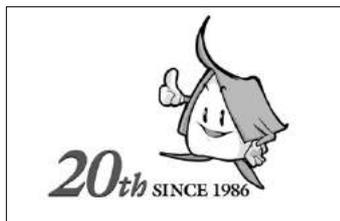
02-6245-6372



경향하우징페어 20주년 기념 특별주거 전시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하는 경향하우징페어는 풍성한 특별기획전으로 꾸며져 「20주년 기념 전시회」와 「특별주거전시」행사로 막을 연다.

주목할 만한 것은 특별주거전시로서 21세기 미래형 주거의 트렌드를 짚어볼 수 있는 신개념 주거 체험의 장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전시공간은 최근 웰빙을 넘어 새로운 경향으로 다가오는



유비쿼터스 개념과 미래형 홈 디자인 트렌드로 선보이게 된다. 경향하우징페어 20주년 기념전시(경향하우징)와 더불어 마련되는 특별주거전시관은 니즈비즈 에이전트에서 공동 주관하고, 경향하우징과 LG화학 등이 공동으로 주최하며, 2005년 2월 25일부터 3월 2일까지 6일 동안 삼성동 코엑스에서 '미래형 홈 디자인 트렌드 전'이라는 주제로 열린다.

문의: 니즈비즈 에이전트 02-545-4252

SAKIA 7기 작품 전시회 안내 및 2005년 건축실무포럼 안내

한국건축가협회에서는 부설 한국건축가학교(SAKIA) 7기 작품 전시회 및 2005년 건축실무포럼을 개최한다.

지난 2004년 12월 29일 한국건축가학교(SAKIA)에 7기로 입학한 101명의 학생들이 약 5주간 갈고닦은 실력을 뽐내는 작품전시회는 판화 수업, 철학특강 등을 통해 새롭게 건축에 접근한 학생들의 작품을 볼 수 있는 전시회이다. 또한 이 기간 중 컬럼비아대학 도시 디렉터로 활동 중인 Richard A. Plunz를 초청하여 포럼을 개최한다.

- 전시회 일정
- 행사명: 한국건축가학교(SAKIA) 7기 작품 전시회
- 일 시: 2005년 1월 29일(토) 오전 10시 ~ 2월 4일(금)
- 장 소: 홍익대학교 대학로 캠퍼스(구. 디자인포장 센터)
- 건축실무포럼 일정
- 행사명: 2005년 건축실무포럼
- 초청자: Richard A. Plunz(컬럼비아대학 도시 디렉터)
- 일 시: 2005년 2월 3일(목) 오후 4시
- 장 소: 고려대학교 공과대학 창의관
- 문의: 02-774-8050

제8회 강구조 건축설계 공모전

한국철강협회 강구조센터가 주최하는 제8회 강구조 건축설계 공모전의 요강이 발표되었다.

산업자원부와 건축학회, 한국강구조학회가 후원하는 이번 공모전은 '테마 전시관(Exhibition Hall for Designated Purpose)'을 주제로 다원성과 전문성이 동시에 요구되는 21세기의 문화와 산업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하나의 전시 주제를 선택하여 전시물과 관객의 다면적이고 직접적인 만남을 제공하는 건축공간의 제시를 요구한다.

- 참가접수기간 : 2005. 3. 21~ 3. 26
- 작품제출기간 : 2005. 6. 27~ 6. 29
- 시상식 및 전시회 : 2005. 7. 25~ 7. 29
- 참가자격 : 대학(원) 건축관련 학과 재학생, 3인 이내 공동응모 가능
- 시상내용 : 대상1점(상패 및 상금 700만원 상당), 금상 1점(상패 및 상금 500만원 상당), 은상 2점(상패 및 상금 300만원 상당), 동상 5점(상패 및 상금 200만원 상당), 입선 30점(상패 및 상금 30만원 상당)

문의 : 한국철강협회 강구조센터

02-559-3564, www.steelcon.or.kr



2005 진아건축 강연 시리즈

진아건축은 건축의 영역 뿐만아니라 마케팅, 부동산, 섬유 디자인 등 건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지만 건축 외의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는 다양한 분야를 돌아봄으로써 건축을 보는 새로운 시각과 디자인 지식을 축적할 수 있도록 2005년도 상반기에 'Design Knowledge'라는 주제로 강연 시리즈를 진행한다. 세미나 일정은 아래와 같다.

- 세미나 일정

- 2월 25일 : 최근작업(장운규/국민대)
- 3월 25일 : 브랜드 빌딩, NIKE(송옥환/한국 나이키)
- 4월 8일 : 서울 사무용 부동산 시장 동향 (허문호/CB 리처드 엘리스)
- 4월 29일 : 개발연대의 도시와 건축(안창모 /경기대)
- 5월 27일 : 인테리어 스타일링 & 드레싱(장응복/모노 컬렉션)
- 6월 24일 : 생태건축과 단지계획(이규인/아주대)

- 장소 : 진아건축 크리틱 스페이스 지하 1층

- 시간 : 오후 4시

문의 : 진아건축 02-583-4100



신간

모형 속을 걷다

이 책에서 저자는 20여년 넘게 일하며 작품에 담아온 설계 방법론을 '불편하게 살자, 밖에서 살자, 늘려 살자' 3가지로 집약 한다. 그리고 이들 세 가지를 묶어 '채 나눔'이라는 고유한 방법론으로 그동안 설계한 작품들과 함께 명쾌하게 풀어간다.

이 '채 나눔'이란 한 덩어리의 집을 여러 채로 나누자는 주장으로 건축 목적 자체가 큰 공간이 아닌, 대형화, 단일화 되지 않아도 좋을 유형의 공간들도 무의식적으로 닳아가고 있는 것을 되짚어 보게 한다. 또한 환경을 고려한 우리 주거 양식은 어떠한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한다. 그래서 '채 나눔'은 작을수록 나누자는 주장으로 건축 이야기라기보다는 '건축의 결론은 사람이라는 원칙을 바탕으로 집과 자연과 사람이 소통할 수 있는 집짓기'를 행하고 있는 저자의 '사는 방식의 제안'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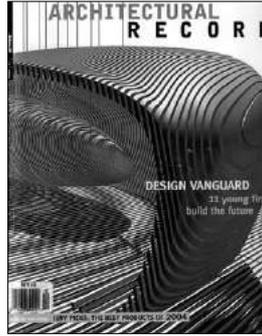


이일훈 지음/262쪽/9,500원/솔출판사 발행 02-332-1526

Architectural Record

2004년 12월

작년 건축계의 새로운 경향을 잘 보여준 11인의 건축가와 작품들을 소개하고 있으며, 건물 타입별 연구 코너에서는 대학건축물의 최신 동향을 살펴보고 있다.



■ 디자인 뱅가드 2004

철학계와 예술계에 지극히 큰 영향을 미치던 1968 세대의 시대가 자코 데리자의 죽음과 함께 공식적으로 종료되었다. 특히 건축가들이 먼저 명명한 포스트모더니즘은 주요한 철학적 논쟁의 장으로 기능했으며, 건축계는 철학 없이는 작동할 수 없는 영역처럼 여겨졌다. 하지만 1990년대에 들어 컴퓨터와 네트워크 테크놀로지가 급속한 발달을 하면서 데리다의 철학 대신 들뢰즈의 '폴드(Fold)'가 주목을 끌었으며, 설계에 사용된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건축 프로그램만큼이나 주요한 역할을 한 유체 형태의 건축 작품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기존의 기계적 패러다임은 생물학적 모델에 의해 대체되었는데, 이를 단순히 새로운 형태의 매혹으로 읽는 것은 옳지 못하다. 중요한 것은 자연과 인공물을 구분하는 하부구조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사실이며, 이러한 사고는 최근 생물학과 정보 체계가 근본적으로 같은 구조와 작동 논리를 갖췄다는 점이 밝혀지면서 더욱 힘을 얻고 있다.

총 6개국에서 선발된 올해의 디자인 뱅가드 건축가 11인은 모더니즘의 간결함과 직선체계를 단순히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환경과 조건에 맞춰 이를 도입하고 변형하였다. 그들은 간결함 대신 복잡성, 수직성 대신 수평성, 불연속 대신 연속성, 고정된 구조 대신 색다른 구조 시스템, 달

린 체계 대신 열린 체계를 지향하며, 명확한 이론에 바탕을 두고 있지만 현대의 비판적 논쟁에 대해 잘 알고 있다. 무엇보다도 소프트웨어에 의해 제어되는 건축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건축을 위해 소프트웨어를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는데, 이는 앞 세대와 비교해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의 조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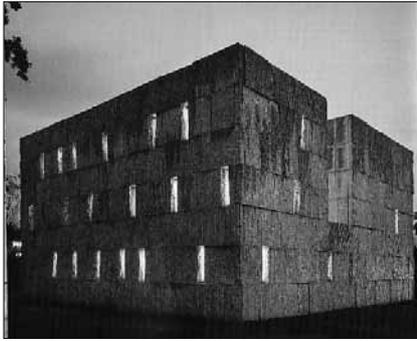
조병수는 자연 지형과 건축 형태를 매우 섬세하게 연계시키고 있어 건물이 거의 드러나지 않는 경지에 다다랐다. 그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던 미국 몬타나 주의 공장, 농장 건물들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으며, 부분적으로 드러나는 투박함은 현대성과 원시성의 대비를 추구한 결과다. 사무실 내에 시공부를 둬으로써 건축이 실제로 지어지는 과정에도 직접 참여하고 있으며, 특히 정방형의 콘크리트 박스를 먼저 지은 후 개구부를 뚫으로써 디자인에 들어가는 '시공후 설계' 프로세스를 실험하고 있기도 하다.



한국의 조병수

스페인의 Anton Garcia-Abril

사무실 내에 시공팀을 둬으로써 새로운 재료와 구조, 공법을 실험하는 자유를 확보하고 있다는 Garcia-Abril의 첫 작품은 스페인 Santiago de Compostela의 음악교육센터였다. 화강석의 육중한 입면을 가진 이 건물은 고대의 석공 기술을 사용하여 매우 강한 텍스처를 보여주고 있으며, 원시적인 느낌은 불규칙적으로 난 수직창들로부터 새나오는 온화한 불빛에 의해 더욱 강화되고 있



스페인의 Anton Garcia-Abril

다. 그는 또한 수평의 공간을 만들어내기 위해 도입된 직각체계는 구조적으로 가장 불안정하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삼각형 구조 시스템을 실험 중이기도 하다.

그 외의 건축가들로 미국 뉴욕의 nARCHITECTS, 미국 뉴욕의 Christoff:Finio Architecture,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Patterns, 미국 매서츄세츠의 dECOi, 미국 뉴욕의 Contemporary Architecture Practice, 일본의 Masaki Endoh/EDH, 일본의 Architecton, 칠레의 Alejandro Aravena, 영국 런던의 Plasma Studio가 소개되어 있다.

■ 빌딩타입연구 - 대학시설건물

미국에서는 대학건물의 신축과 증개축이 여전히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리 많지 않은 예산의 한계 속에서, 인터넷과 전자문화에 심취한 학생들의 변화된 습성과 생활 패턴을 고려하여 설계된 최근의 우수 사례로 Charles Rose Architects의 미국 매서츄세츠 Shapiro Campus Center, Jonathan Levi Architects의 미국 매서츄세츠 29 Garden Street, Miller/Hull Partnership의 미국 워싱턴 Olympic College Poulso, Einhorn Yaffee Prescott and Helfand Architecture의 미국 펜실바니아 Unified Science Center, Anshen+Allen Los Angeles의 미국 캘리포니아 Santa Monica College Library 등이 소개되어 있다.

■ 기타

2003년 초 Rem Koolhaas의 계획안이 취소된 후 현재 Renzo Piano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미국 뉴욕 Whitney Museum 증축안 소식, Daniel Libeskind의 첫 번째 중국 프로젝트인 City University of Hong Kong 멀티미디어관, 정부의 무관심 속에 파괴되어 가는 러시아의 건축 유산, 쿠바의 근대건축에 대한 소개, Carlo Scarpa가 리노베이션한 Castelvecchio 정원에서 열린 Peter Eisenman 전시회 소식, 2004년도 Aga Khan상 수상 작품 소개가 게재되어 있다. 아울러 신간 소개에서는 9/11 대지에 대한 새 프로젝트의 진행 방식과 그 사회, 정치적 맥락을 분석한 Paul Goldberger의 Up From Zero, 그 건축가로 선정된 Daniel Libeskind가 자신의 작품과 건축 철학을 설명한 Breaking Ground: Adventures in Life and Architecture 등 뉴욕의 월드트레이드센터 프로젝트와 관련된 책들을 분석하였다.

Architectural Review

2004년 12월

이번 호는 올해의 ar+d 건축상 수상작 18 작품을 소개하였다. 그리고 어느 대도시보다 급격한 도시



적 변화를 맞으며 현대건축의 전시장으로 변모한 상하이의 현황을 다루었다.

■ ar+d 건축상

올해로 6번째를 맞는 ar+d 건축상의 수상작들을 소개한다. 수상작들은 여러나라의 작품들을 포함하며 사회, 지형, 기후 등에 비범한 접근으로 대응한다.

Atelier Tekuto의 동경, 주택

동경 외곽의 조용한 주택지에 위치한 Cell Brick 주택은 작은 사각형의 패턴이 외피를 덮고 있다. 어떤 것이 창문이고 그렇지 않은 것인지 구분이 잘 되지 않는다. 원경에서 보면 이 건물이 마치 교통관련 건물로도 보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주택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면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돋보인다. 건물은 스틸로만 지어진 것인데 건축가는 이 시



Atelier Tekuto의 동경, 주택

시스템을 'void masonry'라고 부른다. 가로 900mm, 세로 450mm, 깊이 300mm 크기의 Box를 쌓아 용접한 것인데 박스의 안쪽은 실내에서 자연스럽게 수납공간을 형성한다. 바닥면적 85㎡, 4개층으로 이루어진 이 주택은 디자인이와 그의 20대 자녀를 위한 집이다. 1층은 2개층 높이의 공간으로 부엌, 거실 등이 위치하며, 그 공간의 중간에 투명한 화장실 박스가 걸려있다. 최상부에는 2개의 침실과 로프트가 있으며, 보이드된 공간을 가로지르는 나선형계단을 통해 다다를 수 있다. 철제 외피의 처리는 나사에서 개발한 세라믹계 물질의 코팅에 의해 실현이 가능했다. 그 코팅은 열 전도성을 낮추는 것으로 이 코팅을 적용하지 않은 이전의 철제 주택은 태양광에 노출된 후 매우 뜨거워져서 손을 댈 수 없을 정도였다. 반면에 코팅된 표면은 이러한 점이 많이 개선되었다.

Daniel Bonilla의 콜롬비아 La Calera 교회

Daniel Binilla는 교회를 확장시키는 재주를 가졌다. 2002년 12월 AR에 소개되었던 Los Nogales School Chapel에서 그는 잔디밭에 면해있는 벽이 뒤로 들어올려지면서 외부에 있는 사람들도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 수법은 La Calera 교회에서도 적용되었다. 초원의 언덕배기에 지어진 이 교회는 얇은 판석을 포개서 만든 벽과 그 벽 사이에 걸려있는 종이 정면을 이룬다. 그 벽 안쪽에는 건축가가 고백의 정원이라 이름 붙인 마당이 자리잡고 있다. 교회의 남측은 납작한 목재 막대기를 촘촘하게 붙여 만든 막이 처진 유리벽이 서있다. 태양의 움직임에 따라 빛은 걸려져서



Daniel Bonilla의 콜롬비아 La Calera 교회

유입되어 마치 스테인드 글라스에 의해 변화하는 색깔을 가진 공간처럼 서서히 공간을 변화시킨다. 목재 막과 유리창은 슬라이딩 방식으로 열려 고백의 정원까지 예배당을 확장시킨다. 페스티발이 열릴 때에는 예배당의 측면도 열려서 서측 초지의 경사면에 앉아서도 재단을 보고 예배에 참가할 수 있게 된다.

그 외의 ar+d 건축상 수상작으로 PLOT의 덴마크 코펜하겐 Amager 청소년회관, Architecture Workshop의 뉴질랜드 Central Otago Gibbston Valley의 와인저장소, Jesus Aparicio Guisado, Hector Fernandez-Elorza의 스페인 마드리드 자료보관소가 소개되어 있으며, 이어 최우수 작품으로 Marco Castelletti Architetto의 이탈리아 Cesano Maderno 도심재개발 계획, Manuel Clavel Rojo의 스페인 Murcia 묘소, Ofis Arhitekti의 슬로베니아 Ljubljana 박물관 증축안, 우수 작품으로 The Skyisbeautiful Architecture의 베트남 Luong Son 학교, Deca Architecture의 그리스 Antiparos 주택, Office dA의 미국 매서츄세츠 보스턴 영혼회관, Eightyseven의 스페인 Sant Miquel De Cruilles 정자, Woha Designs의 싱가포르 Fenestration System, Marco Castelletti Architetto의 이탈리아 꼬모 Segriho 호수 목욕탕, Carl Fredrik Svenstedt의 전등 디자인, Smarch의 스위스 베른 Worb 기차역, David Mc Dowell의 아일랜드 더블린 Malahide 주택, Tezuka Architects의 일본 니이가타 자연사박물관, Turenscape의 중국 Dujiangyan City 조경계획이 게재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입선작품으로 Abramson Teiger Architects의 미국 캘리포니아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Encino, 2B Architectes의 스페인 마드리드 Arco 스위스 파빌리온, Berlin, Germany Die Baupiloten의 독일 베를린 학교 리노베이션을 다루고 있다.(번역 / 최원준)

전국시도건축사회 및 건축상담실 안내

- 서울특별시건축사회/(02)581-5715~8
- 강남구건축사회/(517-3071 · 강동구건축사회/486-7475 · 강북구건축사회/903-2030 · 강서구건축사회/661-6999 · 관악구건축사회/877-4844 · 광진구건축사회/446-5244 · 구로구건축사회/864-5828 · 금천구건축사회/859-1588 · 노원구건축사회/937-1100 · 도봉구건축사회/990-8720 · 동대문구건축사회/967-6052 · 동작구건축사회/815-3026 · 마포구건축사회/333-6781 · 서대문구건축사회/338-5552 · 서초구건축사회/3474-6100 · 성동구건축사회/292-5855 · 성북구건축사회/922-5117 · 송파구건축사회/423-9158 · 양천구건축사회/694-8040 · 영등포구건축사회/632-2143 · 용산구건축사회/717-6607 · 은평구건축사회/389-1486 · 종로구건축사회/725-3914 · 중구건축사회/231-5748 · 중랑구건축사회/437-3900
- 부산광역시건축사회/(051)633-6677
- 대구광역시건축사회/(053)753-8980~3
- 인천광역시건축사회/(032)437-3381~4
- 광주광역시건축사회/(062)521-0025~6
- 대전광역시건축사회/(042)485-2813~7
- 울산광역시건축사회/(052)266-5651
- 경기도건축사회/(031)247-6129~30
- 고양지역건축사회/(031)963-8902 · 광명건축사회/(02)684-5845 · 동부지역건축사회/(031)563-2337 · 부천시지역건축사회/(032)664-1554 · 성남지역건축사회/(031)755-5445 · 수원지역건축사회/(031)241-7987~8 · 시흥지역건축사회/(031)318-6713 · 안산건축사회/(031)480-9130 · 안양지역건축사회/(031)449-2698 · 북부지역건축사회/(031)876-0458 · 이천지역건축사회/(031)635-0545 · 파주지역건축사회/(031)941-2410 · 평택지역건축사회/(031)657-6149 · 오산 · 화성지역건축사회/(031)375-8648 · 용인지역건축사회/(031)336-0140 · 광주지역건축사회/(031)767-2204
- 강원도건축사회/(033)254-2442
- 강릉지역건축사회/(033)652-0126 · 삼척지역건축사회/(033)531-8708 · 속초지역건축사회/(033)633-5080 · 영월지역건축사회/(033)374-2659 · 원주지역건축사회/(033)743-7290 · 춘천지역건축사회/(033)254-2442
- 충청북도건축사회/(043)223-3084~6
- 청주지역건축사회/(043)223-3084 · 옥천지역건축사회/(043)732-5752 · 제천지역건축사회/(043)643-3588 · 충주지역건축사회/(043)851-1587 · 음성지역건축사회/(043)873-0160
- 충청남도건축사회/(042)252-4088
- 공주지역건축사회/(041)854-3355 · 보령지역건축사회/(041)934-3367 · 백제지역건축사회/(041)835-2217 · 서산지역건축사회/(041)681-4295 · 천안지역건축사회/(041)551-4551 · 홍성지역건축사회/(041)632-2755 · 아산건축사회/(041)532-9200
- 전라북도건축사회/(063)251-6040
- 군산지역건축사회/(063)452-3815 · 남원지역건축사회/(063)631-2223 · 익산지역건축사회/(063)852-3796
- 전라남도건축사회/(062)365-9944 · 364-7567
- 목포지역건축사회/(061)272-3349 · 순천지역건축사회/(061)743-2457 · 여수지역건축사회/(061)652-7023 · 나주지역건축사회/(061)365-6151
- 경상북도건축사회/(053)744-7800~2
- 경산지역건축사회/(053)812-6721 · 경주지역건축사회/(061)726-6877~8 · 구미지역건축사회/(054)451-1537~8 · 김천지역건축사회/(054)432-6688 · 문경지역건축사회/(054)553-1412 · 상주지역건축사회/(054)535-8975 · 안동지역건축사회/(054)853-0244 · 영주지역건축사회/(054)634-5560 · 영천지역건축사회/(054)334-8256 · 칠곡지역건축사회/(054)974-7025 · 포항지역건축사회/(054)244-6029 · 군위, 의성지역건축사회/(054)383-8608 · 청도지역건축사회/(054)373-2332
- 경상남도건축사회/(055)246-4530~1
- 거제지역건축사회/(055)635-6870 · 거창지역건축사회/(055)943-6090 · 김해지역건축사회/(055)334-6644 · 마창지역건축사회/(055)245-3737 · 밀양지역건축사회/(055)355-1323 · 사천지역건축사회/(055)833-9779 · 양산시건축사회/(055)384-3050 · 진주지역건축사회/(055)741-6403 · 진해지역건축사회/(055)544-7744 · 통영지역건축사회/(055)641-4530 · 하동지역건축사회/(059)883-4612
- 제주도건축사회/(064)752-3248
- 서귀포지역건축사회/(064)733-5501

광희동 청사	86
세운상가 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88
조종도서관	96
인천소방본부 및 남구소방서	98

광희동 청사

Gwanghui-dong Office

당선작 / 단아건축사사무소(조민석 · 김상기)

대지위치 서울시 중구 광희동 1가 252외 5필지
지역지구 일반상업지역, 중심지미관지구, 공공청사
주 용 도 공공업무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대지면적 379.22㎡
건축면적 227.08㎡
연 면 적 1,376.38㎡
건 폐 율 59.88%
용 적 률 284.95%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규 모 지하 1층, 지상 5층
외부 마감 파르초징크판, 노출콘크리트, 알루미늄복합
패널
설 계 팀 서영훈, 박영실

기본계획 방향

광희동 주민의 행정편의 및 주민자치활동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 하고자 한다.

계획의 목표

- 공원과 연계성 : 공원의 실내 삽입
- 자연 친화적 동선 : GREEN NETWORK
- 기능별 명확한 동선 분리 : 이용이 편리한 복합청사
- 사통팔달의 접근성 : 지역 공공시설로서의 편리한 접근과 인지성 고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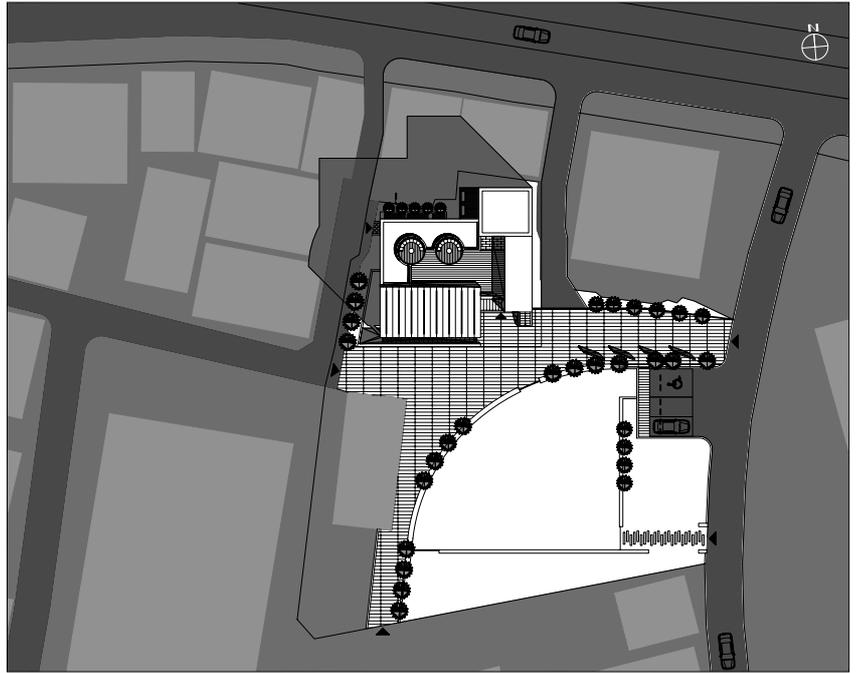
배치 계획

- 공원으로 향하는 열린 조망
- 기존의 다양한 공원 출입구와 연계된 주 출입 동선
- 공원의 건물 내 삽입 : 선큰 마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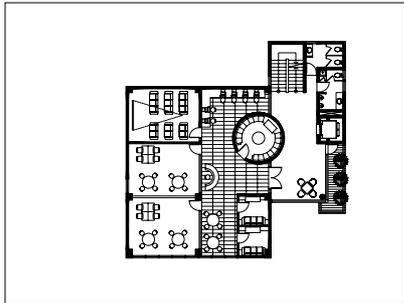


평면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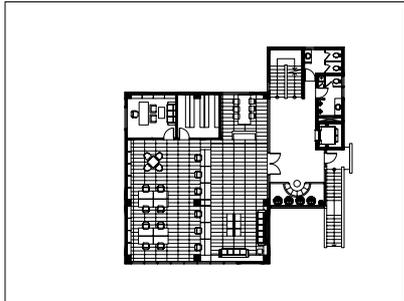
- 선큰 마당 : 이벤트 마당으로 활용 (바자회, 공연 등)되며 중대본부와 인접하여 예비군들의 집합장으로 활용되는 다목적 공간.
- 주민 사랑방 : 주민들의 담화와 휴식, 다양한 모임을 기질 수 있는 공간으로 선큰 마당과 통합사용이 가능한 공간.
각 기능별 별도의 동선 확보 : 경로당, 중대본부, 주민자치센터, 동민원실
- 동사무소 별도의 옥외계단 설치 : 민원인들의 접근성을 고려한 별도의 옥외계단 설치로 편리함과 인지성 극대화.
- 다목적 강당 : 다목적 공간으로 에어로빅, 강연, 공연, 각종집회, 댄스교습 등 다양한 행위를 담을 수 있는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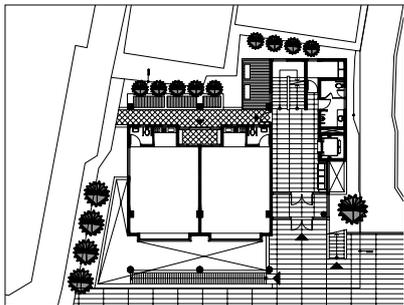
배치도



4층 평면도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남측입면도



단면도

세운상가 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Sewoon district #4 urban redevelopment project International design competition

당선작 / Koetter Kim & Associates Inc(Fred Koetter · Susie Kim)+(주)무영종합건축사사무소(안길원 · 서학조)+(주)종합건축사사무소 동우건축(이용익)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지동 85번지 일원
지역지구 일반상업지역, 중심지미관지구, 방화지구
용도 복합문화, 상업시설, 수복형 사업장, 업무시설, 오피스텔, 주거시설
대지면적 26,129.10㎡
건축면적 15,483.40㎡
연면적 지상 : 188,045.78㎡, 지하 : 129,030.60㎡
건폐율 59.26%
용적률 719.68%
주차대수 2,039대
규모 지하 5층, 지상 25층
설계팀 무영 : 김영우, 김기백, 이민환, 하승우, 김재관, 오광호, 정자윤, 권혁재, 김지연
 동우 : 이재우, 이정은, 고상석, 이재훈, 권지영

디자인목표(Urban Design)

계획의 주안점은 활발한 가로중심의 도시 지역 창출과 주변의 도시 지역들과 새롭게 개발될 지역이 어떻게 긍정적으로 연결되어 공존 할지 파악하는 것이다. 또한 청계천 수변 공간과 우리가 제안한 중앙공원과의 부지 내 중요한 공간적 연계를 형성하여 가로와 도시 공간을 새롭게 정의하는 건물 배치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디자인 개념은 중요, 비원으로부터 남산까지 전체 도시를 관통하는 남북축과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역사적 가로의 현대적 해석을 통해 이곳에서 과거의 기억과 연속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또 다른 차원의 공간을 경험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가로와 통로(Streets and Passages)

제안된 다양한 규모와 형태의 가로 및 통로들은 다양한 가로변의 상권 형성에 적절히 대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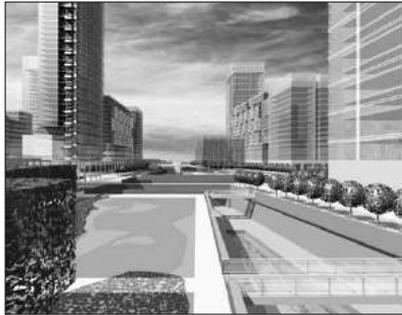
부지의 구역은 대지의 외곽과 청계천 그리고 광장 전면 도로를 연결하며, 이 길들은 기존하는 외곽 간선도로와 함께 구역 안에서 중앙에 집중된 서비스 공간으로 통하는 길을 제공한다. 또한 각 구역에는 남북과 동서로 연결된 두 개의 자동차도로와 차양이 설치된 보차혼용도로들을 제공한다. 건물 사이로 동서를 연결하는 작은 길들은 청계천과 평행하게 설치되며 청계천의 물길을 상징하는 수로도 함께 구성된다. 또한 남북으로 연결된 작은 길들은 중앙 녹지 광장과 평행하게 설치되며 소규모 녹지들도 계획되었다. 현재 부지내부의 기본 가로 체계와 유사한 작은 보행 통로들은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소규모의 소매 및 마켓의 가로로 사용 될 것이다.

건축계획(Architectural Design)

기존의 가로들에 의해 평면적으로 확정된 건물들



은 도시의 구성이 그렇듯 다양하고 자연스러운
 매스들로 구성된다. 각 건물의 통로에 적합한 시
 각과 Open Space를 갖도록 다양한 레벨의 건물
 들이 스카이라인을 구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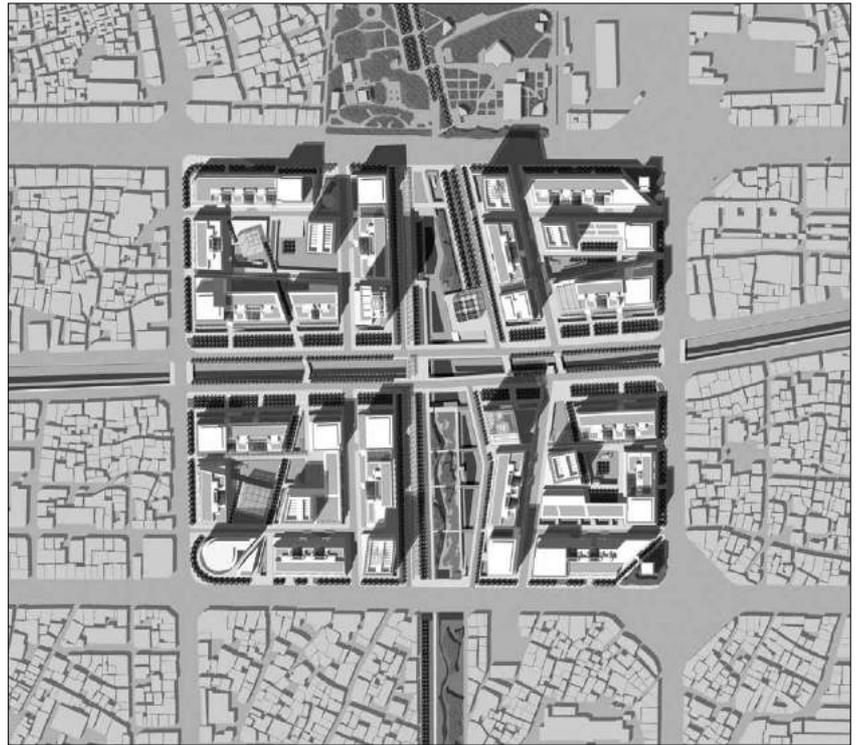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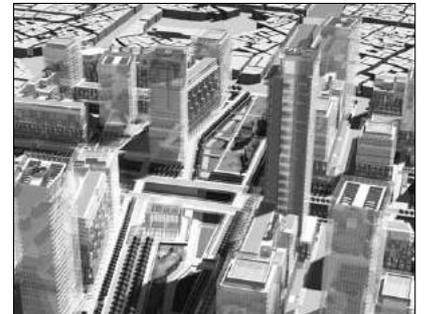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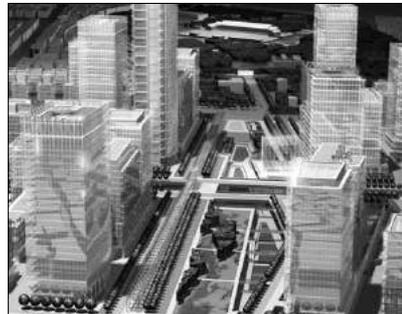
1층 평면도



지하 1층 평면도



배치도



북측입면도

세운상가 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Sewoon district #4 urban redevelopment project International design competition

2위 / Richard Rogers
Partnership(Richard Rogers) +
(주)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정영균)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지동 85번지 일대
지역지구 일반상업지역, 도심재개발구역, 중심지미관지구, 방화지구, 주차상한지역
용도 공동주택, 업무, 판매 및 영업, 문화 및 집회
대지면적 33,190.1m²
건축면적 15,538.82m²
연면적 298,412.50m²
건폐율 59.47%
용적률 720.56%
구조 철근콘크리트 구조, 철골구조
규모 지하 5층, 지상 25층
외부마감 T24 컬러복층유리, 고강도목재패널, 알마늄쉬트
설계팀 윤현철, 조남승, 최준성, 김수정, 김택빈, 김정훈, 박홍근, 김영훈, 김한나, 양인희, 송주영, 남택유, 백현아, 류은미, 강동기

이 프로젝트는 청계천과 녹지가 만나는 부지의 상징성, 거대한 계획면적, 다양한 프로그램만큼이나 여러 전문 업체들과 담당자들간의 긴밀한 협동작업을 통하여 완성되었다. 희림과의 긴밀한 협의 속에서 리처드 로저스 사무실이 마스터플랜의 주요개념들과 매스의 틀을 만들었고, 희림은 각 협력업체들을 조율하며 기본계획안을 발전시켜 최종성과물을 제출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도시에 대한 인식과 접근 방법에서는 협력사들이 동일한 견해를 가졌다. 기존의 가로체계를 동서간 연계하여 전통적인 도시구조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계획이다. 하지만 중앙녹지 공간의 활용방법과 주거의 배치, 또한 최종성과물의 표현 정도에서는 각 사별로 상이한 견해를 보였다. 한 예로 로저스 사무실은 중앙 녹지축을 여러 프로그램들이 융합되고 표현되는 매우 활기찬 공간으로 해석한 반면, 협력사 중에는 이를 매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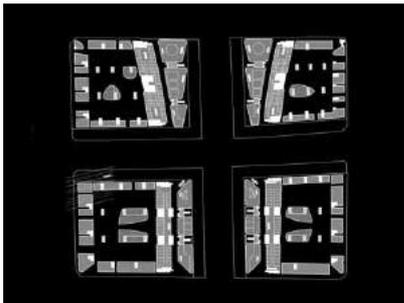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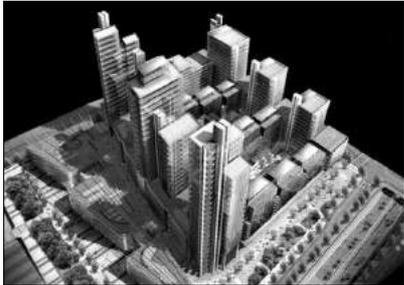
상징적이고 정적인 공간으로 파악하는 주장도 있었다. 여러 차례의 회의 끝에 녹지공간을 좀더 광역적인 서울 시민 전체를 위한 공간으로 휴식과 문화가 공존할 수 있도록 조율하였다.

최종성과물들은 기존의 표현방식에서 탈피한 참신한 방법들이 시도되었다. 모델들은 배치개념을 강조하기 위하여 투명성과 간결함을 줄 수 있는 재료들과 색들이 선택되었고 적절한 조명과 어우러져 마치 빛을 발하는 수정체들이 모여있는 '빛나는 도시'와 같이 표현되었다. 제출 도판은 AO 크기로 도시계획 6장과 건축계획 10장을 합하여 총 16장에 이른다. 도시구조에 대한 컨셉과 건축 내외공간을 효과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개념과 이미지들이 도판간에 연속되어 커다란 흐름으로 표현되는 과감한 구성을 시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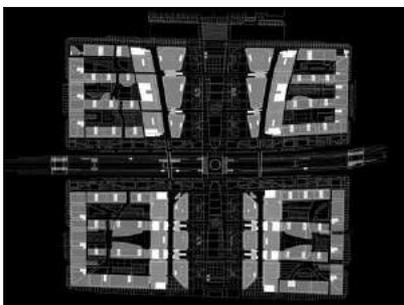
이 프로젝트는 컨셉 설정에서 최종 마감까지 서



울, 런던, 플로리다의 여러 회사들이 24시간 쉬지 않고 일하는 협력체계의 본보기로서 또한 새로운 표현 방법들이 시도되었던 프로젝트로서 기억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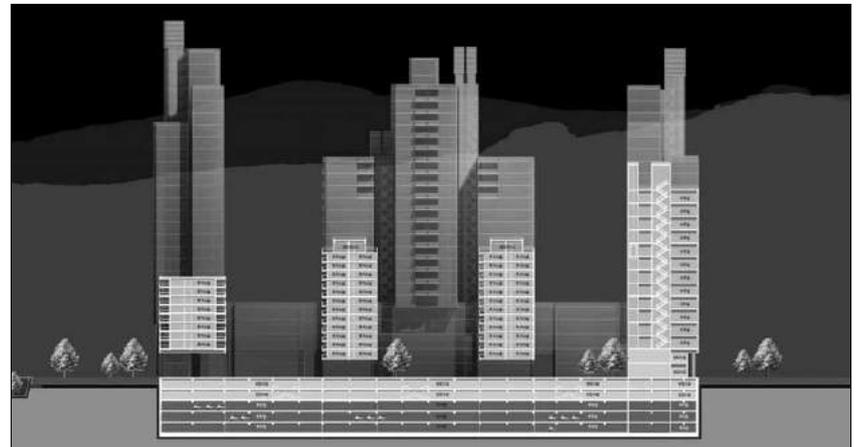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배치도



종단면도

세운상가 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Sewoon district #4 urban redevelopment project International design competition

3위 / MACHADO & SILVETTI (Rodolfo Machado)
+ (주)공간종합건축사사무소(이상림)

대지위치 서울시 종로구 예지동 85번지 일대
지역지구 일반상업지역, 중심지미만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대지면적 33,190.1㎡(121,105.8㎡)
건축면적 15,535㎡
연면적 282,615㎡
건폐율 59.45%
용적률 7.1678 %
구조 SRC구조
규모 지상 : 6~24층, 지하 : 3층
설계팀 MACHADO & SILVETTI : Chris Grimley, Rami el Samahy, Dan Batt, Evan Brinkman, Ray Chung, Georgy John, Miks Karklins, Kristis Karklins, Stephen Lee, Shae Morley, Melissa Murphy, Clare McParland, Nik Nedev, Peter Nedev, Steven Poon, Roberto d'Oliveira Castro
공간 : 박창권, 강희성, 김태철, 최효선, 박남규, 전창국, 전성태, 한형욱, 황윤철, 조성준, 김준모, 안은비, 성진, 황수영, 최석채, 박은주, 옥윤종

서울 도심의 핵심적인 자리에 위치한 세운상가 4구역을 계획함에 있어 건축디자인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서울리안(Seoulian)' 혹은 '서울라이트(Seoulite)' 라고 불리는 서울 시민만이 가질 수 있는 새로운 도심환경을 창조하는 것이다. 이 계획구역은 '이곳'에만 존재할 수 있는 특수한 공간으로 거듭나게 된다. 또한 우리는 명확하게 '오늘'에만 이뤄낼 수 있는, 현대 도시와 건축의 핵심적 이론을 바탕으로 한 공간을 창조하고자 한다. 우리는 이 계획에서 밀도있는 도심, 분명하게 도시적인 주거환경, 인접한 건물군이 만들어내는 풍부하고 다양한 공간, 예상치 못하게 이어진 거리(vista)와 모든 종류의 크고 작은 오픈스페이스를 제공하려 한다. 이와 같은 목표를 충족하는 도시구조와 주요공간 형성을 위하여 우리는 세가지 주요 건물타입을 제안한다.

- 1) 타워(The Tower)
- 2) 블록(The Block)
- 3) 매트(The Mat)

그 외 네 개 블록의 각 코너에는 위 건물 타입을 기본으로 한 인자성이 우수한 특징적인 건물이 위치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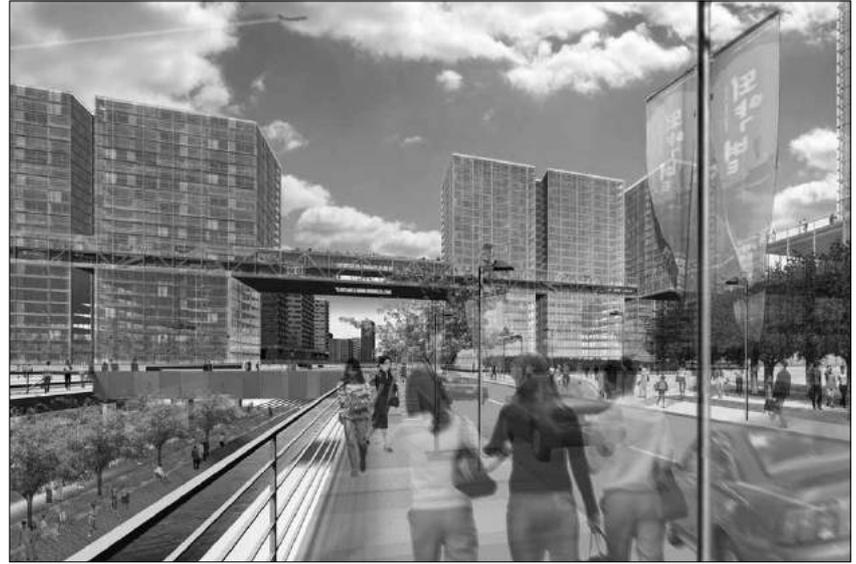
건물 요소들은 기존의 세운상가 주변환경을 손상시키는 도시구조를 형성하며 배치된다. 시각적으로 근접한 건물들 사이로 여각을 이루며 이어진 보행로와 지상층에 연속되는 카페, 상가, 식당 등의 상업시설, 그리고 새롭게 계획되는 도시광장과 공원 속에서 우리는 문화의 역사적 연속성을 간직하게 된다.

중요공원에서 시작된 남-북 축이 보행교로 이어지며 종로를 건너 플라자의 형태를 규정한다. 같은 축은 남측방향으로 연결되며 궁극적으로 남산에서 종묘를 잇는 공공 오픈스페이스(플라자, 공원, 정원)들의 보행축을 형성한다. 우리가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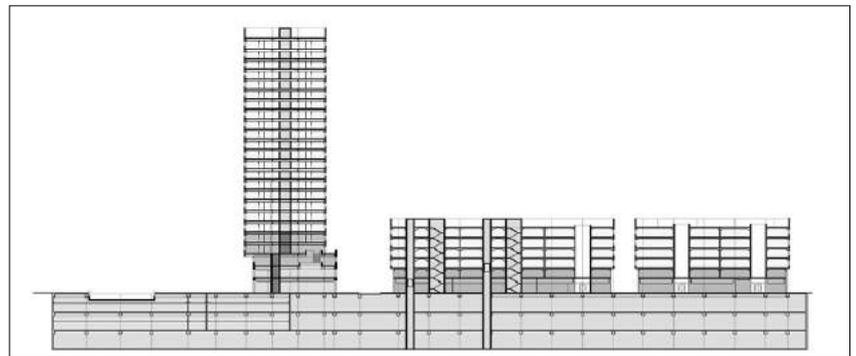


한 플라자는 조성되는 즉시 21세기 서울의 상징이 될 것이며, 한국에서 전무후무한 공간이 될 것이다.

공원은 최종적으로는 동대문운동장에서 세종로까지 이어진 선형 녹지공원의 첫 번째 조각이 된다. 청계천변 아파트 내 정원들이 모두 공원으로 열리고 이어지며 공원의 시각적인 스케일이 확장될 것이다.



1층 평면도



횡단면도

세운상가 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Sewoon district #4 urban redevelopment project International design competition

3위 / JERDE Partnership(John Jerde) + (주)단우
건축사사무소(최명철 · 심우근) + (주)종합
건축사사무소 이웨스(이영환 · 박종기)

대지위치 서울시 종로구 예지동 85번지 일대
지역지구 일반상업지역, 도심 재개발구역, 중심지 미
관지구, 방화지구, 주차상한지역
대지면적 26,129.10㎡
건축면적 15,673.57㎡
연면적 329,226.18㎡
건폐율 59.99%(계획), 60.00%(기준)
용적률 720.01%(계획), 723.00%(기준)
구조 철골, 철근콘크리트구조
규모 지하 6층, 지상 25층
외부 마감 라임스톤, THK24 페어클라스
설계팀 JERDE : John A.Simones, Danny
Shoohuan Ha
단우 : 이창우, 최은석, 최현영, 조성진,
송창환, 김태훈, 김제현
이웨스 : Alex S. Yoo, 조창원, 전점선,
박승준, 이태중, 정민교, 허혜경

청계천을 복원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세운상가를
녹지축으로 변모시키고자 하는 계획이 세워지면
서 서울 사대문 안의 도시환경을 새롭게 정립하
는 계기를 맞고 있다. 현재 서울이라는 도시를
위해 적합한 패러다임과 공간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 우리에게 던져진 것이다.

이 계획은 환경이 열악한 세운상가 주변지역을
변화시켜 자연과 어우러진 생태환경으로, 활기
있는 도심부로, 역사와 문화가 살아있는 장소로
만들고자 하는 의도로 진행되었다.

세운상가지역은 녹지축과 청계천축의 생태공간
을 중심으로 상업, 주거, 사무 및 기타 문화시설
등의 다양한 복합기능을 지닌 도심공원
(Sewoon City Park)으로 거듭나리라 기대한다.

- Focal urban space : 계획부지는 청계천을
따라 광화문에서 동대문으로 이어지는 주요
노드들의 중심에 위치하며, 북악에서 남산으로
이어지는 녹지축상의 주요 보행동선이 연속적

인 나선형태를 이루며 연결되고 있다. 세운상
가일대 4블록의 계획은 교차하는 두 축의 중
심부에 위치함으로 그 형태는 수직, 수평, 사방
을 엮으며 이어주는 중심공간으로서 원형을
기본으로 하여 외부로 확장되는 열린 형태가
된다. Focal urban space를 계획하여 사대문
내 새로운 중심공간으로 생태공간과 상업기능
이 보행동선과 긴밀히 연계되어있는 인상적인
장소를 만들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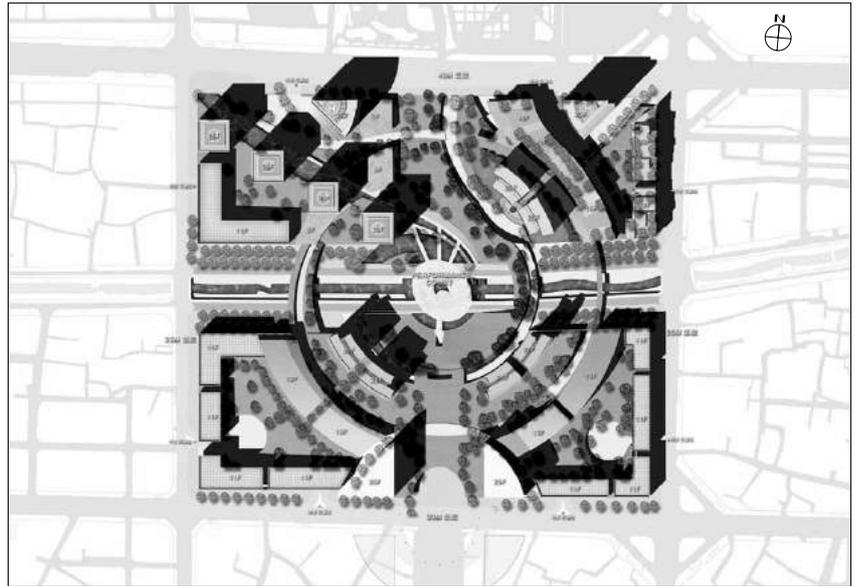
- 활기있는 상업공간의 연출 : 저층부 상업공간
을 단면상에 변화를 주어 지상에서 지하로 보
행동선을 자연스럽게 끌어들이며 여러 입체동
선들을 계획함으로써 역동적인 보행몰을 형성
하고자한다. 또한 사방으로 연결되는 보행동선
이 중심 상업공간을 가로지르며 서로 엮어져
있어 수직 수평의 다양한 보행동선으로 상가
로의 접근성을 높였다.

- 도시가로(Urban corridor)의 재해석 : 기존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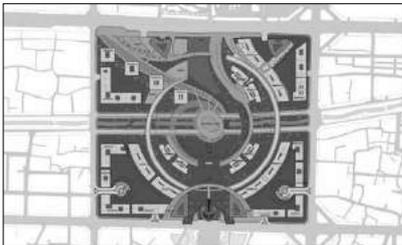


도시구조에 존재했던 다양한 길들을 새롭게 재 해석하여 주요 가로로부터 상가 내부로 적극적인 유입을 의도하였다. 향후 4블록이 모두 완성되었을 경우 각 블록을 순환하는 보행 망을 통해 원활한 소통과 연계를 가능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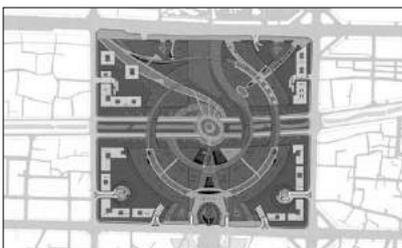
- 문화 인프라 형성 : 새롭게 제안되는 문화시설들을 주요 보행동선과 연결하여 기존 사대문 내에 존재하는 역사 문화시설들을 적극적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특히 중심부 상업공간에 문화시설을 집중 배치하여 중심상업공간과 생태축 등이 연계된 명소를 형성하도록 계획하였다.
- 주거영역과 상업영역의 구분 : 상업공간으로 접근하는 외부 보행동선을 주거영역과 분리하여 거주환경의 질을 향상하도록 하였다. 주거영역의 저층부는 노약자와 어린이를 위한 시설과 주민들을 위한 시설들을 거주자 전용 중정(community garden)을 중심으로 배치하여 주민들 사이의 화합의 장이며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고려하였다.



배치도



주거 기준층 평면도



2층 평면도



1층(지반층) 평면도



단면도

조종도서관

Jojong Library

당선작 / 건축사사무소 유덕건축
(이석권 · 조덕규)

대지위치	경기도 가평군 하면 현리 420-33번지일원
지역지구	생산녹지지역
용도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대지면적	2,840.00㎡
건축면적	511.43㎡
연면적	1,290.83㎡
건폐율	18.01%
용적률	45.45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 철골조
규모	지하 1층, 지상 3층
외부마감	알루미늄 복합패널, THK24 로이복층유리
설계팀	홍석진, 최역순, 진광배

앞으로 건립예정인 15,000여 명의 생활체육공원의 일부시설인 조종도서관 부지는 바로 옆에 같이 세워질 조종체육관과의 연계성 확보와 광활한 주변 환경에서 도서관의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조금 애매한 성격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장소성의 성격과 점차 증대되어지고 있는 도서관의 기능을 부합시키기 위해 계획의 방향을 다양한 접근성과 형태감, 그리고 공간감의 창출로 잡았다. 또한 어린이들이 스스로 찾고 스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점을 계획의 방향에 더하여 디자인개념의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목표를 해결하기 위해 진입구의 상징조형물에는 쉼터와 놀이터의 기능을 주었고, 이를 전면 광장과 다목적실로 연결시키되 주도서관기능과의 분리를 시도하여 집이나 학교에서는 느낄 수 없는 복합기능의 공간을 구성하게 되었다. 또한 남향에 어린이 열람실을 충분한 크기로 배치하여 양질의 다양한 외부공간과 연계를 시도하였고, 이러한 외

부공간은 도서관 기능과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동선을 최소화하였다. 이러한 흐름을 보다 적극적으로 계획에 반영시키기 위해 Space syntax(도시공간구조를 객관적 분석으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현상을 분석하는 TOOL)라는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부지일대를 분석하여 주출입구와 광장디자인에 반영하고, 그 결과에 대한 표출을 광장 패턴디자인에 적용하였다. 이와같은 흐름은 내부공간까지 이어졌다. 최소화된 동선계획(인지성 및 관리)은 최소한의 공용면적에 필요한 거실이 더해지는 형태로 디자인되었고 이는 다양한 형태감으로 유도되었다. 그러나 그러한 형태감을 합리화하기 위해 보다 상징적이고 랜드마크적인 요소가 더해졌고 이는 조금은 현실과 타협하게 하였으나 추후 여유있는 전 원생활에 정보와 문화의 활력을 주장하고 메아리치는 공간이 될 것이라 믿는다.



인천소방본부 및 남구소방서 Incheon Fire Headquarters & Station

당선작 / 건축사사무소 비타그룹(손도문 · 박영택)

대지위치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3동 747번지의 6필지
지역지구 제2종일반주거지역, 일반미관지구
용도 공공업무시설
대지면적 5,213.70㎡
건축면적 1,954.02㎡
연면적 10,602.51㎡
건폐율 37.48%
용적률 150.36%
규모 지하 1층, 지상 7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철골조(송수신탑)
외부마감 THK24컬러복층유리, 알루미늄쉬트, 노출 콘크리트, 우드패널
설계팀 손정민, 고동구, 이현주, 김재성, 박선희

현란한 개념적 수식 용어들로 포장하기 쉽지 않은 프로그램들의 전개와 적층 또는 상층은 때론 등질적 구성을 표명하는 종합선물상자와 같이 일체적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상반되는 경우이며, 또한 동시대적 감성을 리드하며 일탈기를 요구하기도 한다. 이렇듯 복합화되고 세분화되어 직조(wave)된 프로그램들은 network화를 소명하며 총체적 방법론을 요구하나 실타래를 찾기는 요원하다.

인천소방청사는 이러한 hybrid한 프로그램들의 개연성을—본질적 기능인 소방청사를 배경으로 하는 지역사회의 커뮤니티를—수용한다. 기능과 지역적 커뮤니티를 표방하는 소방청사의 본질은 도시적 차원에서의 인지성, 맥락성, 지역성 등으로 은유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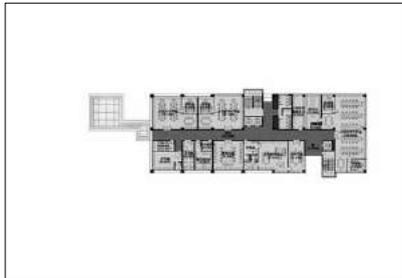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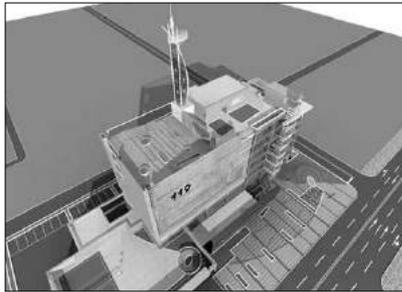
소방청사와 도시와의 관계는 서로 대응되고 가로 의 행태를 투영하는 배경막으로서의 역할을 가지며, 24시간 활동하는 소방의 이미지를 전달하는 도시의 랜턴과도 같다. 더불어 도시속에서 랜드마크의 상징화는 도시 조직의 프로그램과 부합되는 의장으로 표현된다.

또한 인지성의 배경으로 내적 activity의 표현을 위한 투명성은 열린 소방서의 이미지를 고취시키고 있으며, 외벽 자체의 banner 이미지는 강한 상징적 조형으로 녹아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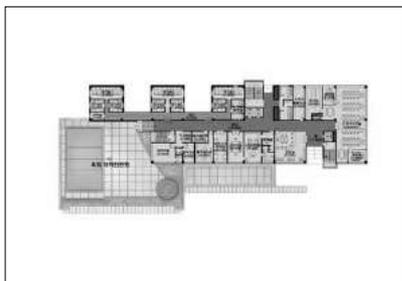
전체적으로 오픈된 스킨과 일부 클로즈된 벽들은 내부 기능의 현상적 표현으로 구성화되어 미니멀하게 오버랩되고 평면, 단면으로 zoning화된 공간들의 형상을 유추하게 한다.



공공시설로의 기대감은 본질을 흐리지 않기 위한
조형으로 공존하며 지역과 함께하는 소방청사로
서 남아주길 기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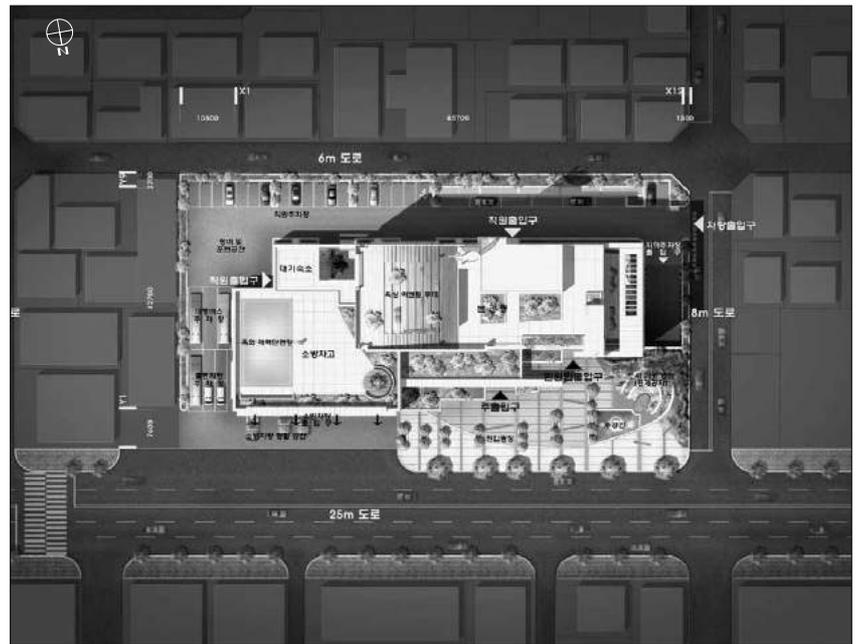
3층평면도



2층평면도



1층평면도



배지도



남측면도

인천소방본부 및 남구소방서 Incheon Fire Headquarters & Station

우수작 / (주)단 건축사사무소 (박규석 · 이용성)

대지위치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3동 747번지 일대
지역지구	제2종일반주거지역, 일반비관리지구
용도	업무시설(공공업무시설)
대지면적	5,213.70㎡
건축면적	2,266.62㎡
연면적	10,584.55㎡
건폐율	43.47%
용적률	160.40%
규모	지하 1층, 지상 7층
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주차대수	78대 (업무차량을 제외한 일반차량-지하 75대, 지상-3대)
외부마감	화강석, 세라믹외장패널, T=18복층유리
설계팀	이승호, 박상문, 이만수, 정기정, 안상준, 전승기

이 프로젝트는 인천시에서 소방청사를 신축함에 있어 21C 동북아 중심도시 인천의 상징성과 119의 안정된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건축물의 예술성 및 창의성 있는 계획안을 만드는 것이었다.

기본개념

이에 이 계획안은 21세기로 도약하는 인천의 이미지를 기본 모티브로 도입하여 공항, 항만 등 인천의 지역특성 및 역동성을 이미지화 하였고, 이를 지역의 랜드마크로서 상징성을 갖도록 계획하였다. 또한 소방본부 및 소방청사의 기능에 적합한 효율적이고 쾌적한 업무공간 계획, 재난사고에 대한 신속하고, 일원화된 지휘체계와 효율적인 대응체계구축, 그리고 지역주민에게 친근하고 접근이 용이한 커뮤니티시설과 공간계획을 만들거자 하였다.

배치계획

우리는 주변의 흐름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위해 25도로변과 6도로변에 접하는 매스를 각각 분리하여 대응시키고 이에 따라 6도로변에는 주 업무공간과는 별도의 저층매스를 계획하여 대원들의 편안한 휴식이 가능하도록 대기공간을 배치하였다. 이에 따라 자연히 두 매스사이의 중정을 계획할 수 있었는데, 이는 개방감을 확보하는 동시에 훈련 및 기타 옥외활동에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환기, 채광, 조망권 확보 및 외부로부터의 소음이나 오염 등으로 부터 시설을 보호할수 있도록 하였다.

평면계획, 단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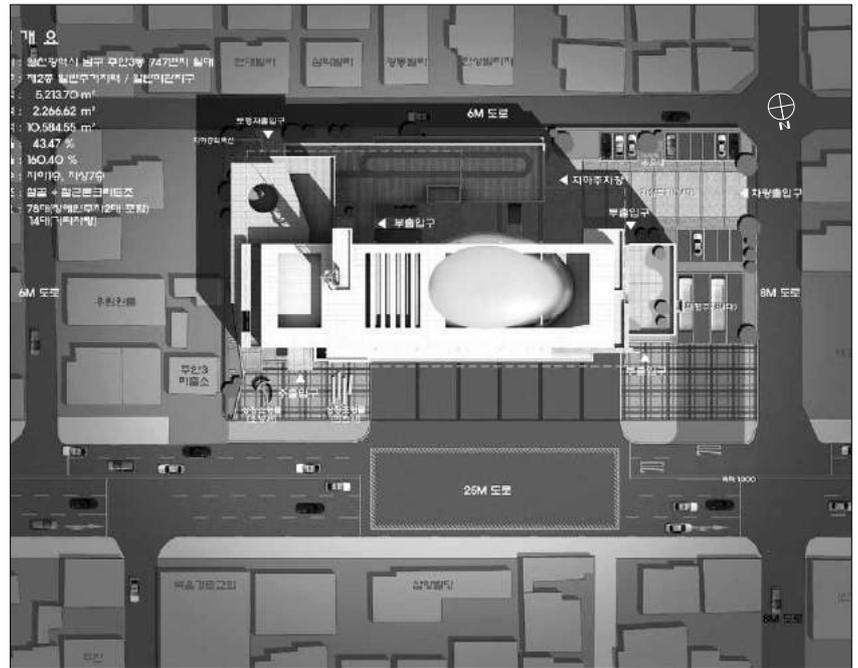
평면과 단면계획의 주안점으로는 층별 공간 조닝과 중정을 통한 개방된 환경의 조성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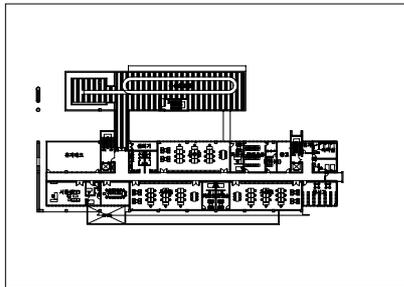
이는 업무, 휴게, 대기, 홍보 등 각 기능을 집적화 하여 업무 및 관리를 용이하게 하고 신속한 출동, 대기자의 쾌적성 확보와 소방대원의 정신적, 신체적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공간계획 및 과정과 같은 쾌적한 휴식환경을 제공할 수 있음을 기대하였다.

입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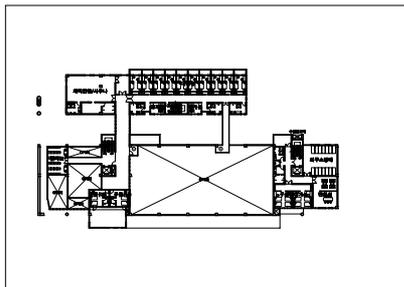
지역 공공시설로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한 강력함을 표현하고 동북아 중심지역의 랜드마크로서 경관성과 인지성 부각을 위하여 원거리 인식성 강화와 하이테크한 이미지를 강조하고 도시건축으로서의 가로면의 연속성을 유지하였다. 또한 정보화 신도시로서의 발전을 위한 역동성을 표현하고 인천시의 상징으로서 하늘, 바다, 땅을 연상시키는 건축적요소를 사용하여 전체적인 이미지를 조화롭게 형성화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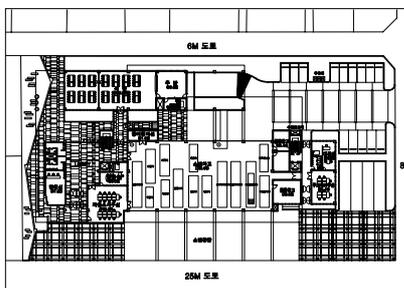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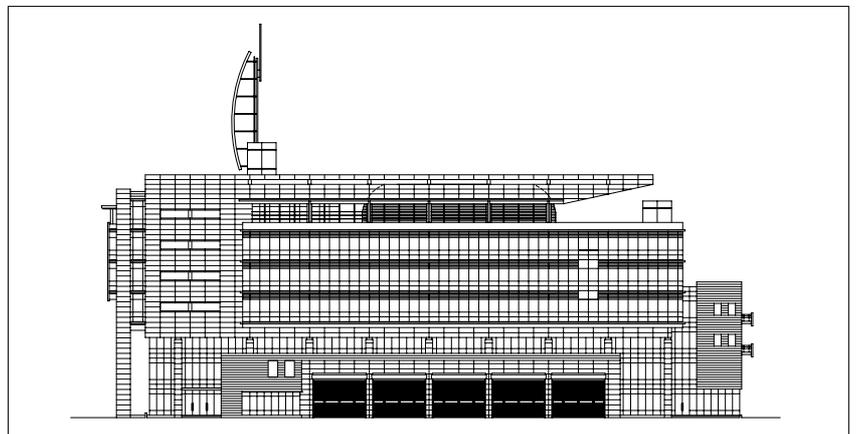
3층 평면도



1층 평면도



1층 평면도



정면도

현금영수증제도 안내

현금영수증 제도는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투명하게 하고,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간 세부담의 불공평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5. 1.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제도란?

- 소비자가 음식점, 할인마트 등에서 5,000원 이상의 현금과 함께 카드, 핸드폰번호 등을 제시하면 사업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현금결제 건별 내역은 국세청에 통보되는 제도입니다.

■ 현금영수증은 어떻게 발급 받나요?

- 현금지급과 함께 신분 인식을 위하여 현재 보유하고 있는 카드를 그대로 제시하시면 됩니다.
- OK캐쉬백카드 · LG보너스카드 · 굿보너스카드 등 적립식 카드 및 신용카드, 이동 통신사 멤버십카드 등 13~19자리의 번호를 가진 카드
- 카드가 없는 경우는
- "핸드폰 번호"나 "주민등록번호"를 가맹점에 불러주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가맹점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로고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 소비자에게 어떤 혜택이 있나요?

- 근로소득자 소득공제
-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신용카드 사용금액과 합산)의 20%를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청소년(자녀)이 사용한 금액은 부모의 사용금액에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에는 「현금(소득공제)」 또는 「현금(지출증빙)」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수취자에 대하여는 매월 추첨을 통하여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사업자(가맹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 19세 이상자(매월 1회 추첨)

등 위	인 원	금 액
1등	1명	1억원
2등	2명	2천만원
3등	3명	5백만원
4등	100명	10만원
5등	10,000명	1만원

▶ 매월 마지막 토요일 오후 4시 30분 KBS1 TV에서 방송

▶ 19세 미만자(매월 2회 추첨)

등 위	인 원	금 액	금 액
1등	1명	300만원	노트북 컴퓨터 디지털 카메라 전자 피아노 MP3 핸드폰 등 상금범위내 선택
2등	3명	1백만원	
3등	10명	3십만원	
4등	100명	5만원	
5등	2,000명	1만원	
교육상	1개학교	5백만원	
최초접속자상	1명	5십만원	

▶ 매월 5일, 20일 오후 8시 「http://현금영수증.kr」에 접속하여 직접 추첨
▶ 교육상 : 1등 당첨자가 재학 또는 졸업한 학교에 지급

- 현금영수증 발급에 따른 수수료 부담이 없습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의 1%를 연간 500만원 범위내에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법인제외)
※ 2005. 1. 1부터 음식 · 숙박업자 중 매출액 4,800만원 이하인 간이과세자는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의 1.5%를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 매출액이 전년도보다 130% 초과한 경우
- 증가된 수입금액의 일정비율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 소득세 · 법인세가 감면됩니다
- 부가세 · 소득세 · 법인세에 대하여 일정기간 세무조사가 면제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2)
-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지출증빙"으로 수취

한 경우 적격영수증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 현금영수증 홈페이지(http://현금영수증.kr) 회원에 지금 가입하세요!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회원에 가입하시면...

- 현금결제내역을 수시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제출서류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 신용 · 직불카드복권 및 현금영수증복권 당첨 내역을 동시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복권당첨시 계좌번호를 등록하여 보상금을 계좌이체 받을 수 있습니다.

- ▶ 현금결제내역이 http://현금영수증.kr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 이 홈페이지에 카드번호 또는 핸드폰번호를 등록하여 주십시오.
- ▶ 현금영수증은 별도 보관할 필요가 없으며 http://현금영수증.kr에서 전산관리됩니다.

- 납세자와 함께하는 마라톤 대회 개최안내 -

"납세자와 함께하는 마라톤 대회" 축제 한마당에 납세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국세청은 제39회 납세자의 날(3. 3)을 맞이하여 성실납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3. 19(토) 잠실종합운동장에서 "납세자와 함께하는 마라톤 대회"를 개최합니다.

- ▶ 일시 : 2005년 3월 19일(토) 오전 10시
- ▶ 장소 : 잠실종합운동장(주경기장)
- ▶ 종목 : 8km(건강달리기), 10km, 하프
- ▶ 참가신청방법

- 2005.1.10(월)~2.15(화) 기간 중
http://www.taxpayermarathon.go.kr/에서 신청

자료제공 및 문의
국세청 납세홍보과(02-397-1564)
E-mail : ho25400@nts.go.kr

2004년도 건축사자격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00001	김수명	00002	정승연	00013	최석창	00014	김동호	00032	박양진	00043	하수경
00049	김범준	00061	윤형진	00063	이명률	00067	백인우	00077	장상운	00081	윤의철
00087	김대훈	00093	최정태	00104	김성희	00109	장승훈	00113	이현섭	00137	최화부
00148	한중권	00150	문근중	00194	윤철재	00211	이동원	00212	김정아	00213	이용학
00215	전주철	00217	심재복	00219	강병훈	00220	김민규	00224	이상철	00230	권균봉
00244	서홍석	00265	유훈형	00269	박성준	00271	김완식	00280	이훈정	00295	장길성
00359	오인택	00365	신동수	00390	안광기	00396	임도훈	00411	황선영	00416	송경철
00436	김광수	00448	우동우	00495	최성일	00517	이지연	00532	정진영	00538	신현철
00540	김동원	00544	박상민	00546	이진아	00551	석고산	00559	이세훈	00570	전재형
00587	신용준	00588	전성원	00598	최진석	00600	김흥기	00618	김준기	00623	이세환
00632	임성민	00640	이신정	00642	최강식	00652	김정근	00661	김영호	00666	한경훈
00694	오승훈	00747	김진수	00768	이윤경	00792	김현주	00793	이은식	00817	이승호
00818	이기필	00831	박진만	00834	박선배	00855	김영일	00869	양희일	00873	임상현
00898	전형규	00902	정진만	00905	송일현	00907	원명래	00938	강신원	00941	최민성
00953	김기두	00954	이인범	00962	최창선	00977	황문기	00978	이세원	00983	김성용
00984	방의성	00988	정은선	00989	이동훈	00995	김태규	00998	박성식	01013	조현휘
01015	류병주	01020	이성은	01029	김주영	01044	강인철	01054	이정섭	01086	윤중석
01090	최재호	01100	신삼수	01107	박진희	01113	하인철	01120	함진원	01128	이미정
01129	김정원	01131	유정현	01132	김남영	01140	박동수	01147	전보림	01155	권경애
01171	김주걸	01174	박경택	01176	이훈주	01184	이성덕	01206	구본진	01208	이종현
01213	손석훈	01215	신정섭	01216	여상진	01225	이석민	01231	박찬우	01239	강영란
01253	신두섭	01264	강병직	01288	김재용	01293	이해경	01298	이재근	01302	신근우
01311	강정훈	01314	김현이	01317	정영석	01326	전성호	01343	박영호	01354	김시범
01359	김기수	01361	문봉호	01381	여길진	01416	홍윤희	01426	김영산	01433	이옥정
01460	이정원	01462	이민호	01474	황재덕	01492	양일성	01501	김창준	01502	김기석
01504	구명완	01513	김연옥	01566	이영희	01573	이준희	01594	공정식	01611	허진욱
01612	김영찬	01613	형원국	01615	노선영	01616	김보현	01623	윤재수	01648	김문수
01650	전병채	01661	박희욱	01671	차석훈	01688	홍관의	01698	김수미	01704	한병환
01723	정재일	01724	한창희	01730	안승영	01748	정성영	01766	허재영	01771	황지영
01778	허서영	01784	고희남	01787	최선화	01790	이수경	01796	양재호	01803	유민정
01806	강부미	01809	진현용	01812	김병욱	01825	박동숙	01833	한 석	01837	신현성
01839	권범석	01849	인계훈	01866	노익재	01870	이해욱	01874	이유정	01886	김성준
01888	허태훈	01889	이남곤	01893	박계균	01895	장용호	01905	이상훈	01909	김태한
01922	손창성	01930	김학철	01941	유상근	01942	신수진	01944	이승환	01963	김시환
01966	조찬영	01971	최현숙	01982	현근보	01983	김태규	02000	황법진	02003	신진환
02004	이다현	02017	서완선	02038	박상준	02051	목경웅	02118	이건영	02126	김기은
02132	조항삼	02150	임지환	02218	이강명	02242	김정현	02251	이혁수	02315	이봉주
02341	안기성	02342	권영상	02385	양승효	02397	이순석	02399	황정근	02416	조동우
02448	김진택	02473	임은규	02528	이은아	02599	손종우	02620	최은석	02632	이용주
02638	최재영	02640	장수환	02664	서용근	02703	김규탁	02741	안상준	02753	강희용
02760	함은광	02770	오선준	02798	엄 현	02823	이정수	02862	박상선	02879	김기수
02880	이현상	02928	오승원	02936	김동범	02960	유기성	02983	허남일	03040	김진우
03046	이현실	03099	임형관	03146	배종권	03158	김병현	03209	권순민	03214	김강래
03303	황필순	03311	김태신	03380	김성준	03397	김석천	03398	김훈영	03407	박기선
03408	박성식	03455	황태근	03469	최복규	03546	이유택	03622	홍진희	03631	황선영
03686	이진성	03700	박일순	03709	임봉학	03728	김영우	03736	이승철	03784	문효수
03799	김은하	03816	신현식	03861	정지성	03916	김윤모	03940	김종석	04030	김용덕
04131	박용석	04138	백충현	04178	이중영	04178	정현수	04195	이봉환	04223	최문희
04238	송형섭	04307	이용민	04381	김상관	04407	오정준	04493	신중렬	04571	김송영
04609	박종혁	04628	김현주	04743	김종왕	04786	이충호	04807	이은숙	04809	나국진
04821	조형기	04874	김현승	04977	정태일	04996	왕성민	05036	박찬호	05041	박성수
05165	김응걸	05376	신현호	05409	이법재	05460	이광훈	10048	전재수	10104	유석중
10123	박종화	10147	정구훈	10169	김광석	10206	오애향	10244	전호길	10269	박상근
10279	이병화	10283	안진태	10296	남현주	10301	하정웅	10311	유경훈	10317	지정록
10332	김두용	10360	이용석	10364	이동환	10388	추동업	10393	조효성	10400	정진경
10406	구영목	10414	문연식	10426	박병윤	10458	정진환	10475	이세웅	10522	조재규
10525	민영희	10536	은창용	10539	김상철	10566	윤상연	10636	김병철	10666	서석태
10691	김동득	10697	김현수	10700	강원수	10709	김기석	10713	손해익	10713	김혜경
10784	유안석	10808	박태준	10823	최석환	10830	권두기	10835	허정웅	10848	이선경
10868	김풍태	10888	황상문	10918	강성웅	10948	조의택	11044	박종일	11057	이희재
11078	정동수	11094	정민교	11125	오세문	11126	유영호	11187	김성규	11197	김정규
11206	장상훈	11221	박현조	11222	오세준	11223	박기석	11236	조낙영	11250	장래운
11269	송명곤	11271	정상호	11280	정명규	11284	김병균	11317	최형석	11327	김영규
11329	민왕식	11331	엄태형	11377	김기홍	11440	문현수	11500	권성근	11506	윤정훈
11520	이상목	11543	김동규	11564	변영근	11592	이기식	11596	도중선	20020	김용철
20025	장영길	20061	이승권	20175	김민창	20179	김규섭	20191	강전호	20226	김 원
20233	정집문	20271	이형주	20273	김용관	20304	유장기	20312	윤대두	20339	김형규
20369	김광석	20375	장근홍	20465	양종경	20476	김형열	20479	조성범	20482	강덕희
20484	유창수	20501	고영학	20504	나형석	20513	음한욱	20583	박대일	20668	고부강
20693	배중수	20755	이재걸	20798	이재용	20799	전홍현	20821	최인주	20874	박동원
20965	소태호										

※ 2003년도 건축사자격시험 추가합격자 : 30060 이호숙

2004년 건축허가 현황(12월)

■ 용도별

(단위 : 동, 제곱미터)

구 분		당월 (12월)			누계 (1~12월)		
		2003년	2004년	증가율	2003년	2004년	증가율
계	동 수	12,563	13,752	9.5%	166,423	142,777	-14.2%
	연면적	13,597,986	18,137,075	33.4%	142,108,130	117,461,257	-17.3%
주거용	동 수	4,046	3,834	-5.2%	62,307	45,878	-26.4%
	연면적	6,793,028	11,188,490	64.7%	62,128,409	50,099,492	-19.4%
상업용	동 수	3,904	3,508	-10.1%	55,002	43,923	-20.1%
	연면적	3,704,966	2,239,119	-39.6%	45,809,141	30,965,722	-32.4%
공업용	동 수	1,835	1,954	6.5%	20,317	20,805	2.4%
	연면적	1,200,007	1,220,717	1.7%	14,738,006	14,740,498	0.0%
문교및 사회용	동 수	745	1,119	50.2%	7,804	9,075	16.3%
	연면적	684,386	1,218,167	78.0%	7,919,419	8,859,982	11.9%
기 타	동 수	2,033	3,337	64.1%	20,993	23,096	10.0%
	연면적	1,215,599	2,270,582	86.8%	11,513,155	12,795,563	11.1%

■ 구조별

(단위 : 동, 제곱미터)

구 분		당월 (12월)			누계 (1~12월)		
		2003년	2004년	증가율	2003년	2004년	증가율
계	동 수	12,563	13,752	9.5%	166,423	142,777	-14.2%
	연면적	13,597,986	18,137,075	33.4%	142,108,130	117,461,257	-17.3%
철 근 철골조	동 수	11,080	12,101	9.2%	144,960	123,805	-14.6%
	연면적	13,472,296	17,957,659	33.3%	139,964,820	115,526,269	-17.5%
조적조	동 수	1,275	1,437	12.7%	19,379	16,653	-14.1%
	연면적	103,064	158,756	54.0%	1,759,436	1,551,395	-11.8%
목 조	동 수	208	213	2.4%	1,993	2,316	16.2%
	연면적	22,626	20,611	-8.9%	373,365	383,008	2.6%
기 타	동 수	-	1		91	3	-96.7%
	연면적	-	49		10,509	585	-94.4%

■ 시도별

(단위 : 동, 제곱미터)

구 분		당월 (12월)			누계 (1~12월)		
		2003년	2004년	증가율	2003년	2004년	증가율
계	동 수	12,563	13,752	9.5%	166,423	142,777	-14.2%
	연면적	13,597,986	18,137,075	33.4%	142,108,130	117,461,257	-17.3%
수도권	동 수	3,943	5,151	30.6%	60,977	48,969	-19.7%
	연면적	5,744,585	8,290,483	44.3%	71,891,523	56,652,895	-21.2%
서 울	동 수	850	717	-15.6%	17,793	8,827	-50.4%
	연면적	2,102,704	1,015,029	-51.7%	27,402,024	13,084,194	-52.3%
인 천	동 수	317	505	59.3%	5,425	4,769	-12.1%
	연면적	559,408	1,286,423	130.0%	8,391,901	7,498,649	-10.6%
경기도	동 수	2,776	3,929	41.5%	37,759	35,373	-6.3%
	연면적	3,082,473	5,989,031	94.3%	36,097,598	36,070,052	-0.1%
지 방	동 수	8,620	8,601	-0.2%	105,446	93,808	-11.0%
	연면적	7,853,401	9,846,592	25.4%	70,216,607	60,808,362	-13.4%
부 산	동 수	681	399	-41.4%	7,251	4,902	-32.4%
	연면적	1,473,691	405,072	-72.5%	11,018,233	5,223,864	-52.6%
대 구	동 수	627	497	-20.7%	8,118	5,350	-34.1%
	연면적	1,365,886	1,000,098	-26.8%	8,273,868	6,059,048	-26.8%
광 주	동 수	425	403	-5.2%	4,092	3,407	-16.7%
	연면적	1,176,859	804,089	-31.7%	5,695,757	2,821,020	-50.5%
대 전	동 수	430	257	-40.2%	5,407	3,344	-38.2%
	연면적	603,185	253,254	-58.0%	5,797,391	3,221,983	-44.4%
울 산	동 수	376	253	-32.7%	4,528	3,518	-22.3%
	연면적	155,870	64,828	-58.4%	1,963,382	1,915,582	-2.4%
강 원	동 수	665	678	2.0%	8,544	7,776	-9.0%
	연면적	314,069	940,921	199.6%	4,394,406	4,630,372	5.4%
충 북	동 수	605	719	18.8%	7,221	8,715	20.7%
	연면적	319,872	595,133	86.1%	3,351,917	5,530,000	65.0%
충 남	동 수	708	964	36.2%	9,336	11,462	22.8%
	연면적	687,948	1,325,807	92.7%	6,518,507	9,630,384	47.7%
전 북	동 수	578	722	24.9%	7,771	6,657	-14.3%
	연면적	248,824	642,386	158.2%	3,185,693	2,926,640	-8.1%
전 남	동 수	692	849	22.7%	8,439	7,782	-7.8%
	연면적	235,659	809,771	243.6%	3,143,950	3,662,530	16.5%
경 북	동 수	1,303	1,271	-2.5%	15,297	13,785	-9.9%
	연면적	602,310	1,576,303	161.7%	6,564,543	6,677,651	1.7%
경 남	동 수	1,182	1,262	6.8%	14,776	13,465	-8.9%
	연면적	532,196	1,304,645	145.1%	8,227,956	7,342,425	-10.8%
제 주	동 수	348	327	-6.0%	4,666	3,645	-21.9%
	연면적	137,032	124,285	-9.3%	2,081,004	1,166,863	-43.9%

건축사사무소 등록현황

(사 : 사무소수, 회 : 회원수)

2004년 12월말

구 분 건 축 사 회	개 인 사 무 소										법 인 사 무 소										용 역 사무소	합 계		비율(%)													
	1인	2인	3인	4인	5인이상	소 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이상	소 계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합계	5,089	5,089	232	462	28	86	2	8	0	0	5,351	5,645	1,441	1,441	276	546	85	256	26	104	16	80	6	36	5	35	6	55	1,861	2,553	9	9	7,221	8,207	100.0%	100.0%	
서울	1,259	1,259	69	138	15	47					1,343	1,444	853	853	169	338	53	159	16	64	8	40	4	24	5	35	4	35	1,112	1,548	8	8	2,463	3,000	34.1%	36.6%	
부산	533	533	29	58	3	9					565	600	65	65	12	24	7	21	4	16	4	20	1	6					93	152			658	752	9.1%	9.2%	
대구	426	426	32	64	4	12	2	8			464	510	40	40	19	38	4	12	1	4	2	10							66	104			530	614	7.3%	7.5%	
인천	226	226	3	6							229	232	44	44	7	13														51	57			280	289	3.9%	3.5%
광주	193	193	3	6							196	199	32	32	11	22	3	9	3	12			1	6					50	81			246	280	3.4%	3.4%	
대전	201	201	18	36	3	9					222	246	26	26	8	16	2	6									1	11	37	59			259	305	3.6%	3.7%	
울산	150	150	6	12	1	3					157	165	15	15	2	4	2	6											19	25			176	190	2.4%	2.3%	
경기	647	647	27	52							674	699	217	217	26	47	8	25			1	5							252	294			926	993	12.8%	12.1%	
강원	155	155	5	10							160	165	23	23	3	6					1	5							27	34			187	199	2.6%	2.4%	
충북	161	161	8	16							169	177	19	19	6	12	1	3	1	4							1	9	28	47			197	224	2.7%	2.7%	
충남	149	149	3	6							152	155	30	30			2	6	1	4									33	40			185	195	2.6%	2.4%	
전북	179	179	3	6							182	185	19	19	4	8	1	3											24	30			206	215	2.9%	2.6%	
전남	132	132									132	132	8	8			1	3											9	11			141	143	2.0%	1.7%	
경북	264	264	10	20	1	3					275	287	27	27	1	2	1	3											29	32	1	1	305	320	4.2%	3.9%	
경남	311	311	15	30	1	3					327	344	17	17	8	16													25	33			352	377	4.9%	4.6%	
제주	103	103	1	2							104	105	6	6															6	6			110	111	1.5%	1.4%	

건축사회별 회원현황

구 분 건축사회	회 원				준회원
	건축사	2급	계	비 율	
합 계	8,197	10	8,207	100.0%	28
서울	2,997	3	3,000	36.6%	16
부산	751	1	752	9.2%	8
대구	614	0	614	7.5%	0
인천	289	0	289	3.5%	0
광주	280	0	280	3.4%	0
대전	304	1	305	3.7%	0
울산	190	0	190	2.3%	0
경기	991	2	993	12.1%	2
강원	199	0	199	2.4%	0
충북	224	0	224	2.7%	1
충남	192	3	195	2.4%	0
전북	215	0	215	2.6%	0
전남	143	0	143	1.7%	0
경북	320	0	320	3.9%	1
경남	377	0	377	4.6%	0
제주	111	0	111	1.4%	0

사무소형태별 회원현황

구 분	개인사무소	법인사무소	용역사무소	합 계	비 고
회 원 수	5,645	2,553	9	8,207	
비 율	68.8%	31.1%	0.1%	100.0%	
사무소수	5,351	1,861	9	7,221	
비 율	74.1%	25.8%	0.1%	100.0%	